

기초연구 2004-04

##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

책임연구원 :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 민병직(산업대학교 강사)

연구 조원 : 박혜은, 전수재, 이우석, 이성진, 정정인, 유은주

## 연구 요약문

최근 들어 지역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90년대 지자체 시행 이후 개별적인 지역문화운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앙화의 성장주의 논리와 지역의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의 담론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있다. 환언하면 기존의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된 문화발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운동에 대한 현실인식과 그 활성화만이 진정한 문화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지역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 한 계기로서 경기도 근·현대 미술사를 그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초점을 작가 중심이 아니라 특히 소집단 미술활동에 둔 것은 이번 연구가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지역 미술사 서술을 위한 그 단초와 밑 작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집단 미술활동은 자발적인 미술흐름인 동시에 현장성에 기반을 둔 미술흐름으로서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미술흐름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수성,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미술문화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흐름을 조명해 보고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역미술이 성장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미술의 고질적인 구조와 한계를 드러내고 다양한 흐름이 노출되어 있는 자생적인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적인 상을 그리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가 중심이 되었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색인·정리하였다. 각 지역미술 소식을 전하고 있는 지역신문기사와 더불어 일찍부터 지역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면을 할애한 미술 전문잡지를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검색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밖에도 경기미술과 관련한 전시관련 도록과 기타자료 그리고 지역미술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미술활동의 흐름을 추적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전반적인 구성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 장을 제외하면 본론은 두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사실 전체 논문의 두 번째 장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장에서는 경기도 내 소집단 활동의 흐름을 지역별로 기술하였다. 이 장은 지역 구분에 따라 크게 3개의 절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절은 경기도 내 근·현대 미술활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인천과 수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현재 인천은 경기도에서 분화하여 광역시로 승격된 상태이지만 분화되기 이전까지는 경기도 미술활동의 중심지였던 만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이후 행정의 중심이 수원으로 옮겨오면서 미술활동 또한 수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본 절에서는 <경기청년작가회>, <포인트, 시점시점>, <시작회>, <경기현대작가회>, <경기구상작가회> 등 다수의 소집단 활동들의 궤적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두 번째 절은 행정중심구역을 제외한 경기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부천, 안양, 안산, 오산, 평택, 이천, 광명 등의 경기남부 지역의 활동은 행정중심지역보다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천의 지역적 기반을 의식하면서 결성된 그룹인 <삶의 터 작가회>나 본격적인 지역미술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안양의 <우리그림>, <우리들의 땅> 등 눈여겨 볼만한 단체들이 적지 않다.

세 번째 절은 경기도에서 활동이 가장 미미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의정부, 동두천, 김포, 양주, 연천, 포천, 가평, 구리, 파주, 고양시를 아우르는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도 미술활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긴 하지만 경기북부 최초의 미술인 모임이라 할 수 있는 <동두천 미술회>를 비롯하여 비교적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북부현대작가회>, 그리고 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 광주, 남양주의 소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의 두 번째 장이면서 논문 전체 구성 중 세 번째 장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경기도 내 소집단 활동의 지역적 흐름을 통해 파악된 주목을 요하는 흐름 및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역의 미술문화를 일구어 내려는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미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몇 한계점으로 인해 그 충분한 성과가 가시화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 근·현대미술사 서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후 보다 발전된 구체적 서술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차 례

<b>I. 서 론</b> .....	<b>1</b>
1. 연구주제와 방향성 .....	3
2. 연구방법과 그 한계 .....	7
<b>II. 경기도 소집단 미술 활동의 지역별 흐름</b> .....	<b>9</b>
1. 행정중심지역 .....	11
1) 인천 .....	12
2) 수원 .....	17
2. 경기남부지역 .....	53
1) 부천 .....	53
2) 안양 .....	56
3) 안산 .....	64
4) 오산 .....	66
5) 평택 .....	66
6) 이천 .....	67
7) 광명 .....	68
3. 경기북부지역 .....	69
1) 고양 .....	71
2) 구리 .....	73
3) 남양주 .....	74
<b>III. 주목을 요하는 기타 흐름 및 프로젝트</b> .....	<b>75</b>
<b>IV. 결 론</b> .....	<b>82</b>

참고문헌 .....	88
부 록 .....	90
별첨자료 1. 경기도 근·현대 미술사 주요활동 색인 .....	91
별첨자료 2. 『경인일보』 경기문화관련 기사 색인(1961~2002) .....	96
별첨자료 3. 『미술세계』 경기도 미술관련 기사 색인(1987~2003) .....	127

## 그림 목차

<그림 1> 경기도의 옛지도 .....	1
<그림 2> 경기도의 현지도 .....	9
<그림 3> 제2회 경기청년미술인회전 도록 .....	20
<그림 4> POINT- 79전 도록 .....	23
<그림 5> 시작회 창립전 도록 .....	25
<그림 6> 경인작가 초대전 도록 .....	27
<그림 7> 제5회 경기구상작가회전 도록 .....	29
<그림 8> 일구팔이일이전 도록 .....	30
<그림 9> 수원미술인협의회 창간호 표지 .....	36
<그림 10> 전국환경미술전 도록 .....	37
<그림 11> 컴아트 <교감미술제> .....	42
<그림 12> 슈룹 기획전 <경중가인전> .....	48
<그림 13>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 전시 도록 .....	58
<그림 14> 우리그림 소식지 .....	59
<그림 15> 구름가족이야기 책 표지 .....	60
<그림 16> 우리들의 땅 도록 .....	61
<그림 17> 안산미술협회 창립전 도록 .....	65



# 1. 서론



<그림 1> 경기도의 옛지도

본 연구는 지역미술의 관점에서 경기도 근·현대 미술사 서술을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들어 지역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그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지역문화운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된 문화발전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진정한 문화발전이란 결국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운동에 대한 현실 인

식과 그 활성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90년대 지자체의 시행 이후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지역문화사 서술은 개괄적인 소개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단위의 문화예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그 관건일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의 출발은 우선 이러한 지역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고 그 한 계기로서 미술 분야인 경기도 근·현대 미술사를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역미술사 서술은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프로젝트는 그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기초연구의 토대라 할 수 있을 자료상의 제약을 들 수 있다.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경기 미술 관련 아카이브 역시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개인 소장 자료 역시 관리 형태가 매우 소홀했던 점은 연구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는 본 연구의 객관적인 한계와 맞물린 문제인 동시에 개인 소장이 갖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새삼 기초 자료의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공신력 있는 단위에서의 기초 예술 자료를 위한 조사, 보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점은 지역미술이란 담론 아래 묶어질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았던 점이다. 지역미술에 대한 표면적인 관심은 지역화단의 성립과 더불어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 본격적으로 외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던 9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그나마도 지역의 특수한 맥락에 조용하며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은 지역미술의 발전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더욱 더 지역의 토양에 기반을 둔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던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진행형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보다 발전적인 지역미술의 토양이 전개되었던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지역미술에 대한 고민이 개진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작지만 소중한 성과로 남는다. 하지만 이후의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지역미술의 구체적인 성과와 의의를 밝히려는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는 이후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그 기초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으로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 연구 주제와 방향성

이번 연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미술사 서술 즉, 경기도라는 지역적 단위에 근거한 연대기적 미술사 서술을 지양하려 했다. 다시 말해 경기도라는 지리적인 지역성을 매개로 한 미술 흐름의 병렬적인 나열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변별적이고, 자생적인 흐름이라 할 있는 미술문화의 흐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런 면에서 얼마간은 연구자의 선택적 서술에 근거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역사 서술에 있어 무원칙한 객관적 정보의 나열 대신 선택적인 가치부여를 통한 서술의 방향성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술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술의 방향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리했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의식적인 활동의 흐름이 많지 않았던 점이 그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기초 짓는 몇 가지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을 밝힌다.

우선 지역성에 대한 다음의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지역성(locality)과 지역화(loc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은 중앙화(세계화)의 성장주의 논리와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의 담론을 만들어간다는 데 있을 것이다.<sup>1)</sup> 미술에 있

1) 굳이 정치, 사회적인 예를 들지 않고 미술의 경우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중앙중심적인 논리의 전개와 편중된 발전은 지역 단위의 보다 많은 활동에 바탕을 둔 다양하고 생기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미술에 대한 협소한 이해, 곧 엘리트주의적이고 신화적인 독해와 연결되는 논리이기도 하고 그만큼 미술을 현실문화의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떼어놓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술의 특정 논리만이 반복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부작용을 산출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제기되는 지역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미술담론'을 비롯한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은 넓게 본다면 (한국) 미술의 자생성과 고유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미술문화의 발전이 어느 일방적인 중심의 논리로 획득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서의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 단위의 활동을 토대로 한 다양성과 차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부여인 동시에 중심화 된 논리가 갖고 있는 일방적인 모습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어떠한 미술도 그 미술의 구체적인 맥락을 통한 특수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심화를 통하여(지역미술) 상호의존적인 '전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한국 근·현대미술)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축적시키는 맥락(지역미술의 특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역(경기도라는 미술문화의 공간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경기도 미술이라는 중앙에 대립하는 지방 미술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그 수직적인 하위 개념으로서의 지역성에 관한 인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측면에서 지역미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생적인 미술흐름 자체의 풍부함과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역으로 새로운 근·현대미술의 상을 그려내는 작업과 맞물리는 문제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그러한 흐름을 특화시킬 수 있는 활동의 존재유무도 연구의 과제가 지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활동의 윤곽 역시도 특정한 관점을 통해 그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연구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우선 경기도라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미술운동 흐름을 자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 대안적이고 발전적인 미술흐름을 특화시키고자 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지역미술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전적인 흐름의 가능성을 애초에 선언적으로 차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역사 서술이란 것이 아무런 관점 없이 무원칙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라는 면에서 연구의 기본 관점으로 이후 발전적인 지역미술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미술문화의 독자성 및 특수성, 다양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과도 맞물린다. 과거에 매몰되는

서술이 아닌 이후의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후의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흐름을 복원시켜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다양하고 발전적인 가능성에 주목을 하여 가시적인 장소로서의 지역개념이 아니라 지역미술이 가진 잠재력, 비가시적인 측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 지역을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대략적인 사실의 나열과 윤곽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의 기술, 혹은 고고학적 서술 역시 외면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기본적인 범위와 한계설정이다. 이번 연구의 경우 작가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소집단 미술활동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객관적인 제약으로 인해 작가중심의 서술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가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미술사 서술을 위한 그 단초와 밑 작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미술의 궤적을 드러낼 수 있는 소집단 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집단 개념 역시 엄밀하고 일관된 적용이 아님을 밝힌다.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소집단의 개념은 기존 미술계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나온 개념으로 자생적인 미술문화를 억압하는 제도 및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하는 개념이다. 소집단 개념은 기존의 동호인 모임, 그룹 활동과 달리 현실적인 미술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다 분명한 조형원리와 미술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지향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집단 미술운동은 자발적인 미술흐름인 동시에 현장성에 기반을 둔 미술흐름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구체적인 미술흐름을 가시화 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되기에 선택된 용어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역미술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소집단 활동이 설정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집단 미술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미술의 여러 가지 한계와 상황을 드러내는 작업과도 맞물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소집단 개념이 단순한 전문 동호인 모임, 그룹 활동, 단체 활동과 분리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미술사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미술그룹, 전문동호인 모임, 단체 활동을 특별한 개념적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아마추어 활동인 소모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분리의 선을 그었고 자세한 서술은 지양하였다. 대신 아마추어 소모임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서술하였고 초점을 지역미술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담고 활동한 미술전문그룹, 미술 소집단에 두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지역미술에 대한 개념은 우선 지역을 거점으로 오랜 작업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이란 측면에 주목하였다.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활동이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긴 했지만 그러한 흐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을 단위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작업 활동을 전개해온 흐름 역시 복각의 주요한 흐름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방미술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곧 지역의 다양한 정서와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지역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미술흐름들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출발했다. 더욱이 80, 90년대 들어 전통적이고 향토주의적인 경치 및 풍경 화가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지방과 시골들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지역의 공간성) 지역미술이 재평가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운동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삶과 함께하는 미술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해했고 지역미술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근거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을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새롭게 주목을 하려 했었지만 연구의 제약된 한계로 인해 충분히 기술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수성,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미술문화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흐름을 조명해보고,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역미술이 성장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미술의 고질적인 구조와 한계를 드러내고 다양한 흐름에 노출되어 있는 자생적인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적인 상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 충분한 성과가 가시화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지역미술의 현황에 대한 파악 못지않게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좀더 다양한 지역미술의 성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 2. 연구 방법과 그 한계

이번 연구는 이상의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 범위가 넓은 뿐만 아니라 활동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 작업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를 비롯한 프로젝트의 객관적인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문화활동의 기초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31개 시군지에 나타난 지역미술의 현황을 조사, 분류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지역 시군지에서도 그 활동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 자료로서 데이터를 색인하였고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미술 소식을 전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토대로 경기미술 관련 기사를 조사, 색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역시 다수의 지역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경인일보』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도한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후의 연구자를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미술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지면을 할애한 미술 전문잡지 ‘미술세계’를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검색하여 자료정리를 하였다. 이외에도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경기도 미술과 관련한 전시관련 도록과 기타 자료들을 통해 경기도 미술활동의 흐름을 추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장 기본적인 경기도 미술연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좀더 구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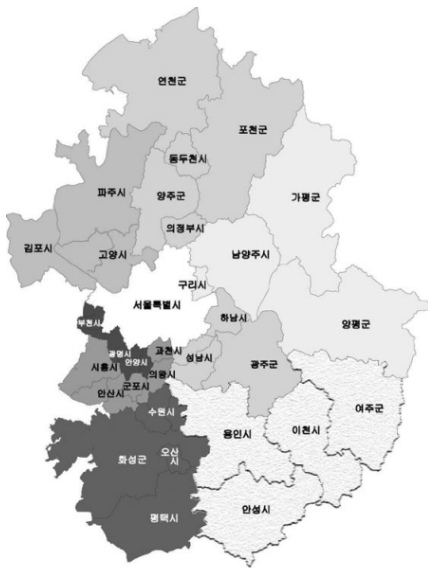
인 흐름에 대해서는 지역미술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지역미술인들의 인터뷰는 연구의 구체성과 생기있는 서술의 밑바탕이 되었지만 구술기록의 한계 역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의 있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용택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이석기 선생님, 이운숙 선생님, 박찬웅 선생님과 자료 조사에 도움을 주신 경인일보와 이영미술관에게 다시 한번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조건으로 인해, 서예와 도예, 디자인과 사진 분야를 포함한 미술문화 전반을 살펴보지 못했으며 서양화와 조각, 설치 등을 위시한 좁은 의미의 현대미술에 한정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인물 중심의 서술보다는 소집단 중심의 그룹 활동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였던 경기도 미술인들의 활동이 드러내지 못했던 점 역시 이번 연구의 한계 일 수밖에 없다.



## II. 경기도 소집단 미술 활동의 지역별 흐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는 남한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지역으로 현재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스물네 곳의 시군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



<그림 2> 경기도의 현지도

이다. 서울과 거리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화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근 다수의 신도시들이 형성되고 있어 광역 수도권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여건, 곧 수도권 문화를 직접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역적인 위상은 문화의 균등한 발전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문화 발전을 위한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서울 문화권에 속해 있어 지역에 근거한 독립적인 문화발전의 토양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

다. 이는 지나친 서울 중심의 발전논리로 점철되어 온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통해 더욱 증폭되는데 가깝고도 먼 수도권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서울에 대한 종속적 현상이 특히 심화된 곳으로 내비쳐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경기도는 일찍부터 서울과 함께하면서도 서울과는 다른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낸 지역이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의 변방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문맥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상대적으로 서울과 독립된 지역성, 곧 호남이나 영남에 비해 고유의 지역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경성 선생은 엄격한 의미

의 경기미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외곽지대라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올바른 지방문화의 개화를 위해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으며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경기도 미술은 항상 서울 미술의 조연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2)</sup> 2003년 기획되었던 미술 그룹 <슈룹>의 「경중가인」전은 경기도의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었다. 경기도의 변방과도 같은 특성을 빗대 거울 속에만 자리하는 미인, 즉 실속 없다는 의미에서 경기도 문화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경기도 미술의 한 특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의 다양한 문화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낙후되지 않은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의 전 장르에 걸쳐 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미술의 실험이나 활동 역시 다수 존재하였던 것 역시 경기도 미술의 상대적인 특색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지역 일반의 특수성과 아울러 경기도 미술을 거론함에 있어 또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지역 내의 불균등한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편차가 심해 몇몇 지역의 경우 상대적 인 독립성을 갖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자생적인 미술문화가 발전하였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전하게 된 지역의 경우 그 짧은 역사로 인해 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경기도 내의 다양한 지역의 미술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미술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양, 성남, 평택, 송탄, 광명, 의정부는 기존의 미협을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안산, 이천, 안성, 강화, 용인을 비롯한 기타지역은 미술교사와 지역연고 작가를 중심으로 이미 협회를 결성했거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원 미술계는 90년을 기점으로 표현양식과 경향에 따른 전문 그룹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져 창작의 심화를 통한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2) 『경기도사』, 제2권, 1989년.

있게 된 한편, 전문 그룹의 분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그룹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면이 있으며 그룹 이기주의의 심화는 지역 미술계 전체에 편치 못한 긴장감을 조성 시키고 있어 그룹의 전문성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화합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천지역은 장르별, 경향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세대와 지역이라는 연고로 모든 경향을 수용하는 하나의 그룹을 통해 활발한 장을 펼치고 있으나 2-3년이 경과하면 필연적으로 전문그룹이 탄생되어 분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본고에서는 인천, 수원을 중심으로 안양, 부천, 안산 등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다른 지역의 경우 한정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전체적인 활동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자료상의 제약도 있지만 기타 지역의 경우 특징적인 활동 자체가 드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하게는 본 연구의 한계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며 이에 관해서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둬를 밝힌다.

## 1. 행정중심지역

경기도의 근·현대 미술의 중심은 주로 인천과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방을 전후로 하여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기 이전까지 상당부분 인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여타의 지역에서 활동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당시 행정상으로 경기도의 중심이었던 인천이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지역적인 배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수원이 경기도 미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인천이 독립된 지역으로 자체적인 발전경로를 가지며 전개되었던 사실과 아울러 수원이 경기도 내의 행정적인 구심으로 발돋움하였던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1980년대 초반까지 경기 미술의 중심지였던 인천 지역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3) 권용택, 『미술세계』, 92년 2월호.

## 1) 인천

해방을 전후로 하여 경기도 미술의 전개는 인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인천 중심의 활동은 1981년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근·현대미술의 전사 역시 인천을 주요 거점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취한다. 물론 수원을 위시한 몇몇 지역에서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1980년대까지의 경기도 미술활동에 대한 논의는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해방 이전의 경우 지역적 미술을 감지할 수 있는 흐름은 서예, 서화 등의 전통예술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장르의 경우는 사숙(私塾)의 형태로 명맥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1910년을 전후로 하여 취헌(醉軒) 김병훈이 사군자와 산수풍경 그리고 한문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하였던 '의성사숙'이 지역을 거점으로 한 미술문화를 이끌어 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서양화의 경우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인천 거주 몇몇 작가들, 즉 이무영, 김진태, 김영건 등이 입상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다. 「선전」의 경우 일제의 식민문화통치 전략으로 내세운 민족적 정체성이 없는 향토색 짙은 유태주의와 소재주의라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가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작가적 입신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해방 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행사 주체와 명칭만 바뀐 「국전」이나 「미술대전」 그리고 지역의 각종 「공모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앙의 존적인 미술공모전이 갖는 인맥과 학벌 중심의 파행적인 구조가 작가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의존적인 '공모전'의 보수적인 구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의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위

4) 인천을 중심으로 한 미술흐름의 서술은 인천의 대안공간 '스페이스 빔'에서 꾸준히 연구 진행해 온 '인천미술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한 소그룹 활동이 많아졌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인천에서는 1946년 <인천미술동인회>라는 인천 최초의 미술단체가 발족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7년에 <인천미술인협회>가 결성된다. 당시 활동을 펼쳤던 작가들로는 김기택, 김순배, 김찬희, 이견영, 임직순, 최석재, 박응창, 김학수, 우문국, 김찬희, 이명구, 윤기영, 한봉덕 등과 미술평론가였던 이경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동인들 간의 친목과 교류를 통해 해방 전후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미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미술이념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엿보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1948년 <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 산하의 인천미술협회를 결성되었고 문총산하 인천미술협회는 1952년 <대한미술협회>(미협)가 생길 때까지 경기도 미술의 구심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1981년까지 경기도 지부로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의 상황은 전국단위의 조직인 <문총>의 예술이념과 이에 대항하여 조직된 <자유예술인연합회>(자유예연)의 이분화된 구도 속에서 미술계의 고질적인 권력구도가 형성된 시기였다. 지역의 미술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조차도 중앙중심적인 미술의 현황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1954년 정부의 예술단체 일원화 방침에 따라 양대 조직의 인천지부가 통합하여 <인천미술협회>(인천 미협)가 결성된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로는 김학수, 김찬희, 유희강, 우문국, 김영진, 박영성, 황추등을 들 수 있다. <인천미협>은 1961년 5·16 혁명으로 모든 문화단체가 해산될 때까지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황추 유화전」(1955)을 필두로 개인전이 연이어 개최되기 시작한다.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양데광당」전이 1959년에 개최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미협 차원에서 마련된 이 전시는 신인과 기성미술인이 참여하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체계를 갖춘 신인 등용을 위한 미술행사였고 이후 「소성미술전」, 「경기도미술전람회」(1965년), 「인천광역시미술대전」(1995년)으로 확대 발전하게 된다.

1961년 발발한 5·16 혁명은 기존의 단체를 다시 개명하고 재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 미협 경기도 지부>가 새롭게 구성되어 <예총 경기도 지부>의 산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각 지부 단위의 결성과 함께 7-80년대까지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많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형식적인 기반이 된다. 지역 미협 활동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미술인들에게는 지역 단위의 미술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60년대에 주목할 만한 미술 소그룹은 1969년 발족된 <오소회>를 들 수 있다. 이경성의 발의로 만들어진 <오소회>는 당시 인천 미술계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 60-70년대의 상황은 많은 지역 작가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거기다가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두 일간지마저 폐간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미술의 존폐 위기를 느낀 작가들이 참여한 모임이 <오소회>였다. 박응창, 김영건, 이경성, 윤갑로, 우문국이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유희강, 정재홍, 장인식, 오석환, 황병식 등이 참여하였는데 <오소회>는 미술 공간이 전무하던 시절 그 기능을 대신했던 '은성다방'에서 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소그룹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오소회> 역시 본격적인 미술 이념과 활발한 실험과 모색이라는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자생적인 모임의 성격과 아울러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심미적, 주관적 경향의 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거대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미협>과 구분되는 자발적인 미술인들의 모임이라는 측면과 이후 인천 미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활동이었다고 평가된다.

70년대의 인천미술은 좀 더 활발한 양상을 가지고 전개된다. 본격적인 근·현대 미술의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70년대라는 엄혹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1980년 「현대미술상황-인천」전은 인천미술계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 전시를 계기로 젊은 작가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인천 미술계의 중요한 흐름으로 외화되기 시작한다. 70년대 후반 인천화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현대미술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인천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현대미술상황> 그룹을 만들었다. 이들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은 지역화단에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기존의 미술의 흐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미술의 영역에 대한 모색을 통해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미술상황>이 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80년대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뜨겁고 치열했던 시기였고 이 그룹의 현실적인 고려가 뒷받침되지 않았던 형식적인 흐름에 대한 반발이 일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5년 창립된 <지평> 그룹이 그 대표적 단체라 할 수 있다. <지평>은 당시의 민중미술의 일반적인 흐름이 그렇듯이 현실과 역사에 대한 예술의 참여와 아울러 깊이 있는 시대인식과 그 조형적 원리로 (비판적) 리얼리즘을 채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천 미술계 역시 우리나라 80년대 미술 운동을 양분하던 논리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두 주요한 흐름을 축으로 길항관계를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무렵 다수의 그룹들이 출범하게 되는데(<일수회>(1979년, 한국화), <인천수채화회>(1982년), <추인전>(1982년, 추계에대동문모임), <인천여류작가회>(1983년), <인천조각회>(1984년), <인천청년작가회>(1986년)등) 이는 '소집단', '소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단이나 빈민지역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미술실천이 꾸준히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현장에 기반을 둔 미술실천의 경우 지역성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미술에 대한 고민이라는 그 긍정성과 그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문, 성별, 연령, 친목 중심의 모임이거나 장르나 재료에 따라 구별된 개별적인 모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80년대까지의 인천미술사에 대한 대략적인 활동에서도 드러나듯,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동의 근간에는 지역미술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깔려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들은 당시의 지역미술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미술계의 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이기도 했다. 이는 인천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미술을 둘러싼 역사적인 한계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영향의 일반적인 양상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단, 지역미술을 위한 문제의식, 그 단초를 위한 활동을 얼마나 전개했는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인천미술은 1981년 직할시, 1985년 광역시로 거듭나면서 경기도와 독자적이면서 그 고유의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키게 되며 지역미술 발전에 있어 하나의 전형으로 모습을 거듭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95년 창립된 <인천미술인협의회>(인미협)가 중심이 되어 기획한 여러 활동들을 들 수 있다. <인미협>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역적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예술이념을 실현시키려 노력했다. 창립전과 더불어 개최된 포럼 '지방자치와 인천미술'을 필두로 하여 무크지 '황해미술'을 통해 지역미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황해의 아침」 전(1995년), 「인천의 초상」 전(1996)년 등 지역적 현실에 기초한 여러 전시를 기획하였다. 199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황해의 역사와 환경」 전, 1998년 「황해미술제」를 개최하여 지역미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밖에도 1998년부터 시작된 「인천영상미술제」의 경우도 종래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중앙집권적 문화지형을 허물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매체미술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기획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90년대 이후 인천미술이 제기한 지역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다른 지역미술계에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는 대안 공간 '스페이스 빔'의 활동이 새로운 지역미술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이 90년대 내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미술공간의 형성, 미술정책의 문제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천적인 활동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던 상황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미술사에도 유사하게 관철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수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활동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수원

해방 전의 수원 지역에서의 미술활동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나혜석과 30년대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미술평론과 창작 활동을 통해 두각을 보였던 홍득순, 장윤천, 한재남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나혜석은 1929년 용주사 포교당에서 수원 최초의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수원미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알리게 된다. 나혜석의 다채로운 활동의 중심엔 수원이라는 지역적 맥락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조명되어 「나혜석 현대여성미술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족미술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시각 속에서 1930년대 탄생한 <동미전>의 주요 이론가였던 홍득순은 외래 사조중심의 화단내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예술' 창조를 주창하게 된다. 조선의 현실, 자연, 환경에 주목하여 한국 고유의 화풍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각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홍득순의 이러한 주장이 지역미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지기엔 여러 가지 시대적 한계가 존재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장윤천, 한재남은 수원출신으로 「선전」에 출판입선한 경력을 가진 작가들이다. 「선전」에 출판한 것조차 지역 문화사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의 미술계의 활동은 미약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전의

활동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1929년 4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가 결성되어 1930년 3월 26일 수원동맹 지부에서 제1회 「프로미전」을 개최했던 사실이다. 수원극장과 그 앞거리에서 열린 이 전람회는 회화, 판화, 만화, 현수막, 벽보 등 130여점이 출품되었으나 그중 70여점이 검열로 철거를 당하고 개막 3일 만에 전시장이 폐쇄되고 전시 주도자가 체포되는 등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중에 수원 시내의 수천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고 기록하는데 당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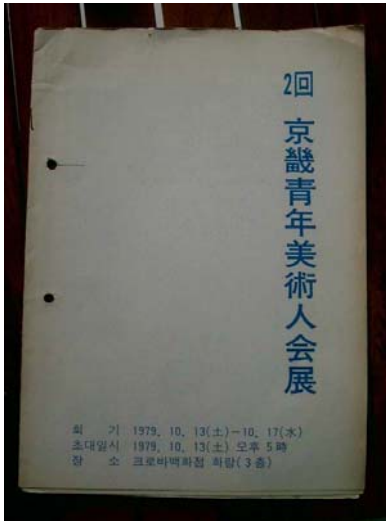
광복 이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가로 김학두, 이영일, 이승영, 이수덕, 안찬주, 박기환, 권대균, 김교선, 홍승인, 윤재상, 김인겸, 이필운, 오인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거의 암흑기와도 같았던 당시의 수원화단의 구심적 인물로 작업 활동과 더불어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후 지역화단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화단 특유의 감수성과 흐름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화단과 지역화단을 오가며 활동을 전개했던 개별적인 작가중심의 활동이었지만 그 인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고 지역화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영향을 끼쳤다.

이후 1964년 3월 22일 <미술협회 수원지구회>가 결성된다. 당시 회장은 안찬주였고 부회장은 김학두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 5월 23일 <미협 수원지부>로 인준되었다. <수원 미협>은 당시 여타의 자생적인 그룹 활동이 전무하던 시점에서 나름대로 지역 단위의 미술행사들을 조직하게 된다. 「협회 회원」전을 중심으로 야외스케치, 국전 입선 축하회, 미술세미나, 미술감상 프로그램, 탁본실기, 초중고 사생대회 등이 그것이다. 6-70년대 불모지와도 다름없었던 수원의 화단을 이끌었던 <미협>의 활동은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미술 활동이라고 보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주로 중앙 화단의 그늘 하에서 형식적인 몇몇 행사들이 전부였고 이 조차도 인맥을 중심으로 한 두터운 벽들로 인해 자족적인 활동이 태반이었다. 특정한 사람이 십년 넘게 계

속해서 협회의 장을 연임하는가 하면 협회의 활동자체가 지역미술의 일정한 권력으로 작용했다. 이를 둘러싼 경직된 분위기와 그 화풍 역시 쉽게 짐작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미술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양상을 반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술환경이 전무하던 당시의 수원화단에 있어 유일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단위 '미협' 활동은 그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후 지역미술 활동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다만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모색보다는 관례화된 활동과 인맥을 중심으로 지역미술계의 이권을 둘러싼 다소 정치적인 활동의 전개는 균형 잡힌 미술문화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과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당시 한국 화단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가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은 그나마 소수 미술인들의 활동 거점 역시 서울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시 말해 굳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수원미술은 60년대 활동을 전개했던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70년대 말에 활동했던 세대간의 간극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경기청년작가회(경기청년미술인회)>

수원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 소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경기청년작가회>의 출발은 기존의 미술계의 관행화된 모습을 되풀이 하고 있었던 미협 중심의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에 앞서 1977년 창립된 <S·S전>이라는 그룹이 있긴 했지만 대학 재학생 중심의 모임이었으며, 그 활동 또한 1회



<그림 3> 제2회  
경기청년미술인회전 도록

로 마감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미술소집단이라 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초의 소집단을 <경기청년작가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sup>5)</sup> 인맥을 중심으로 결합된 경직된 미술구조는 몇몇 영향력 있는 원로작가들의 그늘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작업 활동을 억누르는 분위기로 느껴지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당시 젊은 작가였던 권용택, 박용복, 남부희 등이 주축이 되어 지역화단 내의 중견작가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미협 활동으로부터 거리가 있었

던 김인겸과 김교선을 영입하여 1978년 12월 <경기청년작가회>가 결성된다.

첫 전시는 이듬해인 1979년 4월 4일부터 8일까지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에서 열렸고 경화식, 권용택, 김인겸, 김철규, 남부희, 박승남, 배형경, 백일현, 이봉순, 이선열, 이종관, 최용락, 허상이 초대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수원 인근 지역의 작가들도 참여하여 이름 그대로 경기도 작가모임으로 그 외형이 확산되게 된다.

<경기청년작가회>는 외부적으로는 그 창립동기를 지역화단의 활성화와 작가 자신의 내적, 외적 발전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5) <S·S 전>은 1977년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진학한 미술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동기들의 모임으로 1977년 12월 수원 크로바 백화점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갖는다. 수성고등학교 출신으로 김석환, 차진복, 이석기, 김동기. 수원고등학교 백종광, 장영국 수원여자고등학교 김현숙, 권미경, 김정은, 김옥경 수원영복여자고등학교 김창희, 문용수, 조진숙 등이 이 전시회에 참여하였다.<S·S 전>은 고등학교를 1977년도에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였다는 의미에서 seventy-seven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 단체는 창립전을 끝으로 해산된다.

“본회는 도내 순수미술 분야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의 모임으로 ... 청년이란 연령의 젊음보다는 영혼의 젊음을 의미합니다. 탐구하는 작가적 자세, 올바른 방향의 식 속에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양적, 물적 가치가 팽배한 현실에 과감히 뛰어 들어 본질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우리들의 세계가 바르게 구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 경기도 미술문화발전에 활약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6)</sup>

위 발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단체는 현대 미술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질문과 미술의 이념과 양식에 대한 지향을 통해 결성된 모임은 아니었다. 70년대 한국 미술계가 여러 가지 특성화된 성향의 단체 활동의 결성을 통해 현대미술의 스펙트럼과 깊이를 확대했던 시기임을 생각한다면 <경기청년작가회>는 다소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70년대 말 중앙화단의 분위기는 6-70년대 개진되었던 다양한 현대미술의 성과들이 양적인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그룹의 집단화로 외화되고 있었고 모노크롬을 비롯한 구성적인 모더니즘, 앵포르멜, 기하학적 추상, 색면 추상과 실험주의 등의 양식적 집단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아울러 「서울현대미술제」 등을 비롯하여 각종 지방 현대미술제(「부산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 「광주현대미술제」, 「전북현대미술제」, 「강원현대미술제」) 등의 개최를 통해 중앙화단의 흐름이 지역에 소개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화단의 경우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준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6-70년대의 왕성한 실험과 모색이 얼마간은 형식적 모더니즘으로 정착되었던 중앙화단의 외형적 결과들을 수용했던 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전대 중앙화단의 주류화된 형식주의를 도입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미술의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중앙화단의 그늘에 있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통해 한국적 모더니즘을 확산시켰던 당시의 중앙화단의 여러 그룹 활동의 외형적인 측면만을 <경기청년작가회>가 본을 삼았기 때문이다. <경기청년미술작가회>라는 이름

6) 경기청년미술인회 2회 발간사

역시도 당시 중앙 미술계에서 활동하던 1974년 정관모가 결성한 <한국미술청년미술작가회>를 따라서 지은 것이었고 실제 모임의 결성 동기는 기본적인 미술 창작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깊이있는 영향관계는 적어도 단체 단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룹에 참여하던 회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위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경기청년미술작가회>가 추구하려던 내용은 당시 수원 미술의 협소하고 숨막히는 상황을 타파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미협 중심의 폐쇄된 미술구조와 아울러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당시 수원의 미술계는 젊은 미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작업 활동을 펼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열악한 창작조건과 전시공간의 부재는 본격적인 미술활동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수원에는 본격적인 전시공간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고 백화점에 마련된 화랑과 몇몇 다방들이 전시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1976년 개관한 크로바 백화점 전시장의 경우 당시 대표적인 전시들을 개최했던 중요한 미술공간이었고 이외에도 시민회관 임시전시실, 매산 초등학교 강당, 소라 백화점 전시장, 수원 쇼핑화랑, 선화랑, Y하우스 외에 돌채 음악 감상실, 국제다방, 금강산 다방 등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간들이 본격적인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이고 그나마 횡수도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전시를 할 수 있었던 다방 전시의 경우 10-20호 정도 크기의 작품만을 전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시를 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협과는 다른 젊은 작가들의 자기주장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창작활동 조차도 당시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에게는 장애로 작용하였던 것이고 <경기청년미술작가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당시의 열악한 조건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문제제기 또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한계와 활동의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수원 최초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미술 그룹이었다는 측면에서 가치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수원 미술 흐름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그것은 어떤 양식과 미술에 대한 자기 실험과 모색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이후 수원미술의 전개에 있어 중심적인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sup>7)</sup>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미술작가회>는 수원지역 미술 흐름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전시활동의 전개와 창작에 대한 열망만으로도 지역 화단의 발전적인 토양이 되기에 충분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 <포인트, 시점시점>

<경기청년작가회>보다 좀더 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그룹으로는 <포인트>를 들 수 있다. <포인트>는 1979년 12월 창립전을 가지면서 수원화단에 등장하였다. 창립 회원으로 백종광, 장영국, 최춘일이 참여하였고, 80년도 2회전에는 이억배, 박찬웅, 문석배, 강문수, 정길수가 합류하게 된다. 이후 1983년 이 단체는 이름을 시점시점(時點視點)으로 개칭한다. 당시 대학 재학생이었던 이들은 <경기청년작가회>가 뚜렷한 경향 없이 개별적인 작품 활동만 전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현대미술에 바탕을 둔 좀더 의식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다양한 장르의 표현형태를 통해 실존적



<그림 4> POINT- 79전 도록

7) 수원미술계의 활동은 인적인 맥락이란 면에서 고등학교 미술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원농고 동문으로 구성된 <향미회>, 수성고 동문의 <시공회>, 수원고 동문의 <수원고동문회>, 수원여고 동문의 <수원여고동문회>, 유신고 동문의 <유신미술인회> 등을 들 수 있는데 . 이들의 활동은 가시적이었다기 보다는 수원미술의 인맥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요소와 사회와의 관계, 소외된 삶, 세대풍자, 개인적 문제의식 등의 폭넓은 주제에 접근하였던 이 단체는 그룹의 명칭이었던 ‘포인트’, ‘시점시점’이 의미한 것처럼 동시대 미술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그 주체적인 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대미술의 동향이 이제 극에 달한 듯 우리에게 수많은 추종을 요구한다. 물론 그것은 한 시대 인으로서 우리에게는 타당하고 수궁을 할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대적 지평에 대해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제시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은연중에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변적인 구조 이론과 인간적인 공복의 괴리를 떼꾸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필요성 미래에 대한 VISION의 동시적인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실험되어 오는 작품들의 현실적인 구조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의 진의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허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미술의 새로운 해소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이 표면화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과 견지 많은 이야길 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은 깊은 통찰과 진지한 숙고를 거부해 왔던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시도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난점을 해결 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른다. 그것은 하나의 시점으로서 입장 밖에는 밝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들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미술운동의 흐름을 추동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모호하긴 하지만 좀더 본격적인 미술이념의 표방과 잠재적인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과의 관계성을 의식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지역성을 구축해보겠다는 의도에서 부천, 안양, 수원 등지에서 「경기순회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현대적인 미의식을 근간으로 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던 <시점시점>은 이후 내부의 분기된 흐름으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8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의 구조적 분화양상에 일정하게 영향 받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현대미술을 소개하던 흐름으로 김성배가 1979년 만든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일찍이 독학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연구하고 후배들에게 이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설치미술 활동을 전개했던 김성배는 이후 1989년 <수리미술연구소>를 열어



수원의 실험적인 미술활동의 중심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이러한 활동은 90년대 이후 이운숙과 함께 <슈룹>이라는 단체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시작회>

<경기청년작가회>는 1985년 해체되는데 모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술적 지향의 부재와 내부의 갈등이 그 해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1983년에 형성된 <시작회>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술계의 경우 미술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으로 인한 갈등 못지않게 좁은 지역에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역으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듯싶다. <경기청년작가회>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작회>는 <경기청년작가회>에서 활동하던 남부희가 탈퇴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30세 이하의 젊은 미술인들이 참가하여 1983년 7월 크로바 백화점에서



<그림 5> 시작회  
창립전 도록

창립전을 열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의 ‘더 젊은’ 미술인들이 시작회를 만들고 창립전을 갖는다. 30세 이하 8명이 모인 <시작회>는 금년에 졸업한 회원만 4명으로 모두 젊은 열기로 새로운 시도에 하나같이 몰두하고 있다”<sup>8)</sup>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시작회’로 붙인 이 모임의 창립전에는 경홍수, 김성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운숙이 참여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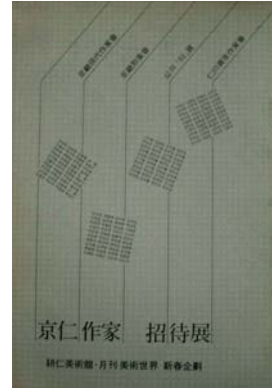
8) 『경인일보』, 1982년 7월 8일.

데, 이후 경홍수, 백종광이 탈퇴하고 어호선, 김갑식, 임병숙, 김영섭, 김영철, 한기백, 황민수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 창립회장으로는 김성배가 추대되었고, 84년 이후부터 남부희가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회원 모두가 수원출신인 <시작회>는 사실주의에서 구상, 비구상, 실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보이고 있다. 초대회장이었던 김성배는 당시 초대 글에서 “회원 각자의 미술이념은 다르나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회원 상호간 협조하며 폭 넓고 충실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 특정한 조형적 이념 없이 회원들의 개별적인 작업 활동에 기반을 둔 모임의 성격을 보여주는 글이다. 젊은 미술인들의 의욕에 찬 의지를 담아 출범한 <시작회>는 기존의 미협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작업흐름을 보여주었다. 김성배와 이운숙은 설치미술을, 경홍수는 드로잉, 김중은 추상성이 강한 작품을, 김영철과 김영섭, 이석기는 표현주의적인 작업을, 어호선은 종지와 철망을 함께 사용한 오브제 작업을, 남부희는 구상작품을, 백종광은 바둑판을 형상화한 극사실적 작품을, 김갑식, 임병숙은 반 구상형의 작품을 선보였다.

<시작회> 역시 당시의 보수적인 화단의 수원화단의 분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문제의식 이외에는 젊은 미술인들의 특정한 이슈와 지향이 없는 자생적인 모임의 성격을 가졌고 그룹 활동을 통한 창작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발표기회의 획득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문제의식에 머물렀던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당시 비슷한 존재이유를 가지고 활동했었던 <경기청년작가회>와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모임의 이러한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은 있었고 이를 극복하려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밝힌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얼마간 보여준다.

“동인으로서 일정한 한 가지 유파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비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회원이 확충되고 발전하면 자체 내의 소그룹으로 이념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sup>9)</sup>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분명한 흐름으로 전개되기 이전에 <시작회>는 1987년 제7회 회원전을 끝으로 해체된다.<sup>10)</sup> 비슷한 성격의 두 단체라 할 수 있는 <경기청년작가회>와 <시작회>간의 지역 내에서의 반목과 갈등은 결국 내부적인 논의 끝에 1988년 발전적으로 해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현대미술은 <경기현대작가회>, 구상계열은 <경기형상회>로 분화된다. 이 두 그룹은 당시 지역미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술세계’가 기획하고 1988년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치러진 「경인작가 초대전」에 참여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미술을 중앙화단에 소개한 뜻 깊은 전시였던 「경인작가 초대전」에는 이외에도 부천의 <삶의터작가회>, 인천의 <청년작가회>가 참가하여 지역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전시로 평가된다. 단순히 서울의 화랑과 지역미술계와의 교류를 넘어 그룹단위에 기반한 지역미술의 흐름을 소개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경인작가 초대전 도록

9) 『경인일보』, 1985년 8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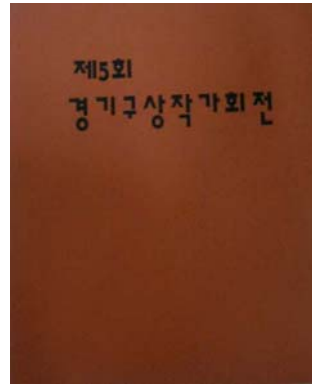
10) 시작회 창립전-1983년 7월 9일(토)-7월 12(화)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참여 작가는 경홍수,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운숙 8인이 참여. 시작회 두 번째 회원전-1983년 12월 11일~12월 14일,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김성배가 회장이었으며 출품 작가는 경홍수, 김석환, 김중, 김성배,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운숙. 새로운 회원으로 김갑식, 정우건 그리고 어호선을 명예회원으로 영입 제3회 회원전은 1984년 6월 28일~7월 1일,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세 번째 회원전에서 남부희가 회장을 맡았고, 출품회원은 김갑식,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이석기, 이운숙이며, 명예회원이었던 어호선도 회원자격으로 출품한다. 새로운 회원으로 임병숙을 영입한다. 정우건은 군에 입대한 관계로 출품하지 않았고, 백종광은 탈퇴. 제4회 회원전은 1985년 11월 29일~11월 29일, 수원 크로바 백화점 화랑. 경홍수, 김갑식,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이운숙, 어호선, 신입회원으로 김영섭, 김영철, 한기백, 황민수, 미 출품회원은 이석기, 임병숙, 정우건. 이후 1987년 제 7회 시작회전을 끝으로 해체.

### <경기현대작가회>, <경기구상작가회>

<경기현대작가회> 역시 다양한 미학적 입장과 실험정신으로 현대적 표현양식과 조형성을 추구했던 모임으로 장르로는 서양화가와 조각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주로 젊은 층이 주축이 되었다. 김석환, 김성로, 김용희, 김중, 김철규, 박미자, 박종현, 백원기, 백일현, 백종광, 우무길, 이미혜, 주영광, 전원길, 허종수, 홍오봉이 참여하였다. 구상 이외에 회화를 주축으로 한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후 수원 현대미술을 주도하게 된 이경근이 마련한 '장안미술관'을 중심으로 김석환, 황민수, 홍오봉이 결합하여 <킴아트>그룹을 결성하게 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경기형상회>는 구상작가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미술 사조를 재해석,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적 시각의 형상성을 추구하고 있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구상미술에 초점을 두면서도 다채로운 표현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조형 실험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안양, 송탄,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서양화가와 조각가 1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권대균, 권용택, 기무현, 김주영, 김영섭, 남부희, 류봉현, 박영복, 박유찬, 박충분, 백상일, 서해창, 이경근, 이상학, 이선옥, 이은숙, 이혜경, 임병숙, 정관숙, 조성호, 조진식, 주운향, 최순용, 최현식, 한기백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 모임은 아쉽게도 「경인작가 초대전」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수원의 구상작가들의 모임은 이후 1991년 남부회가 결성한 <수원구상작가회>로 다시 그 맥을 이어간다. <수원구상작가회>는 이후 <경기구상작가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구상작가회>는 수원을 중심으로 안양, 안산, 안성, 송탄, 용인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구상작가들을 초대하여 전시회를 갖기도 하고 서울, 안산, 용인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구상미술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작가들로는 김학두, 권대균, 남부희, 김영섭, 김주영, 조완형, 이석기, 서해창, 조진식, 이종관, 한기백,

최현식, 강상중, 김수현 등을 들 수 있다. 수원 화단의 경우 다른 지역화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구상의 전통이 이어진 것 역시 하나의 특징으로 기록될 만 하다. 하지만 형상을 화두로 전개되었던 현대미술의 좀더 다양한 구상회화의 스펙트럼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활동에 기반을 둔 화풍 전개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 있는 구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 한계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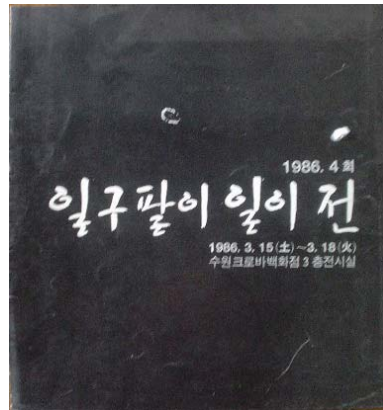
<그림 7> 제5회  
경기구상작가회전 도록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 역시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기에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중앙화단의 문제의식을 다소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형식상의 실험과 조형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고민들 대신 개별 회원들의 다양한 창작적 경향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구상과 현대미술이라는 장르상의 구분도 사실 당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계열의 작가들 역시 지역특수성을 체화시킨 형상에 대한 고민과 지역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70년대 말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그룹을 통한 창작여건의 개선에 더욱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 수원 미술계는 양적으로 그 확산을 거듭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다. 두 집단의 경쟁적인 활동의 전개는 일종의 길항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지역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장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몇몇 그룹도 비슷한 모습을 띄었다. 1988년 김왕현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경기조각회>의 경우도 특별한 쟁점 없이 조각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이다. 도내 조각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이 그룹은 당시로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조각 그룹이었던

데 사실 배경으로는 수원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의 조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sup>11)</sup> 상대적으로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조각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활동을 더 이어가려 노력하다가 결국 1991년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마감한다. 그러다가 1996년 이운숙, 박유찬, 곽동기, 구자영, 김래환, 김유미, 박근용,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허종수, 황병광 등 18인의 조각들이 모여 <수원조각회>를 결성하고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수원 조각계의 흐름을 이어간다. 이러한 장르 중심의 모임으로 1992년 결성된 <경기수채화협회>의 활동 역시 들 수 있다. 장르 중심의 소모임 활동의 경우 특히나 이슈나 쟁점보다는 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회원들 간의 친목과 교류,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로서의 정기전 등이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런 이유에서 소극적인 활동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평가된다.

### <일구팔이일이회>

이밖에도 80년도에 결성된 미술그룹 중에는 유일한 여성작가들의 모임인 <일구팔이일이회>를 꼽을 수 있다. 1982년 1월 2일 창립전을 가진 <일구팔이일이회>는 창립날짜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회원은 수원 출신 미대생들이었는데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여성미술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단지 지역적 연고를 같이하는 여성미술들의 자생적인 모임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사건이었다. 직접적으로 여성미술의 이념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



<그림 8> 일구팔이일이회 전 도록

11) 박근용, “수원조각의 현실과 가능성”, 『미술세계』, 1999년 2월호.

성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활동에 기반을 둔 여성미술인들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향과 스타일로 묶여진 모임이 아니라는 측면이 오히려 그룹의 오랜 생명력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창립 작가로는 최경미, 박충분, 이윤숙, 최순용, 이미정, 최순희, 강미영, 이숙, 심언순, 박유찬, 현경원, 황은하가 활동하였으며 이후 회원을 늘려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모임의 느슨하고 자생적인 구조가 활동의 지속성과 생명력을 보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성목회>

이외에 언급할 수 있는 그룹으로는 1982년 창립 이래 꾸준히 정기전을 개최해온 <성목회>를 들 수 있다. 한국화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성목회>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법에 바탕을 둔 실경산수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수묵의 현대적 수용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예로부터 한국화의 전통이 강하였던 지역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성목회>에 참여해온 작가로는 이길범(초대회장), 조성락, 기노철, 심세호, 김용근, 김정은, 김정환, 육동명, 이선열, 이승영, 이재홍, 최종대, 홍유선 등이다. <성목회>는 이후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확대하였는데 이 역시 특정한 방향을 두지 않고 한국화라는 장르에 기반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모임의 성격을 규정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목회>는 수준 높은 회원들의 작업 수준과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로 경기도 한국화 화단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 그룹이라 평가할 수 있다.

### 그 외 아마추어 단체들

이밖에도 80년대의 미술 소그룹으로 아마추어 모임을 들 수가 있다. ‘아뜰리에 미술’로 불리는 이러한 아마추어 모임은 나름대로의 대중적인 미술활동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친목과 사교모임에 기반을 둔 교양 모임의 성격이 강하였고, 모더니즘 미술의 신화를 반복하고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평가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개요만 드러내고자 한다. 1983년에 창립된 <수원일요화가회>는 박용복, 이선열, 이선옥 등이 지도하였고 2년 뒤인 1985년에 <수원광고사생회>가 남부회를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그 후 1988년 권대균과 남부회를 중심으로 <수원사생회>가 미협 산하단체로 창립하게 되는데 이렇듯 경쟁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러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효율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차 당시의 힘 관계에서 기인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들 아마추어 미술모임은 단순한 교양미술 강좌의 성격을 다소 웃도는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여 지지만 직접적으로 지역미술의 활성화라는 문맥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후 보다 발전적인 지역미술의 발전과 미술대중화라는 면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흐름이 바로 이러한 아마추어 소모임 활동이다. 문제는 그 자생적인 측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활동을 보다 발전적으로 견인해 줄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대중화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아마추어 소모임 활동은 미술문화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새벽>

지역미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은 80년대라는 시대적 문맥 속에서 출발한 미술동인 <새벽>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수원에서 본격적인 자기 이념과 지향을 가지고 전개했던 본격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미술동인 <새벽>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지향을 분명히 했던 80년



대의 이념적 성과들을 반영하였던 <새벽> 역시 전문적인 미술실천에 초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이슈와 이를 문화적으로 실천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집단이라는 의미가 자생적이고 자족적인 활동을 넘어 분명한 지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바탕을 둔 흐름이라는 면에서 이에 부합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소집단 운동의 시작을 <새벽>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지역문화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를 대중단위의 활동과 결합시켜 해결하려는 노력을 처음으로 보인 단체이기 때문이다.

1988년 결성된 미술동인 <새벽>의 전사는 1987년 항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한 <수원문화운동연합> (수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에는 나눔미술분과와 열림미술분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문예운동조직이 그렇듯이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의 주된 관심은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었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활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별적인 전문 창작작업보다는 일반적인 정치현안에 비중을 둔 문예실천에 더 비중을 두었다. 노동미술, 일반인을 상대로 한 미술교육, 전문창작집단 지원과 같은 활동에서부터 일상적인 미술운동이라 할 수 있는 걸개그림, 벽화, 영정제작, 생활미술 운동 등이 주된 활동영역이었다. 당시의 보수적인 수원 화단의 분위기에서는 이 조차도 미술계 내부의 정서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 문예운동의 전문성과 자기전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새벽>이 결성된다.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된 <새벽>은 선배세대들이 느끼지 못한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된다.

창립 선언문에서 “제도권 미술문화 정책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냉엄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의 모색으로 자주적 창조적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대변하여 우리 모두의 참다운 문화로 정착,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미술형식과 내용을 가꾸어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타 문화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균형을 이루며 학습을 통한 자기완성의 끊임없는 모색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마련하여 미술의 사회적 책임과 작가 개인의 실천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때 활동했던 인물로는 김영기, 주영광, 이달훈, 최익선, 박태균, 이병렬, 박준모, 양순희, 한인규, 손문상, 이주영, 박경수, 서동수, 양혜영, 황호경, 신경숙, 최춘일 등이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 고발이나 비판, 참여의 수준이 보다 직설적이지 못하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 점이나 완성도가 미흡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는 민중미술 전체가 가진 시대적 한계인 동시에 개별적인 작가의 구체적인 형상화에 대한 고민의 부족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새벽>의 경우 모더니즘적 미술의 신화를 동어 반복하던 기존의 수원 미술의 흐름과 분명 구별되는 면이 있고 그것은 미술의 현실성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에서 기인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새벽>은 1989년 첫 전시인 「오늘이 땅」 전을 가진데 이어 1990년 「정치·정치..정치...」 전을 수원 선화랑에서 열었는데, 유화, 포스터칼라, 펜화, 조소, 만평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현실인식을 보여준 이 전시에 대해 심광현은 "심도 있는 표현은 부족하지만 리얼리스트다운 접근이나 다양한 기법들이 긍정적이며 지역미술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은 그 지역 수준이 그만큼 향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1,000여 명이 넘게 찾은 관객의 호응으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전시에는 노동자의 진보적 삶을 주제로 한 이주영, 황호경, 신경숙, 구분주, 이오연, 정치적 상황을 다룬 김영기, 차진환, 류우중, 농촌문제와 도시빈민을 주제로 한 주영광, 최춘일, 박경수, 권용택, 양혜영, 박태균, 만화와 꼴라쥬 기법을 응용하여 풍자적 화면을 보여준 손문상, 이병렬, 최익선, 서동수 등 33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개별 회원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상화로 이어진 이 전시는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대중적인 민중미술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각별하게 평가될 수 있겠다.

### <수미협>

이후 <새벽>은 1991년 <수원미술인협의회>(수미협)로 조직적 발전을 하게 된다. <수미협>은 사회변혁문제 일반과 아울러 구체적인 지역미술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수미협> 선언문에서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미술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질적 발전과 꾸준한 창작실천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수미협은 이제까지의 민족·민중미술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심화된 창작내용과 표현의 풍부함을 얻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사업과 발표회를 통하여 지역대중들과 지속적이고 신선한 만남의 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수미협은 지역미술인들의 대중적인 합의체로서 내부의 다양한 예술관의 차이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수미협의 노력에 동의하는 한 창작의 방법과 그 선택에 있어서 작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호의 개방과 연대의 노력은 당면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진지한 대안마련을 통해 지역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미협의 과제들은 지역주체인 지역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 삶과 함께하는 미술형식과 내용을 가꾸어 지역대중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며 사회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소해나감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미협>은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정비를 하여 회화 1,2분과, 생활미술분과, 조소예비분과, 만화분과, 사진분과로 세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동상담소 간사, 쓰임새 있는 미술을 지향하는 노동자 문예 활동가 조직인 ‘노동미술연구소’, 미술운동의 기동성과 현장성을 위한 ‘현장 미술패’를 만들었다. ‘노동미술연구소’에는 손문상, 황호경, 신경숙 등이 활동하였고, ‘현장미술패’에는 ‘노동미술연구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이외에 차진환, 서동숙, 김영기, 최춘일, 류우중, 이병열, 최익선, 이주영 등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과 서울의 그림마당 민에서 열린 「오늘의 이 땅」 전과 91년 박창수 열사 장례식을 위한 방송차 입체 설치물로 제작한 ‘박창수 열사 투쟁도’ 및 ‘부활도’의 제작과 시위현장에 필요한 미술품의 제작



〈그림 9〉 수원미술인협회의  
창간호 표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자미술 교육 등의 현장 노동자 미술지원 활동 등이 있었다. 하지만 <수미협> 역시 지역미술 발전과 그 형상화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당시 문예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한계와 현실적인 이유들과 무관하지 않은 듯싶다. 오히려 당시 현실적인 현장의 요구가 이들에게 더 급선무였던 시대상황이 이를 대신해서 말해준다.

좀더 가시적인 활동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수원지부의 결성과 그 활동에서 볼 수 있다. 민예총 수원지부는 당시 권용택이 대표로 있었던 <수미협>과

이성호가 대표로 있었던 풍물단체 <삶의 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사진, 문학이 참여해 면모를 갖추고 창립되었다. <민예총 수원지부>는 다양한 분과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분과가 바로 미술 분과였다. 미술 분과의 바탕은 <새벽>이 모태가 된 <수미협>이었으며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수원천 살리기 운동'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전국환경미술제」, 「수원 200년 역사화」 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벽화운동으로 '남수문 목원 걸개도'를 제작하였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들」 전, 「4인 관화」 전 등을 개최하였다. 지역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사업 역시 미술 분과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다.

특히 「환경미술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하여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91년 <수미협>의 기획으로부터 시작된 「환경미술전」은 이후 지속되어 1996년에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과 그 일대에서 전국환경미술제로

확대 발전되었다. 「전국환경미술제」는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주도한 전국규모의 행사였으나 민예총수원지부 미술 분과 회원들로 구성된 수미협 회원들이 참여, 심혈을 기울인 행사로 대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로서는 부문운동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한 전국적 규모의 미술제라는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0>

전국환경미술전 도록

환경미술의 경우 지역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전개되었다는 면에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자리한다. 지역의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개입은 자연스럽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시선과 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곧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미술과 문화가 결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지역단위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본격적인 미술 언어로 형상화시켜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와 가능성이 무시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수원성(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 역사화전」을 개최했는데 수원과 인근지역 작가들이 함께 수원의 역사를 형상화시킨 뜻깊은 행사였다. 이 전시는 수원과 인근지역인 성남, 안양, 여주, 안성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직접 수원성을 답사하고 스케치와 토론을 거쳐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역시 지역미술에 대한 일정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단순한 역사화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반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

이면서 이를 통해 다시금 지역의 미술운동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전시였기 때문이다. 이때 참가한 작가들은 수원, 안양, 성남, 평택, 안성, 여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길범, 권성택, 주영광, 권용택, 신경숙, 김석환, 김중, 양혜영, 박종훈, 이오연, 천명철, 기노철, 홍사계, 임종길, 김영기, 이선옥, 황영식, 박요아, 안상복, 조용상, 최기운, 김도근, 백진원, 이병철, 김태현, 나정태, 남동호, 이화섭, 유구연, 박수인, 류연복, 조성락, 이효범, 정도용, 류충렬, 서종훈, 김운성, 김서경, 서동수, 박경수, 류승우, 신동한, 이달훈이다. 이 전시는 지역의 문화적 풍경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기획전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전시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치문화적인 지역의 공간성을 드러내기에는 조형적 한계와 문제의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미있는 몇몇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민중미술의 흐름은 당시의 문예운동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좀더 진일보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자신의 전문적인 창작활동에 기반을 둔, 조형성의 실험과 확대를 통한 현실성의 외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운동으로서의 측면이 더욱 강했던 점이 상대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없었던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객관적인 요인들, 일상의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미술실천,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이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대중문화를 둘러싼 각종 현실문화 지형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기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지역문화발전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당시의 현실인식의 시대적인 한계와도 얼마간은 연동되는 문제라 판단된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중앙의존적인 미술실천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성과 지향성을 갖고, 현장에 기반을 둔 대중적 미술실천을 도모했다는 면에서 그 충분한 의의가 간과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미술이란 것이 단순히 지역적 특수성의 형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한 미술문화의 활성화에 기반

을 두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면에서 일찍부터 전개되었던 「환경미술전」의 경우 지역의 현안에 대한 미술적 개입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활동이었다.

다시 소집단 활동의 계보를 추적하기 전에,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원미술제」를 언급해야 할 것 같다. 1989년 수원 미협이 권대균과 지부장 남부희의 주도로 개최된 「수원미술제」는 그 규모와 기간 면에서 수원 미술계를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한 행사였다. 한 달이 넘는 기간도 그렇고 다양한 단체와 미술인들이 참여한 수원 초유의 대규모 미술행사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분기된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계열 모두가 참여하여 수원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제가 기획되었던 사실이다. “수원미술제의 호혜적 결집을 통하여 지역에서의 진취, 창조적인 미술활동의 기반을 세우고 참다운 미술문화의 창달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풍토의 창작을 꾀함에 있다”라는 취지문이 이를 보여준다. 전시회는 선화랑, 크로바백화점 전시장, 수원문화원 전시장, 정화랑 등 수원의 모든 전시공간에서 열렸고 수원 미협에 소속된 각 분과의 전시회와 아울러 「경기현대미술작가회전」, 「일구팔이일이회전」, 「미술동인 새벽전」, 「신인작가전」, 「수원지역미술학우회전」이 열렸다. 이 전시를 통해 이후 수원미술계를 이끌어갈 그룹들이 가시화되었다. 미술동인 <새벽>과 <경기현대미술작가회>도 그 중의 하나이며 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신인작가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1989년 결성된 <시맥회>도 ‘수원미술제’를 계기로 등장했다. 1991년 ‘선화랑’에서 첫 전시를 가진 <시맥회>는 박용국, 김종현, 안기화, 안택근, 유동일, 이득현, 이상달, 이재용, 차진환, 최광천, 최세경, 최원민 등 젊은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했다. 젊은 작가들이 중심이 된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그룹 활동에 있어 지향성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당한 문

제의식만은 높이 살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적 전환기는 수원의 미술계가 이전과는 다른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흐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90년대는 다수의 전시공간들이 흥망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전의 모더니즘 대 리얼리즘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흐름들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수원미술제」는 민중미술과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를 포괄하여 지역의 미술문화발전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전시라고 볼 수 있다. 그 완성된 의미와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시도로서 이후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 전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던 간에 수원의 미술계는 90년대라는 달라진 지반 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컴아트 그룹>

90년대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컴아트 그룹>의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수원미술계의 실험적인 흐름은 <시작회>에서 활동을 하였던 김성배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김성배는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 <수리미술연구소>를 통해 실험적인 미술을 모색하고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윤숙, 전원길, 이경근, 황민수, 김석환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작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90년대 수원의 실험적인 흐름의 주요 축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1990년 수원문화원에서 열린 「나·비·뿌·리'전」은 수원 최초의 설치미술전으로 평가된다. 김성배, 이경근, 황민수, 김석환 이외에 고성호, 김경한, 장지성, 허종수, 홍오봉이 참가한 이 전시는 당시 수원 미술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설치미술전으로 수원미술계에 신선한 영향을 주었다. 『경인일보』에 실린 단신을 통해 당시의 전시에 대한 풍경을 간단히 엿볼 수 있다.

“고성호씨는 ‘원소리-神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안팎의 힘을 원천적 구조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김경한씨는 네온사인과 검은 상자, 솟을 이용해 우리민속의 샤머니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김석환씨는 면도칼로 천장을 가르는 형상을 보여줘 단힘(벽)에 대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김성배씨는 인동초 덩굴을 이용한 바람의 흐름을 표현했고 허종수씨는 산업화사회에서의 폐허를 풍자적으로 형상화한 '공용의 뱃속을 위한'을 설치하고 있다. 그밖에도 홍오봉씨는 5백원짜리 동전을 나뭇가지에 얹혀 학의 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황민수씨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등지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의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sup>12)</sup>

설치미술은 한국 미술계에서 9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미술흐름이다.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이원화된 구도를 타개할 여러 가지 미술 흐름이 9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수원 미술계 역시 이러한 다원화된 흐름을 경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술 그룹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컴아트 그룹>과 <슈룹>이다.

<컴아트 그룹>은 앞서 말했듯이 이경근이 운영하고 있던 '장안미술관'을 중심으로 김석환, 황민수, 홍오봉, 황민수 등이 결합하며 만든 미술단체이다. 이 단체는 1990년 1월 「다섯칸」 전을 계기로 발족되었다. 당시 <경기현대작가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이경근, 김석환, 허종수, 황민수, 홍오봉이 참여한 「다섯칸」 전은 독립된 공간의 칸을 구획하여 퍼포먼스와 설치작업을 통해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기존장르의 제한된 문법을 통해 소통을 통한 교감 작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나·비·뿌·리」 전은 이 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개된 기획전이였다. 90년을 전후로 하여 이렇듯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이 꾸준히 이어져 온 측면 역시 수원미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흐름은 민중미술이나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군 이외에 독립적인 흐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되며 1988년 김성배, 김철규, 전원길, 이윤숙이 기획한 「새로운 전환」 전, 1989년의 「생각중」 전, 1994년의 미협 수원지부 주최의 「부드러운 물」 전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설치를 중심으로 한 기획으로 드러난다. 아울러

12) 『경인일보』, 1990년 4월 20일자.

작가들에 의한 기획전이 많았던 것도 그 특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들 활동의 중심에는 <컴아트 그룹>과 <슈룹>이 있었다.

<컴아트 그룹>은 90년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기존의 민중



<그림 11> 컴아트 <교감미술제>

미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세계화를 통한 지역성의 실현이라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지향성을 가지고 결성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예술형태를 ‘교감예술 Communication Art’로 명명하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전달 이

상으로 생명 창조와 한 방법이며 모든 세계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위한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수원역의 역사와 살아 숨쉬는 수원의 성곽을 배경으로 한 장안원에서 「교감예술제」를 개최하면서 화려하게 포문을 열었다. 「교감예술제」는 행위·설치미술을 포함하여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이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치루어진 총체적인 예술행사로 참가인원만 100여 명에 이르렀고 많은 관람객이 성황을 이룬 대중적인 행사였다.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대중과 교감하려 했던 <컴아트 그룹>은 연이어 7월에 김씨네 아트비디오 제작의 「교감예술제」와 디졸브에 의한 멀티비전 형식의 첫 시사회를 연희조형관에서 가졌고, 제2회 「교감예술제」가 장안 공원에서 이어졌으며 8월에는 컴아트스튜디오 개설 및 정보 시스템 설비 기념 제1회 비디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작업일지」 전이라 하여 홍오봉, 김석환, 황민수, 이경근의 실내시간 작업 및 행위예술을 발표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진용을 초대작가로

하여 '행위예술의 체험적 의미'를 주제로 작가와의 대화 및 「성곽 환경」 전 비디오를 제작하였고 11월 9일에는 컴아트 스튜디오에서 슬라이드 감상회 및 이승택 강연으로 제2회 세미나가 '베니스 비엔날레와 국내작가의 나아갈 길'을 테마로 전개되는 등의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컴아트 그룹>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현대예술의 다채로운 실험을 통해 대중들과 교감하려는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표방하였으며 지역미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해외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들의 스케일 큰 포부와 활동은 지역미술을 서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 올리려는 야심찬 비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얼마간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당시 중앙미술계의 반응은 <컴아트 그룹>의 이러한 야심이 단순한 야심만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아울러 <컴아트 그룹>과 「교감예술제」는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수원의 독자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컴아트 그룹>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수원의 현대미술을 전국적 단위에 소개한 초유의 그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역문화, 지역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를 수행한 셈이다. 중앙화 더 나아가 세계화를 통한 지역예술의 활성화라는 이들의 문제의식은 90년대에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대규모의 이벤트성 예술제가 갖는 대중성과 홍보의 중요성을 선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단위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 때 지역미술 역시 다른 지반 위에서 활동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아울러 <컴아트 그룹>은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비디오로 기록하여 미디어에 기반한 소통의 계기를 넓히려고 애쓰는가 하면 강연과 슬라이드 감상회, 외부 평론가의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그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이후 <컴아트 그룹>의 활동은 93년 중국과의 실험예술 교류제인 「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 94년 「북경교감예술제」, 1996년 「수원 국제교감예술제」 1998년 「98국제교감예술제」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활동으로 90년 대를 이어갔다. 아울러 지역을 넘어 아시아를 무대로 한 국제 교류전,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미

디어의 결합, 설치, 퍼포먼스가 결합된 특유의 실험적인 활동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갔다. <컴아트>가 기획한 국제교류전의 경우 해외의 미술을 소개함과 아울러 수원의 미술을 세계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아시아를 활동의 무대로 삼아 서구 중심적인 미술과 다른 독자적인 미술문화를 선보이려 한 점 역시 이들의 선구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컴아트 그룹>의 경우 단순한 지역미술의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교류와 전국단위의 활동을 통해 지역미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미술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도 눈여겨 볼 측면이다. 수원미술계에 퍼포먼스를 위시한 실험미술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 미술계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과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지역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는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 지역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행한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과의 소통과 지역미술의 세계화라는 앞선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중심의 행사와 다소 무리한 기획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재정상의 문제와 지속력의 한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빠지게 되면서 점차 쇠퇴일로로 겪게 되었다. 1998년경 모임의 주창자였던 이경근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해체를 하게 된 <컴아트 그룹>은 2001년 황민수, 박근용, 김석환이 주축이 되어 「행위·영상·설치 프로젝트 시티수원 2001, 자극적인 일상-틈」전을 개최하여 그 끈질긴 활동력을 보여주었다.<sup>13)</sup> <컴아트 그룹>의 독자적인 활동에 기반한 지역미술의 중앙화와 이를 통한 지역미술의 홍보라는 측면에서 분명 생각해 볼 측면이 많은 활동이라 평가된다.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유감없이 알렸던 <컴아트 그룹>과 아울러 수원을 거점으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현대적인 미술 흐름을 보여준 그룹이 <슈룹>이다.

13) 전시도록은 '2001 Dream · Performance · Art · Festival'로 발간되었다.

## <슈룹>

‘슈룹’은 순 우리말로 ‘우산’을 뜻하는 동시에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90년을 전후로 하여 김성배, 이운숙, 강성원, 도병훈, 전원길을 주축으로 결성된 <슈룹>은 특정한 조형이념과 원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회원들 간의 결속을 도모할 아무런 장치 없이 자유스러운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그룹이다.

“ ... 슈룹 기획전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참여 작가 개인의 개성과 자율적인 다양성을 최대한 중시하였다. 따라서 미술인들의 특성이자 취약점인 지극히 개별적인 입장에 친착한 현상 또한 사실이다. 전시회의 틀 역시 가능한 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먹은대로 자유롭고 유쾌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전시회의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누구나 알기 쉽게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특정한 주제를 다룬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슈룹의 이미지가 추상적이며 난해하며 애매모호하고 일관성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받기도 한다. ...”<sup>14)</sup>

하지만 이러한 틀에 얽매이지 않은 모임의 성격이 <슈룹>의 독특한 특징이자 지속력을 갖게 한 동인이 되었다. 특정한 미술이념과 원리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개별적이면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전시 역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나 실험미술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외화될 수 있었다. 이런 독특한 활동이 <슈룹>을 90년대 수원미술의 활기차고 실험적인 면모의 한 복판 위에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장소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한 정체성의 탐구와 표현’이라는 그룹 특유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슈룹>의 전사는 1988년 김성배를 중심으로 몇몇 작가들이 만든 공동 작업실과 <수리미술연구소>가 그 계기이다. <수리미술연구소>는 백두산의 한 자락이기도 한 수리산 근처를 무대로 「융합 21세기」 전, 「맨벽-토」 전, 「쌀·보리·콩」 전을 개최하면서 이후의 <슈룹>의 독특한 지향이라 할 수 있는 구체

14) <슈룹> 기획전 ‘인간의 자연-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록 서문 중에서

적인 장소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이후 <슈룹>은 한반도 일대의 각 지역의 산들인 광교산, 문수봉, 관악산, 인왕산, 치악산, 백운산, 설악산, 지리산 지역 등을 답사하여 그 체험의 결과를 「한반도」 전이라는 전시로 엮기도 하고, 이어 1999년에는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하여 직접 답사를 하여 「백두대간」 전을 열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의 삶의 실질적인 근원이자 터전이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직접적인 답사와 체험은 국토라는 보다 근본적인 지평 속에서 예술과 창작의 문제를 고민하려는 <슈룹> 특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2001년 「내가 서있는 자리」 전을 통해 서해안 바닷가와 맞닿은 경기도 화성의 지리적, 환경적인 특성을 탐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해외로 까지 이어져 네팔, 인도,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팀원들 간의 자유로운 유대와 개인적인 창작의 모티브를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슈룹>의 작업이 여행을 통한 그 단순한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답사와 체험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단위에서 자신들과 창작의 원천들을 되짚어 보려는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문화를 아우르는 예술의 기(氣) 회복운동으로 보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정체성에 초점<sup>15)</sup>을 두려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슈룹>은 자연스럽게 모임의 성원들이 살고 있는 터전, 곧 자신들의 작업의 무대이자 토대가 된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제기는 1995년 <슈룹조형연구소> 기획의 「아리랑, 이어지는 자연-역사와 예술-중심과 주변」전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그 외의 지역을 주변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으며 이후 2003년에 기획된 「경중가인(鏡中佳人)-Outlook for the Future」 전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된다. 이 전시는 그 동안의 성과, 곧 백두대간의 일부인 경기도의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그리고 한강, 서해바다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하면서 나름대로 모색한 ‘경기도의 새로운 힘’이라는 주제를 가시화시킨 전시이다. 아울러 작가들의 생활터전인

15) <슈룹> 2001년 기획전 ‘내가 서있는 자리’ 도록 서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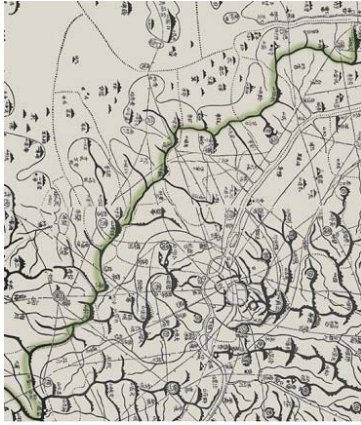
경기도의 자연환경 실체와 정체성을 찾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미술환경이라는 지역미술의 화두를 선취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전시의 제목인 ‘경중가인’은 ‘거울속의 미인’이란 뜻으로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언제나 서울의 변방에 위치하여 그 반영된 이미지만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실속 없는 현실을 빗댄 말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고유한 아름다움을 펼치고 있는 의미를 덧붙인 말이기도 하다. 이 전시는 미술을 매개로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했던 전시라는 면에서 주목할 만한 기획전이라 평가된다. 전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수원미술전시관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어 곽규진, 김성배, 도병훈, 안택근, 유옥희, 이구산, 이우숙, 이운숙, 전원길 등이 참여하였고, 이어 2부는 안성 소나무 갤러리에서 강성원, 김미경, 김필래, 김해심, 김희곤, 박신혜, 박용국, 이혜경 등이 참여하였다. 이밖에도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당시 전시의 풍경은 다음과 같다.

“몸소 백두대간을 탐사했던 김성배는 오프닝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검은 선그라스와 등산화를 신고 큰 배낭을 맨 퍼포머 김성배는 백두대간을 답사했던 여행차림을 하고 돌과 거울, 그리고 밥이 담긴 밥공기를 이용해 일명 ‘밥’으로 치부되는 경기도의 허상을 깨는 작품을 선보였다. 김성배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한남정맥이 가로지르는 경기도의 능선은 골프장과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훼손의 극치를 달린다”며 “경기도가 제 모습을 잃고 서울의 주변부로 전락한 현실을 퍼포먼스로 선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훈은 경기도의 푸르고 굽은 물줄기와 산세를 광목천(205×435cm)에 안료를 칠한 대형작품을, 이운숙은 자신이 경작하는 화성 봉담의 밭에서 가져온 흙 등을 이용해 ‘문수단상’을 선보였다. 또 이우숙은 화성의 아름다운 8경의 하나인 ‘입파도’를 소재로 ‘서해안 ‘Woo30601-섬! 입파도’에서 약이 든 캡슐로 섬과 주변의 정경을 담아냈다.”<sup>16)</sup>

「경중가인」 전은 그동안 <슈룹>의 관심이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기도라는 지역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16) 『경기일보』, 2003. 9. 16.



2003 슈룹 기획전 / Shuroop Exhibition  
 “경중가인 - 鏡中佳人”  
 Outlook for the Future

<그림 12> 슈룹 기획전  
 <경중가인전> 도록

제기했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미술을 통한 지역성이란 화두를 제기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처럼 지역미술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지리적이고 행정적인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가적 감수성과 삶의 토대를 이루는 환경과 맥락에 구체적인 관심과 결부되어 있을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물론 전시의 성과들은 이러한 기획의도를 충분히 가시화시키기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지역미술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그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간과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슈룹>의 활동은 지역미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본다면 <슈룹>의 느슨한 형태의 자유분방한 활동은 그동안의 지역미술의 소그룹 활동이 보여준 일정한 패권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중앙화단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 조형적 실험과 실천을 이어갔던 측면과 그 지속적인 활동이 지역성과 지역미술의 문제의식을 이어졌다는 것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지속적인 다양한 기획전의 전개는 <슈룹>을 90년대 이후 수원미술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양상의 한 복판위에 있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는 요인들이다.<sup>17)</sup>

17) 그동안의 슈룹기획의 전시는 다음과 같다. 1988년, 수원-새로운 전환전 1989년, 맨벽 토전(수리미술연구소,군포) 쌀,보리,콩전(수리미술연구소,군포) 생각중전(수원문화원, 수원) 1990년 융합21c(수리미술연구소,군포), 발상의 전환-밀물,썰물전(소나무갤러리, 서울), 초기위치 초기온도전(소나무갤러리,서울) 1991년 융합21C전(소나무갤러리,서울) 1993년 브론즈 아니면 설산전(하나은행내 하나사랑,서울) 1994년 경기도문화회관 개관기념-설치/부드러운 물전(경기문화예술회관,수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전(우리알상회,수원) 1995년 아리랑-이어지는 자서전(슈룹조형연구소,화성군) 1996년 수원 현대미술의 오늘전(슈룹 아트넷, 수원) 슈룹 아트넷 열림전(슈룹아트넷,수원) 1997년



### <옵니버스>, <독립작가연구회>

수원미술계의 90년대의 소집단 활동은 이렇다할 특별한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장르별 작가 모임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그룹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기전을 개최하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이어갔으며 1996년 경수미, 박종훈, 신경숙, 유미옥, 최세경, 오진순이 결성한 <옵니버스> 이외에는 새로이 결성된 소그룹 활동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옵니버스>의 경우도 30대 초·중반 작가들의 개별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소모임 성격이 강했을 뿐 이렇다할 특징적인 면들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행을 기점으로 한 지역성, 지역미술계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의 외부요인 변화가 수원미술계에 대두된 것이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전거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 가시적인 결과들을 제도와 공간, 정책 등의 제반 요인들과 맞물려 아직 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04년 결성된 소모임으로는 <독립작가연구회 iam(Independent Artist Member)>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독립작가연구회>의 경우 아직 그 가시적인 활동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 미술 작가들의 연구 활동 모임으로서 각자가 추구해 나가는 작업의 성과를 개인전 혹은 오픈스튜디오를 통하여 미술이론가 및 초대작가들과 더불어 프리젠테이션과 인터뷰를 갖는 장(場)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활동방안으로 삼으며, 그 결과물을 자료로 발간하여 각 회원들의 작업과 모임에 대한 홍보 자료로 삼는다'

---

세계를 품안에(갤러리아트넷;경기문화회관,수원), 지도(map)-코스몰로지전(갤러리아트넷,수원), 강흐름 산오름전(갤러리아트넷,수원; 임미령 작업실,포천), 갤러리 아트넷 오픈전-행복한전(갤러리 아트넷,수원), 한국현대미술의 조망-중심축전(다다갤러리,부산; 경기문화회관,수원) 1998년 한반도전-인식과 실천의 미래(갤러리아트넷,수원), 자유정신과 도전-슈룹 인터넷홈페이지개설 기획전(갤러리 아트넷,수원) 1999년 '인간의 자연; 대단히 감사합니다'전(군포시민회관,군포) 2000년 '백두대간'전 2001년 '내가 서있는 자리'/별,갯벌 그리고 바다 2003년 경중가인전 (수원미술전시관/ 소나무 갤러리)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과 아울러 다수의 기획전을 통해 수원 현대미술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그 기본 취지는 이후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sup>18)</sup> 회원으로는 경수미, 김수철, 김희곤, 박용국, 우무길, 유지숙, 유옥희, 이우숙, 이윤숙, 장혜홍, 전원길, 최희정, 황은화 등인데 80년대 이후 꾸준한 활동을 전개한 작가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수원미술계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70년대 말부터 제기된 수원의 젊은 미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경기청년작가회>와 <시작회>가 본격적인 지역미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가 독자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화단의 형식화된 모더니즘적 성과들이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조형적인 이념의 모색과 활동이란 측면에서 지역화단의 한계를 극복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만들어진 <경기현대작가회>나 <경기구상작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꾸준한 활동으로 지역미술계의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경진했었고 이를 통해 지역미술의 확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충분

18) 창립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독립작가연구회 iam은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작가들이 보다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회원 각자의 발전과 지역 사회 미술계의 전문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하여 결성되었다. 참가하는 회원은 새로운 조형 언어를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 나가고자 진지하게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로서 각각의 작품 세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작가로 우뚝 서기 위한 서로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지역의 전문 작가들이 활기 있게 경쟁하는 새로운 현대미술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 예술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생적 자기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대미술의 주요 흐름과 관련된 동서양의 이론 및 전시정보, 작가 자료를 연구하고 교환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교양의 수준이 높은 미술애호가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폭넓고 전문적인 예술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 기존 미술계의 권력 지향적 구조에 대응하는 작가 중심의 새로운 활동 체계를 실험하는 한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는 예술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위한 교류를 갖는다. 작업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밀하고 신비로운 작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적 영감이 끊임없이 교환되는 작가 주도적 공간을 만들어나간다. 본 단체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시 활동, 연구 활동, 국내외 작가들과의 교류 활동 및 기획 사업을 수행하며, 나이, 학력, 경력등에 의한 불필요한 권위보다는 합리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대화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자유롭게 교환 되도록 한다.”

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새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중미술의 흐름 역시 제도화된 지역미술계의 형식주의를 넘어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둔 미술운동의 확산과 미술의 효용성, 지역적인 특수성, 환경과 소통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각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화된 미술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현실변혁과 사회문제에 보다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민중미술의 일정한 한계와도 연관된다.

하지만 중앙화단의 흐름과 거의 동시대적으로 일어난 다양한 활동의 전개는 수원미술계의 일정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토양 속에서 일구어낸 「수원미술제」 역시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획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경우 <킴아트 그룹>과 <슈룹>의 활동에서 볼 수 있는 설치, 퍼포먼스 등의 동시대 미술흐름의 가사회된 성과들은 수원미술계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독특한 기획력을 통한 꾸준한 기획전의 지속은 수원미술의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2년 설치 예술제로 김성배, 오상길이 기획한 「한국현대미술을 바라보는-또 하나의 조망」전은 수원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중앙화단의 작가들과 함께 한 대규모의 설치전이라는 면에서 눈길을 끈다. 하지만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다원화된 미술문화의 모습들, 즉 대중문화, 일상성, 테크놀로지, 여성문제, 공간 등을 매개로 한 보다 활발한 미술문화의 전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보다 의식적인 활동을 하였던 소그룹 활동이 부재한 것도 한 이유일 수 있으며 그만큼 수원미술계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몇몇 단위의 참신한 기획전의 경우에도 이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보다 진전된 가시화된 노력,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형상화의 부족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 이유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지

역의 대중적 소통을 위한 노력은 지역미술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고민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기획, 프로그램 마련이 이후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새롭고 참신한 다양한 기획들과 아울러 보다 대중적인 소통을 위한 모색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90년대 이후 수원 미술계는 기존의 활동이 관성적으로 이어진 것과 몇몇 특기할 활동 이외의 보다 내실화되고 안정적인 활동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아무래도 지역 미술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물리적인 토대가 서서히 구축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한계와도 연관된다. 부침을 거듭하였던 전시공간들도 그러하고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상대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관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역미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식 역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원미술의 경우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난 지역미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아울러 서서히 지역미술이란 화두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90년대부터는 수원이외의 지역인 부천, 안양, 안산, 평택, 의정부 등에서 서서히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이 시작된 것이 그 전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그만큼 여타의 지역 미술활동이 늦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만 서술에 앞서 수원 이외의 지역의 경우 자료제한으로 인해 지역별로 서술의 편차가 큼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 누락된 각 지역의 미술소모임이나 단체의 경우 본 연구의 제약된 한계로 인한 누락임을 밝혀둔다.

## 2. 경기남부지역

### 1) 부천

부천의 경우도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과도 가깝기 때문에 독자적인 미술문화를 발전시키기가 힘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이 미술문화의 정착에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 활발한 그룹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다.

이 지역은 개인화실 규모의 미술학원을 위주로 한 소극적인 활동이 전개되다가 1976년 부천 지역 최초의 미술모임인 <심미회>가 백석일, 김선일, 장영현, 강선구, 이상덕, 임영수, 홍윤표의 참여로 결성되었지만 미술을 매개로 한 친목 모임 이상의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여 같은 해 <부천 미술동인회>의 설립을 통해 지역미술의 단초를 마련한다. 1976년 10월 첫 작품전을 연 이후 매년 종합예술제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이어가다가 1979년 <미협 부천지부>를 결성하게 된다. 부천미술계는 81년 문을 연 '예원화랑'을 중심으로 꾸준히 전개되다가 1981년 <도원미술회>라는 젊은 미술인 모임과 1984년 창립된 <작업동인>의 활동으로 소그룹 활동이 시작된다.

부천지역의 젊은 서양화 작가들의 모임인 <작업동인>은 김상일, 김하룡, 고기범, 추연공이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회 전시 때부터 고기범, 고주몽, 김하룡, 박광호, 추연공으로 회원을 재정비하게 된다. “부천이라는 지방개념이 창단에 촉매작용을 했습니다. 창작욕으로 뭉치면 중앙과 어깨를 겨루는 일도 어렵지 않기 때문”<sup>19)</sup>이라고 창립 동기를 밝힌 <작업동인>은 나름대로의 지역화단을 일구려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생적인 모임의 성격을 극복하지 못한 선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부천미술에 대한 단초들이 기반이 되어 1987년 <삶의 터 작가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삶의 터 작가회>는 그룹

19) 『경인일보』, 1986. 2. 19.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지역적 기반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결성된 그룹이다.

“삶의 터 작가회는 창립당시 지역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문화권의 흐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전개되니까 지역에 있는 작가들 자체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제문제들을 젊은 층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모색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생활권을 가진 작가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이 지역 대중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지역미술을 스스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의 모색을 위해 출발한 것입니다.”<sup>20)</sup>

<삶의 터 작가회>는 지역미술에 관한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강선구, 홍용택, 추연공, 김장원, 백규현, 김하중, 김성일, 고기범 등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젊은 작가들이 의욕적으로 지역미술을 일구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미술실천의 대상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내건 “삶은 창조 의 일터요, 자기실현의 과정이요, 자기표현의 무대이다”라는 주장은 지역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색과 대중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대중미술조직으로서 미술문화의 대중성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펼치겠다는 문제의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역미술의 문제도 주체적인 작가적 활동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 활동의 수용자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노력 역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삶의 터 작가회>가 보여준 지역사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현실에 기반한 문제들, 즉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들을 미술로 형상화 하려는 모습과 태도 역시 간과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삶의 터> 활동이 지역의 행정적인 단위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지역의 다른 단위와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했던 것도 각별한 의의로 남는다.

<삶의 터 작가회> 역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회원 모두가 각

20) 홍용택, “부천 청년미술제의 향방 중 인터뷰”, 『미술세계』, 1991. 11.

기 다른 성향의 독자적인 작업을 추구했다. 어쩌면 작가 개인단위의 활동이 지역을 거점으로 이념과 지향으로 묶이기엔 경기도와 같이 서울 인접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형식적인 완성도라는 문제를 별도로 하고 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은 지역미술의 형성에 있어 하나의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곧 지역의 미술문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문제의식과 실천들이 그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모습들과 아울러 지역미술문화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지역미술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던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주축이 되어 부천 역시 「부천미술제」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미협은 물론 <삶의터 작가회>, <교사회>, <원우회>, <사생회> 등 부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모여 지역미술의 활성화와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시였다.

이처럼 <삶의터 작가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문화 활동에 있어 좋은 선례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지역미술의 활성화가 몇몇 단위의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부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독자적인 미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얼마 없으며 그나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었던 부천 시민회관 전시장, 부천 문예회관, 소사문예회관, LG 가나아트 갤러리의 경우도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관화랑이어서 본격적인 전시공간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서울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는 지역 미술 활동의 구심을 해체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삶의터 작가회>는 그 의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책적인 단위에서의 미술문화 지원의 필요성과 미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해 준 하나의 사례로 남는다.

## 2) 안양

안양의 경우도 처음의 지역미술을 위한 움직임은 오용길, 홍사용 등이 주축이 되어 1976년 결성된 <안양미술협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50년대 말 안양공고에서 교편을 잡고 안양미술의 명맥을 유지시켰던 한국화가 이재호, 조병유의 활동과 그 제자였던 김세호, 서기원 그리고 60년대의 오용길, 김광현, 홍사영 등의 꾸준한 한국화의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본격적인 지역미술의 흐름으로 외화되기에는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은 서울과의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하여 지역 미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소집단 활동의 전개 또한 미약했다. 소집단 중심의 활동보다는 중앙무대를 기반으로 한 개인적 작가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6년 <안양미술협회>의 결성과 1980년 <한국미협 안양지부>로의 정식 인준은 이후 안양미술인들의 지역미술을 위한 구심적인 단위로 거듭나게 된다. <미협안양지부>는 정기 미협전 이외에도 1992년부터 「포도미술제」를 개최하여 해마다 각기 다른 장르가 중심이 된 특색 있는 기획전을 개최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인 「관악현대미술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실기대회인 「관악학생 미술실기대회」, 「디자인공예대전」, 「서예대전」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중 행사로 기획된 「미술이벤트」의 경우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 문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면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대규모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악사생 및 휘호대회」의 경우 그리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다채로운 장르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국제교류를 통해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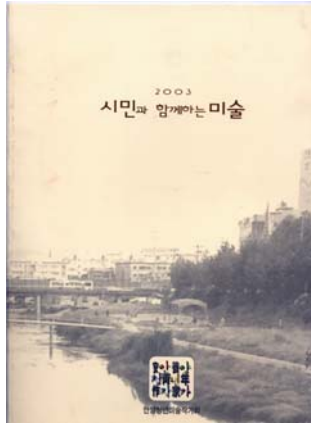
이밖에 주요 소집단으로는 1982년 이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안양여고 동문모임인 <목련동인>, 1987년 창립전을 개최한 성문여중고 모임인



<백합동인>,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여러 미술인들의 참여하여 만든 아마추어 미술모임인 <안양일요화가회>, 주부들만이 모여 20여 년이 넘게 활동을 해온 <예향회>, 장애인들의 미술모임인 <소울음>, 1996년 결성된 전문수채화 모임인 <새물수채화동인>, 1993년 설립된 <안양도예가회> 등이 열악한 지역미술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소집단 활동의 의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양의 전시 공간을 살펴보면 더욱 간파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70년대의 '본전다방', '중앙지하상가 전시장', 80년대의 '안양사랑', '안양미술관', '본백화점 문화홀'이 안양의 얼마 되지 않은 전시 공간이었고, 정식적인 전시공간의 형태를 갖춘 곳이 1989년 건립된 안양문예회관 전시실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2000년 '스텐엔워터', 2002년 롯데 갤러리의 오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도 사실이지만 양적 질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안양미술의 흐름을 담아내기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88년에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서양화 모임으로 <유형회>가 결성되었다. <미협 안양지부> 서양화 분과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이 모임에는 '안으로는 각자의 창작과 작가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지어져 형성된 단체이고 밖으로는 새로운 지평을 피하고 지역문화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란 취지로 류봉현, 정해덕, 조성호, 주운향, 주윤균, 천기병 등이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1993년 창립한 <안양 청년미술작가회의>는 안양을 거점으로 작업 활동을 전개했던 금영보, 강영희, 이광훈, 이건설, 김용현, 김형식, 김시영, 윤민경, 이인영, 김기욱, 안순영, 김소영 등의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모임이다. 1994년 첫 전시였던 「젖은 땅 푸른 꿈」전을 필두로 이들은 다양한 방식의 기획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갔는데, '장애인 미술인 초청 전시', 안양 최초의 '야외 설치미술전' 등의 다각적인 소통을 모색했던 것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중들과 미술작품의 간격을 좁히려는 의도로 1998년 기획된 「내



<그림 13>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 전시도록

마음에 드는 그림」 전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한 그림가격으로 전시를 진행하여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전시로 알려진다. 2003년에는 모임 10주년을 기념하여 안양천 중 학의전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설치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 전을 기획하면서 새로운 설치미술의 확장을 추구한 공공미술 개념을 시대에 접목시킨바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미술문화 발전이라는 일관된 문제의식과 생태 환경문제 등 시대의 변화에 조용한 다채로운 소통방식의 모색을 잘 보

여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안양지역의 본격적인 미술소집단 활동은 지역미술문화를 일구어내려는 노력 속에서 1988년 결성된 <우리들의 땅>을 들 수 있다.<sup>21)</sup> <우리들의 땅>의 전사는 1987년 그림사랑 동우회 <우리그림>의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그림>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4일 창립전과 창립대회를 안양근로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창립취지를 살펴보면 “우리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안양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염원을 표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미술문화를 꽃피우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세력의 문화적 침투에 당당히 맞서 면면히 이어온 민중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림의 맥을 찾고 이를 통해 현시대에 걸맞는 미술양식을 창조하며 민중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미술로서의 자리 매김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하였다.

본격적인 지역미술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그림>은 <안양독서회>, <민요연구회>와 아울러 지역예술문화 대중조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집단운동에서 대중조직으로 공개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을

21) 이하의 글은 <스톤엔위터> 박찬웅 관장의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14> 우리 그림 소식지

알리는 동시에 안양지역 문예운동을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은 홍대봉(불성서주지스님, 불화전수자), 홍선웅, 박경환, 박찬웅, 이억배, 주완수, 정승각, 권윤덕, 정유정, 권애숙, 김한일, 정도용 등이 참여 하였고 근로자 회관의 미술 강좌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 형태의 ‘신바람 미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우리그림>은 시민미술학교 졸업전을 개최하거나 공동걸개그림을 그리거나 벽화를 제작하고 이야기 그림책을 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안양그린힐 봉제공장 화재로 죽은

22명의 여성노동자를 위한 위령제 합동영정을 그리거나 안양전자 위장이전투쟁에 쓰일 걸개그림을 그리는 등 안양지역 노동자 대투쟁에 함께 하는 활동들이 전개해 나갔다.

<우리그림>의 활동은 1987년 이후 달라진 문예운동의 모습들, 즉 생활의 작은 단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과 문예운동을 결합하고자 했던 당시의 문제의식들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모습은 시민미술학교의 운영과 지역 미술신문의 발행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88년부터 시민미술학교가 시작되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문화운동을 펼쳤고 같은 해 창간된 ‘우리그림’ 지역미술신문 발행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예활동의 성과들을 공유해 나갔다. 1989년 7호를 끝으로 폐간된 ‘우리그림 지역미술신문’은 창간호로부터 신문전면에 시민들의 그림을 싣고 신연곡의 고무관화 ‘찬바람 부는날’ 등이 게재 되었다. “신바람 나는 그림”, “함께 누리는 그림”, “참삶을 지향 하는 그림”의 슬로건을 내건 <우리그림>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승각의 어린이 벽화활동, 노동자 미술패 <까막고무신>의 우리들의 이야기 공동걸개그림 제작, 그린힐

봉제공장 화재사건으로 죽은 22명의 여성노동자를 위한 걸개그림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5> 구름가족이야기 책 표지** 으로 인쇄하고, 손으로 제본하는 전 과정을 공동작업으로 진행해 100권의 책을 만들어 냈다. '구름가족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배우고 생활 속으로 깊이 천착하려는 공동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지역미술문화를 일구어내려는 소중한 노력을 통해 탄생된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전업적인 작업에 몰두하려는 지역작가들의 의지로 안양지역 젊은 미술가 모임인 <우리들의 땅>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전문 미술인 모임으로 대중 활동으로 소진되었던 기량 연마활동으로 드로잉과 탕화 모사를 함께 했으며, 또한 전업 작가로 사는 것과 생활을 영위하는 문제, 대중성과 전문성을 획득하는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창작그림책의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지역미술문화를 일구어내려는 노력과 아울러 전문창작활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어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창작그림책' 운동이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94년 3월에 정승각의 <까막나라 삼살이>가 첫 출간되며, 연이어 권윤희의 <만희네 집>, 이억배의 <술이의 추석이야기>, 정유정의 <고사리손 요리책>이 1995년

안양의 활동 중 눈에 띄는 점은 지역미술운동과 결합된 창작 그림책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이억배, 권윤희, 정유정, 정승각 등이 주축이 된 창작 그림책 운동은 <우리그림> 활동 당시 만들어진 공동창작 그림책 '구름가족 이야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작 그림책인 '구름가족 이야기'는 제작의 전 과정, 즉 이야기를 구성하고, 목판을 파고, 실크스크린

11월에 동시 출간되었다. 이후 이 네 사람은 본격적이고 전업적인 그림책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후 김혜환, 김재홍, 양상용 등이 연이어 그림책을 출간하였다. 이처럼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그림책 작가가 다수 배출되는 예는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그 기저에는 일상의 삶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 미술운동이 그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창작 그림책 운동은 지역문화를 고민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창작의 성과를 모으려 했던 매우 소중한 지역미술문화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의 땅>은 이처럼 지역미술문화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미술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당시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술은 사회를 아름답게 변혁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변혁해 나가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통해서 주변의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부패와 불의에 맞서는 것은 예술가들 스스로 찾아야 할 본연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땅전」을 계기로 안양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술가들과 밀도 있는 결합을 추진하고 지역미술활동이 대중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그림 16> 우리들의 땅 도록

<우리들의 땅>은 <우리그림>의 미술대중 사업 즉, 시민 홍보용 미술신문, 대중판화, 붓그림 교실, 대중 미술모임, 지역운동과의 연대활동 등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전문미술인으로서의 창작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갔다. 꾸준히 지속된 전시활동은 이러한 고민의 성과들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땅> 역시 1999년 모임이 만들어진지 10년 만에 해체를 하게 된다. 해체전의 서문에 실린 다음의 글을 통해 그간 <우리들의 땅> 활동과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땅”이라는 거대담론으로 출발했습니다. 초기의 3년은 나름대로 왕성한 작업과 월 1회 정기모임과 부정기 전시활동까지 우리들의 땅의 결속력이 높아졌습니다. 이 당시 정도용, 정성숙, 진영근 등의 작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몇몇의 작가들이 빠지면서 10명 미만의 작가그룹으로 정착되었습니다. 4, 5, 6년은 친목적 성격의 동인그룹으로 연 1회의 정기전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작가들이 사회운동으로부터 쇠진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생활력을 회복하고 자기전문성과 기량회복에 힘쓰던 시기로 판단됩니다. (인물스케치, 불화배우기 등의 모임이 내부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 이효범, 김시영, 김석연, 강문수등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7, 8, 9회를 거치며 이억배, 정유정, 권윤덕은 출판미술계에서 자리잡아가고, 유충렬, 김시영 등이 개인전을 열었으며, 양상용, 김재홍 등의 작가들이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가 개개인의 발전과 새로운 회원들의 참여와는 달리 그룹 내부적으로 몇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명목적 전시활동에서 생기는 무기력감”이 아닐까 합니다. 1년의 단 한 번뿐인 관습적인 전시활동, 생계와 예술적지향사이의 간극, 회원간의 장르별 분화, 회원간의 생활단위가 멀어지며 생기는 낮은 결합력 등 즉, 활동의 적극성을 요구하며 앞으로 나가려는 작가적 의지와는 달리 각자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다변화되며 나타나는 그룹자체의 내부적 공백이 그 것입니다. 우리들의 땅이라는 창립초기의 화두와 현재의 다변화된 작업형태간의 이완된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논의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회 환경과 그룹내부의 모순으로 초창기의 화두를 유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논의의 결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였으며 이번 10회 전시회를 끝으로 「우리들의 땅」 전시를 마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전적 해체니 새로운 모색이니 하는 토를 달지 않아도 의미 있게 발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땅이 거대담론인 만큼 미진한 숙제는 숙제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모든 작가들의 통합된 견해는 아닐 수도 있지만 11년의 과정과 10회 전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에 초창기 회원이었던 유봉현, 정승각, 진영근 작가와 홍대봉 교문을 초대하여 함께 전시를 합니다.”<sup>22)</sup>

<우리들의 땅>의 경우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문화를 일구어 내려는 다양한 활동과 고민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자치문화활동을 직접 만들려는 전문미술인 모임으로서 보여준 여러 활동은 눈길

22) 박찬웅, 「우리들의 땅 해체」 전 서문, 1999년, 박찬웅 관장의 기록 자료에서 재인용.

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창작에 대한 문제의식, 대중 활동과 전문성의 결합, 지역자치문화에 대한 관심 등 지역미술문화 운동으로서의 문제의식은 아직도 유효한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미술신문의 발행이나 창작그림책 운동의 경우 매우 소중한 지역 미술 문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공간적 위상이 때로는 지역미술문화 발전의 한계가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다양한 모색과 시도를 통해 그러한 지역적 한계를 발전의 토양으로 만들려 했던 안양의 꾸준한 노력은 안양미술의 새로운 미래를 예감케 하기도 한다. 경기도 지역 내에서 가장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문맥은 다시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수도권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다양한 위성도시를 매개할 수 있는 지리적 거점으로 인해 새롭게 안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대에 들어 다시 몇몇 소그룹 활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데, 2003년의 <안양원로작가회의>, 2004년 창립된 <안양조각회>, 한국화의 <TOMORROW>, <안양공예가협회>, <안양서예, 문인화회>의 활동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비슷한 지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과천, 군포, 안양, 의왕시의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우리동네 현대미술청년작가회>의 경우도 서울 중심의 미술활동을 '우리동네'로 돌리려는 작지만 소중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도에 석수시장에 문을 연 대안공간 '스톤 앤 워터'는 적극적인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외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역미술의 발전을 좀더 확대된 시각에서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톤 앤 워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말미에서 다시 기술될 것이다. 이밖에도 눈에 띄는 활동으로 안양청년작가회 회원이기도 한 이강은이 민간주도 대안공간이라 할 수 있는 'Roof'를 개관한 것들을 들 수 있다. 'Roof'의 경우 지역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작가와의 토론과 미술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접하고 그것을 지역문화예술로 직결 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자구적인 대안 공간의 등장은 공공 전시 인프라의 부재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물론 이런 다양하고 적극적인 안양미술인들의 꾸준한 노력을 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정책이 요청됨은 말할 것도 없다.

### 3) 안산

안산은 예로부터 훌륭한 문화 예술의 역사를 지닌 지역이었다.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꽃피운 예향의 분위기는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실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학풍을 일구어냈고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 김명국 등이 예술 혼을 불사른 곳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교사 중심으로 안산미술의 명맥을 이어온 <안산미술인협의회>와 우리나라 미술의 영원한 표상인 단원 김홍도의 예술정신을 계승하여 지역미술을 꽃피우겠다는 취지로 <단원미술작가회>가 1993년 결성되었다.

우선 교사 중심의 <안산미술인협의회>는 1988년 제2회 별망성 예술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92년 해체되기 전까지 예술제 행사를 통하여 안산미술의 명맥을 유지한다. <안산미술인협의회>는 이슈와 이즘을 같이하는 동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객지에서 모여든 미술교사들의 그룹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삶을 표현하고 조합하려는 예술이 아니라 친목과 오락성에 연연한 측면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안산미술인협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즉 경제적 어려움, 민간이나 관의 관심부족, 전시공간의 제약 등으로 어렵게 진행된 안산미술의 상황 속에서 작은 활력이나마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피폐해 있는 환경 속에 처해진 안산의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한 측면인 미술에서라도 미술 공간 창출을 염원하며 진취적 의욕을 가진 6명의 젊은 작가들이 '삶이 곧 표현이고 표현이 곧 삶'이라는 믿음의 뿌리로 1993년 4월 결성된 것이 <단원미술작가회>이다. <단원미술작가회>는 1993년 「안산미술열람」 전을 시작으로, 1994년 「안





<그림 17>

안산미술협회 창립전 도록

산미술 균형, 변화」 전, 1995년 「미술의 해 기념」 등과 「별망서예술제 초대」 전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백승돈, 안예환, 전해은, 주옥자, 최종진, 최차란, 김정화, 마운길, 문모식, 박경숙, 박종식, 백수정, 성하영, 신유미, 이달훈, 이성삼, 이추노, 조완형, 조태근, 하진용, 황기선, 이희선씨가 출품한 「안산미술 열림」전은 앞으로 안산미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소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작가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에 바탕을 두면서도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미술로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995년 <안산미술협회>가 창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진용 지부장을 중심으로 안예환, 이추노, 정재식, 김미란, 강병옥, 박신혜, 조완용, 이종진, 박민수, 이희선, 백현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안산미협>의 건설과 아울러 이전부터 활동해온 미술단체들이 그 산하 단체로 재편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96년 창립된 <상록수 조각회>, 97년 만들어진 <불교미술인협회>, 그리고 93년부터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단원미술작가회>가 그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미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안산미술의 전환과 활기모색을 통해 예향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화가 지망생들의 모임인 1992년 발족된 <안산여류미술동호회>와 1994년 <소방회>로 시작하여 1997년 <연미회>로 이름을 바꾼 아마추어 미술동호회 등의 꾸준한 활동이 안산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 4) 오산

1989년을 기점으로 화성군 오산읍에서 독립적인 시로 거듭난 오산시의 경우 화성군 일대의 미술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지역이다. 1982년 화성문화원 초대작가전을 필두로 꾸준히 지역미술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 1980년대 중반 결성된 <매홀미술인회>를 들 수 있지만 아쉽게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80년대 당시 오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로는 서양화에 이석기, 김두환, 최은영, 유미자, 김희곤, 김주원, 문부홍이 있었고 한국화에 이수경, 도자기에 김용문 등을 들 수 있다. 1989년 시의 승격과 함께 오산문화원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오산문화원 초대 향토작가 초대」전이 비정기전으로 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술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몸짓이 시작된다. 이후 1999년 오산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이석기, 이승렬, 유미자, 유은숙, 신원일, 차기환이 중심이 되어 <오산미술인협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00년에 한남상호 신용금고에서 창립전을 갖게 된다. 이때 참가한 작가들로 유미자, 김희곤, 김주원, 김영신, 문부홍, 박용국, 신원일, 이석기, 이승렬, 이영주, 이윤기, 유은숙, 류계형, 최종팔, 차기환, 최욱렬, 한기백을 들 수 있다. <오산미술인협회>는 2002년 다섯 번째 회원전을 끝으로 마감하고 2003년 <미협 오산지부>의 창립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을 기점으로 꾸준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오산의 경우 미술인들의 꾸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시공간의 부재와 제도적인 지원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5) 평택

문화의 불모지였던 평택의 미술활동의 출발 역시 1981년 <평택미협>의 탄생을 통해 시작된다. 전시공간으로는 평택남부 문예회관, 평택북부 문예회관,

1995년 베아트리카 아트홀의 경우 1995년에는 커피숍과 함께 운영되다 1998년에는 전문화랑으로 바꾸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움 화랑' 등이 지역미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평택미술을 재조명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소사벌혼얼-2000년」 전을 들 수 있는데 평택에서 활동 중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전시였다. 송탄지역이 평택시로 통합되는 관계로 이전의 송탄시 미술인들이 만든 <송탄미술인회>도 평택미술로 묶여졌다.

평택의 경우 도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 다수의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문화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개최된 「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 과 「평택국제문화아트캠프」 를 들 수 있다. '평택국제문화아트캠프'는 작가들의 교류행사로 각국의 문화홍보와 함께 작품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작가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평택미협에서 주최하는 신인작가 등용문인 '소사미술대전'을 꼽을 수 있다. 주요작가로는 동양화에 조성락, 김은숙, 조운희, 최정숙, 정완규, 이연희, 이완수, 서양화에는 황제성, 이계송, 이종록, 조동준, 봉찬종, 문성이, 최필규, 조소에 박동수, 박성권, 관화에 조순조 등이 있다. 이밖에도 최근 평택맨이라는 필명으로 전시 기획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손성진을 들 수 있다.

## 6) 이천

이천의 경우 활발한 문화행사의 개최로 인해 지역미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매년 이천 문화원이 주최한 학생사생실기대회와 이천 청년회의소의 「한·일 학생미술교류」 전이 이천의 전시활동의 시작이었다. 이를 시발로 1982년 「문영준 동양화」 전, 1997년 제1회 「채묵회 서화」 전, 1988년 「강대철 조각 초대」 전, 장우홍 「한국화 초대」 전 등의 전시회가 개최되어 이천의 미술문화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미술 분야의 동호인 모임으로

1986년에 결성된 <채목회>를 들 수 있는데 이영환을 중심으로 그 문하생들의 모임인 <채목회>는 한국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수목화에 기본을 두고 다양한 현대적 변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예를 중심으로 <목수회>와 <일신서우회>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지역미술계의 보다 활발해진 활동이 전개되었다. 1992년 미협 이천지부가 창립되면서 지부 기념전인 「92 지역미술의 상황」전이 개최되어 지역미술의 현황을 알렸다. 이후에도 이천에 연고를 가진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천대학생미술인회>, 이천문화원이 마련한 「향토작가」전, 1996년 이천군이 시로 승격되어 이를 기념한 「작은 그림」전 등의 전시회가 지역화단의 현황을 알렸던 전시회였다.

그러나 이천의 문화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도자기 전통이 강했던 지역적 특성을 살려 1995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축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기 시작한 「이천도자기축제」가 있다. 도자기 축제를 통해 도예문화의 발전은 물론 다른 문화예술분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발표무대도 넓어지게 되었다. 도자기축제에 미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흙과 불의 정신」전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고, 1998년부터 시작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도 지역의 미술계에 자극과 아울러 활동의 동인이 되었다. 이천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는 조각의 강대철, 박찬갑, 강신영, 한국화의 이영환, 서양화의 설경민, 박호창 등을 들 수 있다.

## 7) 광명

광명은 지리적으로 거의 서울의 외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로 승격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까지의 광명지역 미술계의 상황은 몇몇 작가들이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였다. 이런 이유로 <미협 광명지부>의 창설년도 1989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다. 이때의 발기인은 김선일, 정창배, 박장열, 박병오, 김정일, 박득순, 김호순이

었다. 유일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시민회관의 건립도 1989년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서서히 지역미술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각종 미술실기대회와 1995년부터 시작된 「광명미술제」를 들 수 있는데 지역미술인들과 아울러 중앙미술인들을 초대하여 현대미술의 흐름을 지역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술모임으로는 미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1991년 창립한 <빛꽃회>(구 청색회), 아마추어 미술동호인 성격의 <이후회>와 <광명화우회>, <철우회>, 1995년 각기 다른 경향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 구성한 <빛그림회>, 여성 미술인들의 모임인 <모음회> 등을 들 수 있다.

### 3.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동두천, 김포, 양주, 연천, 포천, 가평, 구리, 파주, 고양시를 아우르는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도 내에서도 미술활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이는 전시공간을 비롯해 문화적 환경의 미비와 불리한 지역적인 위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오히려 지역미술의 활발한 자생적 활동을 저해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고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 인프라 등은 지역미술 문화 발전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몇몇 작가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미술을 전공하고 돌아온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서서히 경기북부 미술문화가 싹트게 되었고, 이러한 풍부한 인적토양은 이후의 경기북부지역의 미술문화 발전을 예감케 하는 주요 동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경기북부지역에 형성된 미술단체로는 경기북부 최초의 미술인 모임이라 할 수 있는 1985년에 <동두천 미술회>를 들 수 있다. 창립회원으로는 동양화에 김창혜, 박승빈, 이기만, 윤복희, 최안희, 최차란, 서양화에 곽동필, 곽동창, 김병호, 김태은, 문형진, 방두영, 신용석, 정호양 등인데, <동두천미술회>는 한수

이북 지역의 최초의 미술단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1989년 <뜨락전>, 1990년 <경기북부현대작가회>, 1991년의 <의정부미술협회>, 1992년 <구리미술협회>, <고양미술협회>, 동두천 여성미술인 모임인 <이듬연> 등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모임들이 결성되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례 전시들로 1989년부터 시작된 연천의 「대추나무·연」 전, 포천의 「오인」 전, 1994년 동두천 출신의 젊은 작가들의 설치전인 「공간나누기」 전 등이 지역을 무대로 전시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90년대 이후에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이전하여 잠재적으로는 충분한 지역미술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주요 미술인들로는 서양화에 강구원, 나경자, 안동렬, 이광오, 윤미희, 채미라, 최민화, 한국화에 고광근, 김영미 설치에 김하현, 박창식, 손종길, 이병민 조각에 (故)구본주, 배용식을 들 수 있다.

이중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으로는 <경기북부현대작가회>를 들 수 있다. 나경자, 나병오, 박창식, 박혜라, 방두영, 서금춘, 안동렬, 이병민, 최운석 등이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연례전시로 「오늘의 작가」전을 기획하고 있는데,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4개 지역을 순회함으로써 다양한 현대미술의 흐름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펼쳤다. 아울러 미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과 작가와의 공동작업’, ‘작가의 현장작업’ ‘환경프로젝트’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될 만하다.

이밖에도 40대 서양화 작가들의 전시인 「한북」전이 있는데 서울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이 가까운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지역인 한수이북(한강북쪽), 즉 경기도 북부지역의 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4년 결성하고 이듬해에 첫 전시를 열었다. 경기북부의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중견작가들이 그 회원인데, 황행일(포천), 정호양(동두천), 안동렬(의정부), 나병오(의정부), 방두영(동두천), 박혜라(의정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적인 전시장조차 전무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미술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구의 노력의 결과 2003년에 <미협 경기 북부지부 협의회>가 창립되었는데 동두천,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포천, 김포, 가평 등 10개 지역이 참여하여 작품교류활동과 지역미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성과와 결실이 2003년의 「2003 경기북부미술의 새로운 도약 100인」 전과 2004년의 「경기북부지역작가초대전」, 「2004 경기북부미술의 비상-그 힘찬 날개」 전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북부미술의 집약된 힘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세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기획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기북부의 경우 독특한 지역성, 곧 분단의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업 역시 생각해 볼만 하다. 하지만 이 역시 선부르게 단정할 문제일 수는 없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역 미술의 특수성을 고민하는 가운데서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며 지역 미술문화의 일반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즉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다양한 미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미술인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듯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문화 여건에 대한 지역 미술문화인들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이를 타개해 나가려는 최근의 집약된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2000년에 건립된 경기도 제2청사를 문화공간화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공간적 확보를 넘어 경기북부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의미를 들만한 일이라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 중 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1) 고양

인구 80만의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전시 공간 하나 없는 고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술활동이 열악했다. 이 지역 역시

서울에 근접해 있는 동시에 한수이북 서쪽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활동의 중심을 서울에 두고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이 개발된 시점이 비교적 늦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미술은 자생적으로 나타난 작가들의 몇몇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렀다. 미협지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내의 작은 공간에서의 「미협」 전, 「오늘의 흐름」 전, 「미술 및 서예대전」 등이 이루어진 것이 고작이었다. 다른 지역의 미협 활동과 마찬가지로 고양 미협 역시 가장 기초적인 자생적 단위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든가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최소한의 회원전을 통해 명맥을 유지한 것이 활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활동을 전개한 모임이 있었는데 <경의선모임>이 그것이다. 김기호, 김원갑, 김태희, 남궁산, 라원식, 문영태, 백창흠, 박건, 박불똥, 송진현, 유연복, 유은종, 이송열, 이정희, 이지누, 조정숙, 최민화 등 경의선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사진가, 화가, 교사, 출판인, 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여한 이 단체는 분단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의선 일대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1991년 사진협동작업 '분단풍경'을 통해 경의선 철로와 열차,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기록, 증언하여 분단이 만들어낸 시대적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sup>23)</sup> <경의선 모임>의 경우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문맥을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여준 사례라는 면에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경의선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풍경, 곧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를 통해 조명하려고 했던 모임의 문제의식이 지역미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이 모임의 중요한 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펼쳤다는 면에서 지역소집단 활동의 뜻 깊은 한

23) 경의선모임, 『분단풍경-열일곱 사람의 경의선 사진작업』, 눈빛, 1991.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의 경우 최근 들어 지역개발과 더불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서히 지역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며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9년에 창립된 <일산미술인회>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지역미술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으며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결성된 <아트그룹 자유로>도 지역미술을 위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 2003년에는 지역미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넌 어디서 사니?-제1회 신도시」 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문화도시 고양을 생각하는 문화예술인 모임’(고생모)이 주축이 된 이 전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신도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역 미술인들의 든든한 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된 전시이기도 했다.

## 2) 구리

구리지역의 경우 1989년 창립된 <구남회>가 있는데 구리시와 남양주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중·고교 미술 교사들의 모임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학생 및 시민들에게 미술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의식을 고양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매년 「구남전」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후 1992년 미협 구리 지부가 발족되었고 「구리문화예술제」에 중심으로 참가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주축이 되어 1994년에는 구리시립도서관내에 35평 정도의 상설 미술관이 설치되어 지역미술발전을 위한 작은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 3) 남양주

남양주 역시 서울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역시 뒤늦었기 때문에 미술활동 역시 매우 미비한 지역이다. 지역의 미술활동의 현황을 보면 1990년 개관한 '모란미술관'이 다수의 기획전을 통해 전문미술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두물위크샵'을 들 수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부딪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두물위크샵'은 미술전시회를 비롯하여 음악회, 건축전, 퍼포먼스 등의 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화단의 구체적인 모습은 백현옥을 중심으로 96년 미협 지부가 건설되면서 서서히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소그룹 활동으로는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발표의 장을 만들면서 시작된 <물고을 작가회>와 동화고등학교 미술동문모임으로 1979년 결성된 <초록회>가 있다. 남양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아직 그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1999년 건립된 '남양주아트센터'의 공간마련과 아울러 다수의 조각가들의 작업장이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은 그 발전 가능성을 예감하게 하기도 한다.

### Ⅲ. 주목을 요하는 기타 흐름 및 프로젝트

지역미술의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지역의 자치문화를 만들려는 노력들, 미술을 통한 지역문화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부천의 <삶의 터 작가회>나 안양의 <우리그림>의 활동이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들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지역문화를 미술 단위에서 풀어내려고 한 측면에서 지역미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안성의 「활생미술제」 역시 지역미술문화의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994년 안성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생성으로 비롯된 「활생미술제」의 경우 지역문화를 일구어 내려는 노력과 결합된 미술 실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적 흐름의 형성에 한 몫을 했던 '의료생활협'의 활동이 미술문화까지 확장된 사례라 할 수 있는 안성 지역의 활동은 유연복, 이송열, 이승하, 이억배 등이 동참하였는데, 지역주민의 요구에 조용한 미술문화의 전개라는 면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80년대 민중미술의 현장에 기반한 활동 역시 지역미술문화를 일구려는 각별한 활동으로 재평가될 만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단 지역이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자문화를 중심으로 한 미술운동이 많았다.

안양의 <우리그림>의 경우 미술학교를 통해 노동자 그림패 <까막 고무신>을 만들었던 것이나, 수원의 <나눔> 역시 현장에 기반한 전문 미술패라는 점에서 지역미술문화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현실문화에 개입하려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지역의 현안과 문제들을 미술문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들 활동을 통해 노동자문화운동이나 현장성에 기반을 둔 일상적인 미술운동의 다채로운 활동들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인천의 경우에도 인천노동자문화기획 <일손나눔> 소속 미술패(대표, 정정엽)와 <일그림 동인>(대표, 허용철)이 합쳐져 인천공단 미술패 <갯꽃>이 만들어

졌는데 <갯꽃>은 빈민촌과 농촌을 돌아다니며 이동전시를 했던 <가는패>와 연대하여 최초의 노동벽화인 '한독민주노조'(1988년작)를 부평공단 공장 외벽 위에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창작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부천의 <흙손공방>(대표, 김봉준) 역시 노조 단체복에 쓰인 옷그림 디자인, 선전포스터 제작, 달력, 연하장 등의 노동생활미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백진원이 주축이 되어 성남에서 지역미술문화운동을 전개했던 <그림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점에서 노동자 미술패의 활동들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얼마간 보여줄 수 있는 미술문화 운동의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경기도에 유난히 많이 존재하는 공단을 무대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노동자들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어 전문미술인들과 함께 표출하였던 이러한 흐름들은 지역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미술을 통한 삶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했다는 면에서 지역미술의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지역의 갖가지 문제들을 미술문화를 통해 풀어보고자 노력했던 점 역시 막연한 지역성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지역미술문화 운동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의 지역미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사례들은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있는 실천들이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와 결합된 미술문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 내의 지역에 기반한 많은 흐름들을 살펴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지만 몇몇 뜻 깊은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 90년대 이후에는 주민참여나 지역성, 공공성을 화두로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을 전개하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는 80년대 민중미술의 사실주의라는 좁은 형식상의 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성, 공공성이라는 화두와 결합된 현재의 다양한 미술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거리미술이나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의 경우 얼마간은 지역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

기 때문에 힘든 조건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몇몇 사례들은 각별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한 지역미술문화의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도 관심을 끄는 활동이며 좀더 밀도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80년대 이후 경기도 일대에 형성된 집단창작촌의 활동을 지역미술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처음부터 지역적 연고를 갖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외곽으로 작업실을 옮겨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작업 활동을 개진해 온 작가들의 경우도 나름대로 지역성을 토대로 한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미술을 위한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그 활동의 내용에 따라 엄밀한 적용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단순히 작업실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활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우, 지역미술로 묶여지기에는 분명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작가들의 경우 삶과 작업의 중심을 제 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 경우 지역미술의 이후 발전이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집단 창작촌’이라는 형태로 묶여지기도 한다. 집단 창작촌이란 말 그대로 함께 모여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업실 군 혹은 작업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경기도 일대에 이러한 집단 창작촌이 많은 이유는 서울의 높은 지가 상승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작업공간을 가질 수 있는 지역적 이점과 연관된다. 따라서 창작 여건이 비슷한 작가들이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가 공동체가 경기도 일대에 유난히 많이 형성되었다. 대개 집단 창작촌의 경우 창고형 건물, 축사 개조, 폐교 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넓고 안정적인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작가들 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술계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인적교류를 통해 창작의 열기와 미술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해나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경기도내 집단 창작촌으로는 우선 양평 일대의 ‘화가마을’을 들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 화가 민정기 씨를 필두로 약 280여명의 작가들이 작업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에서 이주한 작가들로 양평에서 거주하며 작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위에 갤러리, 미술관 등의 시설이 많이 있고, 예술기행 프로그램을 운영, 작가들의 아틀리에를 방문하는 대중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갤러리 아지오’에서는 「남한강 사람들」이란 테마전을 기획, 양평지역 환경보존과 관련된 전시를 해마다 열고 있어 양평 작가들의 결속과 지역 봉사에 기여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을 끌게 하기 충분하다. 지역주민들인 양평 군민들의 축제로 펼쳐지는 이 전시는 지역에 가장 먼저 정착하여 지역의 구체적인 풍경을 토대로 깊이 있는 작업세계를 펼치고 있는 민정기를 비롯하여 강경구, 김성호, 안창홍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 하는 활동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얼마간은 지역적 특수성이 개별 작가들의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지역미술로 묶여질 수 있다. ‘화가마을’이 자생적인 집단 창작촌의 성격을 띠다면 좀더 의식적인 공동 창작촌을 형성한 경우가 있는데 ‘하계마을’과 ‘포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경우이다. 이 경우엔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 집단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폐교, 축사, 공장 등을 개조해서 만든 작업실로싼 임대료를 주고, 공동의 경비를 부담한다. 그리고 예술촌의 이름으로 오픈스튜디오나 전시실,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회 참여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인끼리의 작가적 역량과 학구적인 활동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하계마을’의 경우 김승영, 유근택, 김창호, 김성남, 홍순명, 이병두, 최홍선, 김미영 등이 활동하고 있고 ‘포천 이 동네 사람들’의 경우 이진경, 한생곤, 정석도, 이종석, 하정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sup>24)</sup> 두 활동 모두 공히 지역의 대소사와 나름대로 연관을 가지며 작은 단위의 지역문화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24) 인사미술공간 개관기념전 심포지엄 자료(2000년 6월 2일)를 참고하였음. 이후 몇몇 작가들의 이주와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집단 창작촌 활동의 경우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활동의 일부로 거듭나고 있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속에서 작업 활동의 맥락을 지역적 문화와 토양에서 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역의 문화환경 개선 등의 지역문화의 흐름에 이바지 하는 몇몇 작가들의 경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역미술, 즉 지역에 기반한 미술활동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지역미술로 묶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지역 고유의 오밀조밀한 감성들이 본의 아니게 작업에 묻어 나오는 점 역시 지역의 환경에서 연원하는 고유한 감수성이란 맥락에서 다시 조명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담아내는 풍경 역시 문화화 된 풍경,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면에서 지역적 감수성의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볼 만 하다. 자연풍경도 이제는 단순한 풍경의 요소만을 담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관계들이 엮여진 방식으로 투영된 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성의 맥락에서 몇몇 공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도 지역미술의 측면에서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태현의 「성남 프로젝트」이다. 삶의 토양으로서의 공간성에 주목한 김태현은 서울근교라는 성남의 지역성을 조망하는 작업을 펼친바 있다. 1998년 그 결과가 ‘성곡 미술관’에서 「공간의 파괴와 생성-성남과 분당사이」란 이름으로 전시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서울의 외곽이자 변방에 자리한 성남과 분당의 지역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펼쳐낸 것이었다. 단순한 작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현실 속에서 작가의 시선에 의해 포착한 성남과 분당이라는 서울의 외곽인 경기도의 문화정치학적 함의를 드러내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성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곧 도시의 재개발 계획과 연루된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성남’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적 미술 실천의 가능성을 도모했다는 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역시 이러한 중앙에 종속된 지역성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던 측면이 많기 때문

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은 공간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이 참여하여 이후 다른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태현은 사루비아 다방에서 개최한 「화난중일기(畫亂中日記)」 전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한 기록의 문제를 개인적 감수성의 영역을 넘어 구체적인 공간성과 현실성의 문제로 치환시키려 했다. 김태현의 작업은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미술의 활동이란 면에서 의미있는 활동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999년 안성에서 성동훈의 기획으로 마련되었던 「국제로드사이드 조각심포지엄」도 눈길을 끈다. 국도 변을 무대로 공공조각을 설치하려 했던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환경조각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국도 변이라는 특이한 장소성에 대한 탐구하였다는 면에서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제로 기획이 되었다는 면에서 몇몇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평가된다.

한편 안양을 거점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안공간 일명 보충-대리공간인 '스톤앤워터STONE & WATER'의 최근 활동이 주목된다. 지역에 산재한 제반 문제들을 미술의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아울러 지역의 숨은 작가 발굴, 일상 속의 살아있는 미술실천, 새로운 미술유통시장 모색,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술문화 모색을 취지로 만들어진 '스톤앤 워터'는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차곡차곡 발언하면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00년 독립기획자 류병학 기획의 「Living Furniture」 전으로 미술계의 각별한 조명을 받으며 출발한 '스톤앤 워터'는 이후 「재건축프로젝트」 전, 「리바이벌」 전 등의 자체 기획전과 아울러 전시지원 공모를 통한 우수기획전 지원 및 작가지원 전 등의 활동과 아울러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미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톤앤 워터'의 활동은 지역에 기반한 미술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단순한 서울의 외곽, 문화의 불모지로서의 지역성을 문제의식으로 전환시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한 점



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전개하고 있는 「안양천 프로젝트」 역시 관심을 끄는 프로젝트이다. 과도한 근대화 과정에서 오염된 안양천을 화두로 삼아 예술가를 비롯해 환경운동가, 시민, 관, 학이 공동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그 기획만으로도 단순한 환경미술의 문제의식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지역미술의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성을 화두로 한 미술의 문제가 단순히 지역작가들이 중심이 된 문제일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지역작가의 활동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 즉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미술적 실천일 수 있고, 지역적 특수성을 담고 있는 지역의 공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작업을 통한 이에 대한 형상화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미술의 수용자라 할 수 있는 지역시민의 미술 문화 참여라는 문제의식을 포함한다. 결국 지역미술의 활성화는 것이 지역을 단위로 한 활발한 미술적 소통의 모색이 그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이라는 중앙을 통하지 않고 미술 문화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지역미술의 고민이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관심과 정서를 토대로 한 미술문화의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굳이 서울을 무대로 전개되는 화려하고 전위적인 미술실천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안과 정서들을 담아내는 구체적이고 진솔한 미술실천이 지역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IV. 결 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서울도 지방도 아닌 불분명하고 특별한 특성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다. 한편 국토의 심장부에 있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화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울 외곽으로 머물렀던 지리적 특성은 서울에 대한 종속화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심화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경기도 미술의 경우 그 발전을 위한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실제의 역사적 흐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나 광주, 부산에 비해 지역 특유의 감수성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지역미술의 한계점으로 내비쳐지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고유의 미술실천이 상대적으로 많지 못했던 점도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이다. 그런 면에서 혹자는 경기도 미술의 없음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미약하지만 그 가능성을 엿보기도 한다.

물론 이번 연구의 출발은 그 가능성을 위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소집단 중심의 경기도 근·현대 미술사의 궤적은 독립적인 지역미술문화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그렇지 않은 흐름들, 즉 중앙화단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반복된 양상이 그 주요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문화의 문제점들에 대해 고육지책의 비판을 제기하는 소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미술 모임보다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진 미술전문모임이 더 많았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미술그룹의 일반적인 문제들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일 선생의 지적대로 “동호회니 동문회니 하는 식으로 끼리끼리 모아 전시하고 한 잔 마시고 이력서에다 한 줄 끼워 넣자 식의 전시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친목단체가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적인 단위일수록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연이나 학연, 혹은 장르별 미술 모임의 경우 특정한 미술적

지향에 대한 고민 없이 현실적인 작가 개인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모임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엄밀하게 말해 경기도에서 활동하였던 대개의 소집단 활동의 경우도 그 외형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이러한 모습과 대동소이한 활동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평가를 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지역화단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미술활동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미술의 경우 현실적인 조건이 열악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거창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미술활동의 전개를 위한 이러한 소모임 활동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창작과 전시활동을 위한 모색이 개인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70년대 말 이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소모임의 활동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창작여건의 활성화를 위한 모습을 띄고 전개된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 이후 80년대의 꾸준하고 다양한 활동이 개진될 수 있었고 미술문화의 양적인 팽창을 꾀할 수 있었다. 80년대에 등장한 민중미술의 경우 그 조형적인 성취의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미술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아울러 미술을 통한 지역시민과의 소통 확대라는 문제의식은 분명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반복해 말하지만 지역미술의 그 기본적인 모습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술문화의 창출에 있다. 이는 지역의 대중들과 함께 현실적인 지역성의 문제를 미술언어와 미술실천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이 지역미술의 기본적인 뼈대이기 때문이다. 80년대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지역의 실질적인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양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역단위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미술제도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90년대를 전후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미술문화의 흐름이 외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얼마간의 지역미술의 인적인 토대 구축과 양적인 확장을 통한 것이기도 했고 90년

대라는 보다 다양화된 흐름 속에서 가능한 문제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시행과 맞물린 지역미술의 물질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역미술담론의 활성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90년대 이후 각 지역에서 모임의 결성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자구적인 활동전개는 이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90년대는 지역문화와 지역미술문화를 위한 하나의 전기가 되었던 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술계의 고질적인 제반 문제들, 미술시장의 문제, 전문화된 미술공간의 미비, 지역미술 담론의 부재 등과 맞물려 현실적인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지역미술만이 가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들과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위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실천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본격적인 지역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지속적인 미술실천의 전개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 아울러 90년대 말부터 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지역성을 담아낸 미술실천의 모습은 이후의 지역미술을 향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수원의 <나눔>, 안양의 <우리그림>, 부천의 <흙손공방>, 안성의 「활생미술제」 등의 활동이 지역미술문화를 일구려는 두드러진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미술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를 창출하려 했던 측면에서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미술을 좁은 의미의 예술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삶과 결합한 문화적 흐름으로 이해한 것은 지역미술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결국 지역미술문화의 한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선취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 넓은 의미의 공공미술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각 단위 지자체의 활동을 통해 건설되기 시작한 미술공간의 건설과 지역시민을 위한 대중적인 기획전의 증가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도 미

술의 어떤 가능성을 예감케 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인 취약점이 오히려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미술의 상황과 가깝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놓인 미술실천이 아닌 수평적이고 대등한 미술문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의 창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서울 중심의 문화권이 점차 탈중앙화, 탈서울화되는 문화적 분위기는 지역미술의 발전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80년대 이후 작업의 터전을 경기도 일대로 이전하고 있는 창작촌의 경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울 화단에서의 활동유무가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한 미술 문화 실천의 가능성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활동의 전개, 중앙 역시 하나의 지역성으로 거듭나는 문화적 실천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통한 작가적 삶과 실천이 보장받는 현실적인 구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인프라가 지역단위로 확산·편재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미술문화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배려, 지역미술인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과 자긍심을 통해 지역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려는 노력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 생각된다.

그런 가능성의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역에 포진한 많은 미술대학의 존재들이다. 경기대학, 수원대학, 강남대학, 경원대학, 계원조형예술대가 경기도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 캠퍼스,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명지대 등의 미술대학이 있다.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다수의 미술대학의 존재는 그 자체로 미술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전개될 많은 의식적인 활동을 예감케 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실천적인 성과들이 모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한 이후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미술 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현재 수원을 위시한 경기도 내의 각 지역에는 전문적인 미술문화 공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한 전시공간으로 기능하였던 문화회관의 경우도 본격적인 미술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며 대관화랑의 경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미술공간으로 거듭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도립 미술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 단위의 미술 공간 건립과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다수의 대안 공간 정책 및 지원을 통해 지역미술문화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지역미술문화도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문화를 통해 활성화된다. 이는 본 연구의 과정에서도 누차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자체와 지역재단 등의 정책적인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역미술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밖에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 지역단위 기반의 미술 네트워크화를 통해서도 발전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의 개념이 중앙의 하위 개념이 아닌 수평적인 문제라 할 때 중앙과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엮어갈 새로운 조직적인 활동, 곧 지역미술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미술의 다양한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 경기미술의 정체성을 위해 마련된 예술인들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모색이 우선 관심을 끈다. 그 내용은 '지역미술의 활성화'라는 취지로 수원지역 미술관련 동우회, 전문가단체, 교수그룹, 노·장·청년층 작가들이 수원 미협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수원 미술관건립 등을 통해 빈약한 수원 지역의 미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 산재한 지역미술계의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원 미협이 위탁 운영하는 수원미술전시관도 이후에 네트워크 참여단체의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연간 3~4차례 기획전을 개최하고 문화학교 및 교양강좌를 보다 강화시켜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역 주민들이 찾는 미술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sup>25)</sup>

이러한 네트워크화는 단순히 기존의 조직 개편이나 소그룹들 간의 교류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지역 이기주의나 단순한 선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인식은 우선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지역미술의 발전은 그 실질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시 공간 확충이나 지역미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확대, 지역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기획전의 확대,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미술문화의 전개를 위한 노력 등의 가사화된 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미술문화에 대한 보다 발본적인 인식이 전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에 활동의 터전을 둔 작가들이 중앙과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역미술계가 좁은 의미의 지역개념에만 스스로 갇힐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중앙과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면서 그 고질적인 위계구조를 무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내 활동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 쌓여갈 때 지역 시민들의 관심확대와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적 감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매우 미약하나마 경기도 미술문화의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그 문제점과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아무쪼록 이후의 경기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 작업이 확대되고 이를 근거로 한 내실 있는 지역미술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25) 『경인일보』, 2004년 3월 30일.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경인일보」. 1961년 창간호~2002년 까지의 경기도 미술관련 기사 색인.  
 「미술세계」. 1987년 1월호~2002년 12월호 까지의 경기도 미술관련 기사 색인.

### 2차 자료 : 시군지의외 기타

- 「경기도사연구총서 2 -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경기도사편찬위, 1997. 3.  
 「경기도사연구총서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 1997.  
 「경기관련문헌목록」. 1995(통권 1호), 경기개발연구원, 1995. 11. 25.  
 「경기도사」. 제 2권, 1982. 4. 10 초판, 1989. 12. 27 재판.  
 「경기도사 자료집 문헌목록 2」. 경기도사편찬위, 1999. 2. 24.  
 「광명시지」. 광명시지편찬위, 1993.  
 「구리시지 하 - 현대사회」. 구리시, 1996. 4. 30.  
 「구리의 역사와 문화」. 구리시, 1996. 4. 30.  
 「남양주시지 5 현대사회 하」. 남양주시지편찬위, 2000. 12.  
 「내 고장 안산」. 내고장 안산편찬위, 안산문화원 발행, 1990. 2. 28.  
 「동두천시사 하」. 동두천시사편찬위, 1998. 4. 30.  
 「龍駒문화 24호」. 용인문화원, 1992. 12.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7. 30.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1998. 12. 20.  
 「수원시사 하」. 수원시사 편찬위원회, 1997. 12. 31.  
 「수원시사」. 수원시사편찬위, 수원문화원 편저, 1986. 11. 25 초판, 1989. 2. 28 재판.



-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4. 25).
- 「연천군지 하」 연천군지편찬위, (2000. 9. 30).
- 「오산시사」 오산시, 경기출판사, (1998. 12. 30).
- 「용인군지」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2. 25).
- 「운봉문화」 90년 봄(35호), 이천문화원.
- 「의정부 20년사」 의정부시, 의정부20년사 편찬위원회, (83. 10. 10).
- 「이천시지 5 - 사회와 문화」 이천시지편찬위, (2001. 10. 8).
- 「인천학연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12. 31).
- 「파주군지 하 현대사회」 파주군, (1995. 6. 30).
- 「파주의 역사와 문화」 파주문화원, (1995).
- 「포천문화」 1호, 포천문화원, (1998. 12. 31).
- 「기전문화예술」 24호, 경기문화재단, (2003. 3. 1).
- 「21세기를 함께 하는 경기예술의 쉼」. 경기도 문화정책과.
- 「월간문화예술」 1998, 2000, 2001, 2002년호.
- 윤범모·최열 「경기도의 미술,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경기도사 편찬위, 경기출판사, (1997).
- 이석기 「수원미술 25년 그리고 든든한 성 쌓기」. 기전문화예술.
- 민운기 「근대인천미술의 형성과 전개」. 제12회 인천민족문학제, 2003년, 계간시각 2004년 봄호.
- 「인사미술공간 개관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000. 6).
- 라원식 「미술사연구-한국현대미술의 전개(80년대 미술운동)」.
- 경의선모임 「분단풍경-열일곱사람의 경의선 사진작업」, 눈빛, (1991).
- 이외 각종 전시관련 도록.

## 부 록

**별첨자료 1.** 경기도 근·현대 미술사 주요활동 색인

**별첨자료 2.** 『경인일보』 경기문화관련 기사 색인(1961~2002)

**별첨자료 3.** 『미술세계』 경기도 미술관련 기사 색인(1987~2003)

**별첨자료 1**

## 경기도 근·현대 미술흐름사 주요활동 색인

### 1960년대 이전

- |   |   |
|---|---|
| <p>1929년 프로예맹 수원지부</p> <p>1930년~1939년 프로예맹 창립전</p> <p>1946년 인천미술동인회</p> <p>1947년 인천미술협의회</p> <p>1948년 문충 산하 인천 미협</p> <p>1952년 대한 미협 인천지부-경기도 지부<br/>(~1981년)</p> <p>1956년~1976년 수원 문화원 전시실</p> <p>1959년 황추 유화개인전(인천 최초의 개인전)</p> <p>1960년 소성미술전(양태광당전 개칭) 개최</p> <p>1961년 한국 미협 인천지부</p> <p>1964년 미협 수원지구회 결성</p> <p>1965년 경기도 미술전람회(소성미술전 개칭) 개최</p> <p>1969년 미협 수원지부</p> <p>1969년 인천 &lt;오소회&gt; 창립전, 은성다방</p> | <p>구, 이상덕, 임영수, 홍운표)</p> <p>1976년 부천미술동인회</p> <p>1976년 안양 미협</p> <p>1977년 수원 삼원백화점 전시실(~1981년)</p> <p>1979년 포인트(~1983년) '시점·시점'</p> <p>1978년~1987년 경기청년미술작가회(경화식, 권용택, 김인겸, 김철규, 남부희, 박승남, 배형경, 백일현, 이봉순, 이선열, 이종관, 최용락, 허상)</p> <p>1979년 수원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p> <p>1979년 수원 동일화랑(~1980년), 수원 소라백화점 전시실(~1980년)</p> |
|---|---|

### 1980년대

- |  |   |
|--|---|
| <h3 style="text-align: center;">1970년대</h3> <p>1971년~1972년 시민회관 전시실</p> <p>1974년 수원청년미술인회</p> <p>1974년 돌채음악감상실, 국제다방, 금강산다방</p> <p>1975년 크로마백화점 전시실(~1990년), Y하우스(~1990년)</p> <p>1976년 수원지역 미술교사회</p> <p>1976년 부천지역 최초의 미술모임 심미회(백석일, 김선일, 장영현, 강선</p> | <p>1979년 수원 포인트 창립</p> <p>1980년 '현대미술상황-인천'전-남빈화랑</p> <p>1980년 경기청년 미술인 회원전(권용택 외 18인)-수원 크로마백화점</p> <p>1980년 수원 팔달전시장(~1981년)</p> <p>1981년 부천 도원미술회</p> <p>1979년 수원 포인트(최춘일, 이억배, 박찬웅, 문석배)</p> <p>1981년 한국 미협 경기도 지부(인천이 경기도지부에서 분리)</p> <p>1981년 경인일보 초대작가전</p> <p>1981년 수원쇼팽전시장(~1985년), 수원 화홍예식장전시장, 수원 명선다방(~1982년)</p> |
|--|---|

- 1981년 평택 미술협회
- 1982년 일구팔이일이회(박신혜, 박유찬, 배미혜, 신동선, 이남희, 이혜경, 장인욱, 장선영, 이희선, 최은영 외)
- 1982년 수원 공간사랑(~1987년)
- 1982년 수원 성목회(강병찬, 강선구, 김광현, 김승호, 김원술, 김화영, 김창호, 권기욱, 박희수, 박득순, 박요아, 염조원, 오용길, 이길범, 이선열, 이완수, 이영길, 이정협, 장대주, 정인자, 정선이, 조성탁, 최기운, 최길순, 최정숙, 최백란, 최종진)
- 1982년 송탄 미술인 협회 창립 전시회-송탄시 신장 2동 태양다방
- 1983년 SID(Suwon Industrial Design) 디자인 공예 그룹(홍승인을 주축으로 송복순, 이정희, 민병인, 남북현, 김수연, 전재탁, 박병대, 양재천)
- 1983년~1987년 수원 시작회(김성배, 이윤숙, 김중, 김석환, 백종광, 남부희, 경홍수, 이석기 등이 83년 7월 크로바 화랑에서 첫 전시를 가졌다.(경홍수, 김갑식, 김석환, 김영섭, 김중, 남부희, 어호선, 이석기, 이윤숙, 임병숙, 전경옥, 정우진, 한기백, 황민수)
- 1983년 미협 성남지부
- 1983년 수원 일요화가회(중견작가 박영복, 이선열씨의 도움으로 창립)
- 1984년 수원, 포인트가 時點·視點로 개칭
- 1984년 수성여중교사 화우회
- 1984년 평택미협 회원전-평택 문화원
- 1984년 부천, 서양화 모임인 작업동인
- 1985년~1986년 수원 광교사생회
- 1985년 수원, 화우회(수원 수성여중교사 모임으로 발족)
- 1985년 시작85(경기도 회화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모임)
- 1985년 안양 청목회(안양 일요화가회에서 출발하여 안양미협서양화분과에서 활동하다 발족, 정해덕, 천기병, 주운항, 김수현, 이강식)-안양 최초의 미술그룹
- 1985년 부천 도원미술사생회(이후 1992년 부천사생회로 명칭 변경)
- 1985년 동두천 미술회
- 1986년 인천 청년작가회
- 1986년 인천 채목회(이영환, 정은자, 이계욱, 신왕건, 서용수 외)
- 1986년 수원 판화모임 판
- 1986년 경기 현대미술제
- 1987년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1988년)
- 1987년 부천 삶의 터 작가회(강선, 홍용택, 추연공, 김장원, 백규현, 김하중, 김성열, 고기범, 권광칠, 김창섭, 최미영, 김정호, 민병한, 박명익, 서기범, 신묘숙, 이문희, 장효진, 조규완, 하진용)
- 1987년 안양, 그림사랑 동우회, '우리들의 땅'
- 1987년 수원 선화랑, 수원문화원전시장
- 1987년 수원 민중문화운동연합
- 1987년 여주 '미려'전 창립전
- 1988년 수원 미술 동인 새벽
- 1988년 수원사생회
- 1988년 용인미술인회의
- 1988년 경기현대작가회(백일현, 김중, 박종현, 이미혜, 치은영, 김용희, 황민수, 임병숙, 허중수, 김철규, 이경근, 홍오봉, 김석환, 주영광, 장

- 해홍), 경기형상회(권대균, 권용택, 김수현, 김주영, 김영섭, 남부희, 류봉현, 박영복, 박유찬, 박충분, 백상일, 서해창, 이경근, 이상학, 이석기, 이선옥, 이은숙, 이해경, 임병숙, 정관숙, 조성호, 조진식, 주운항, 최순용, 최현식, 한기백) 창립 경인작가 초대전-경인미술관
- 1988년 수원, 수문연 나눔미술분과
- 1988년 수원, 미술 동인 새벽
- 1988년 경기조각회(구자영, 광동기, 김남옥, 김왕현, 박경자, 박신자, 배형경, 안병철, 양희태, 오의석, 우무길, 이은상, 이재옥, 전태영, 탁명옥, 허종수, 홍낙기, 홍창기) 수원 문화원
- 1988년 수원지역 미술학우회
- 1988년 안양 유형회(조성호, 류봉현, 정해덕, 주운항, 주운균, 천기병)
- 1988년 안산 미술인협의회
- 1988년 안양 '우리그림'지역미술 신문 창간
- 1989년 수원, 수리미술연구소
- 1989년 수원, 새벽의 첫 전시인 '오늘의 이땅'전
- 1989년 수원미술제
- 1989년 수원 정화랑
- 1989년 11월 시맥 창립전
- 1989년 미협 광명지부
- 1989년 구리, 구남회
- 1990년대**
- 1990년 수원 슈룹
- 1990년 수원 컴·아트그룹(이경근, 황민수, 홍오봉, 김석환, 허정수) / 교감예술제
- 1990년 수원 시맥회(안택근, 이득현, 김유미, 유동일, 김태용, 김현권, 이상달, 이해자, 홍혜영)
- 1990년 수원 수미회(김학두, 권대균, 김성윤, 김용근, 류선하, 류천성, 박기환, 박찬도, 송준용, 오인환)
- 1990년 수원 경기원로작가회(김학두, 조세증, 송준용, 박찬도, 이필윤, 홍유선, 이준서, 박기환, 김성윤, 윤재상, 김용근, 류선화, 오인환, 권대균, 류춘성)
- 1990년 안양의 미술동인 '우리들의 땅'(류충렬, 홍대봉, 박찬웅, 이억배, 권윤덕, 정유정, 유미선, 정성숙, 김한일, 전영근, 이정아, 정성택)
- 1990년 수원구상작가회(경기구상작가회)(권대균, 강상중, 김수현, 김영섭, 김주영, 김철규, 남부희, 류삼열, 서해창, 성하영, 이석기, 이선옥, 이종관, 조완형, 조진식, 최현식, 한기백, 허만갑, 탁성욱)
- 1990년 경기북부 현대작가회
- 1990년 수원, <새벽>, 「정치·정치..정치...」 전-수원 선화랑
- 1990년 수원, <시맥> 창립전, 수원 선화랑 (경수미, 박민경, 박용국, 안택근, 유미옥, 유동일, 이득현, 장은주, 최세경, 최지희, 하선화 등 15인)
- 1990년 수원, '다섯칸'전, '나·비·뿌·리'전-수원 문화원
- 1990년 고양미술협회
- 1991년 수미협 창립전, 선화랑

- 1991년 수원 등잔갤러리, 수원 남갤러리, 수원 장안미술관, 경기문화예술회관, 이음갤러리 개관
- 1991년 문미회(수원문화원 미술교신 회원들로 구성)
- 1991년 수원미술인협회(이주영, 권용택, 서동수, 주영광, 황호영, 최춘일, 손문상, 이오연, 임종길, 조용상, 허종수, 신경숙, 신동호, 박은태, 류승우 외)
- 1991년 수원 구상작가회(이후 경기구상작가회로 개칭)
- 1991년 의정부 미협 창립전-의정부 시청 전시장
- 1991년 이천 미술협회 창립전-이천군민회관
- 1992년 경기수채화협회(김학두, 김주영, 신정무, 이상덕, 박상윤, 최영철, 김세중, 이선옥, 박성현, 허정문, 박상국, 김종렬, 김정호, 이인석, 김현숙, 홍사계, 김혜중, 최인수, 황정옥, 윤정년, 김혜진, 박경희, 한병희, 오희근, 이귀화, 이공자, 박기술, 정자근, 신명희, 오혜련, 심우채, 김정화, 정백훈, 김혜경, 경정혜, 오정식, 이연옥, 김진식, 곽영숙, 신경숙, 김인영, 김영란, 민노숙, 이원희, 정덕문, 정선영, 곽철홍, 임승희, 이진희, 이오연, 김미양, 고숙진, 민성동, 손순옥, 탁신문, 손옥련, 허승대, 홍성남, 정미숙, 우원향, 황은선)
- 1992년 평택, 전시공간 베아트리카
- 1992년 수원 장안미술관, 갤러리 낮은 언덕 개관
- 1992년 안양 첫 순수 전시공간 '소해미술관' 개관
- 1992년 미협 구리지부
- 1993년 단원미술작가회
- 1993년 수원, 컴아트 그룹, '장안문에서 천안문까지'
- 1993년 안양청년미술작가회
- 1994년 수원 갤러리 올, 성원 갤러리 개관, 부천 연갤러리 개관
- 1994년 수원, 컴아트그룹, '북경교감예술제'
- 1995년 한북전 창립전(경기도 북부 40대 서양화 작가 모임)
- 1995년 수원, 슈룹 조형연구소 개관
- 1995년 나혜석 추모예술제
- 1995년 안산 미술협회
- 1996년 수원, 전국환경미술전
- 1996년 수원, 수원성(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 역사화'전
- 1996년 색깔사랑(수원대학교 미술교육원)
- 1996년 미협 안산지부/안양 유형회(정해덕, 조성호, 천기봉, 주운향, 유봉현, 김춘희, 이철, 유인호, 노은경)
- 1996년 수원조각회(곽동기, 구자영, 김래환, 김유미, 박근용, 박해오, 백종영, 엄종명, 우무길, 윤상화, 이강식, 이영섭, 이윤숙, 임광용, 최영, 허종수, 황병광, 이철재, 홍창기, 박옥순, 박용국)
- 1996년 수원, 미술소그룹 '옵니버스'(경수미, 박종훈, 신경숙, 유미옥, 최세경, 오진순)
- 1996년 안양 새물 수채화회(강영란, 금영보, 김옥자, 김용현, 김은주, 오정식, 이강은, 이규승, 이상훈)

- 1996년 미협용인시지부(마순관, 이종한, 김진희, 변해익, 이범준)
- 1996년 수원 미술동호인 모임 '색깔사랑'
- 1996년 감꽃 창작연구회(안양, 금촌, 과천 등의 젊은작가 모임, 신복래, 문향숙, 김은주, 백정숙, 서연수, 신금현, 이성희, 이영숙, 이정효, 이철훈)
- 1996년 강화도 전원미술관 개관
- 1996년 여주 '남한강사람들'전, 여주군민회관
- 1997년 수원 생활 속의 미술회(김선희, 권혜영, 김영란, 김옥향, 김혜경, 이강임, 유근선, 한향규)
- 1997년 '97년 경기미술 새로운 도약전
- 1997년 수원, 화성아트쇼
- 1997년 부천 동상이몽 창립(강선구, 이인숙, 최병국, 양창석 외)
- 1998년 부천 빛살회(이상덕, 김장호, 전장원, 염조원, 최철)
- 1999년 미협 동두천 지부 결성
- 1999년 의정부 미술동호회 '신형상연구회'
- 1999년 일산 미술인회
- 1999년 수원미술전시관
- 1999년 부천 현대조각회
- 1999년 오산미술인협회

## 2000년대

- 2000년 수원 후상회(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수채화 단체)
- 2000년 수원 서호수채화회(수원을 중심으로 한 수채화 모임)
- 2000년 안양 '빛·드로잉'
- 2000년 초록작가회(수원지역 초등교사

- 주축)
- 2000년 수원 갤러리 쿠이 개관
- 2001년 사단법인 민미협 수원지부
- 2001년 이영미술관 개관
- 2001년 안산, 청년작가회(이동수, 유미경, 김선경, 유리환, 박민수, 이상수, 이민경, 향요섭, 윤재원, 이동윤, 김선정)
- 2001년 고양·일산의 아트그룹 자유로(강경구, 강화영, 김영선, 김문영, 김양훈, 김유섭, 김인순, 송대섭, 박인현, 신장식, 안진의, 안현정, 양해웅, 오현숙, 이광현, 이동연, 이영미, 이지훈, 임서령, 임현규, 전래식, 정승호, 조강훈, 조미혜, 최나영, 황지선)
- 2001년 수원, 컴아트 그룹, '행위·영상·설치프로젝트 시티수원 2001, 자극적인 일상-틈'전
- 2001년 미협 양주지부
- 2002년 안양,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위더 개관 '리빙퍼니처'전(류병학 기획)
- 2002년 하남 제1회 향토예술전
- 2003년 수원, 슈룹기획, '경중가인(鏡中佳人)-Outlook for the Future'전-수원미술전시관/소나무갤러리
- 2003년 미협 오산지부 창립전
- 2003년 미협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창립

별첨자료 2
--------

## 『경인일보』 경기문화관련 기사 색인(1961~2002)

### 1961년

- 11.13 경인일보주최 미술 실기대회 성황
- 11.20 현대미술의 지침-이경성 著 미술입문 독후기
- 12.24 김인환, 작은미의 보람-신영자 개인전을 보고

### 1962년

- 4.26 지방문화발전을 말하는 문화인 좌담회
- 11.26 김인환, 제3회 <재인홍대>전 평
- 12.26 62년도 도문화 결산-미술

### 1963년

- 4.12 일선미술교사좌담회-실기대회와 미술교육을 해부한다.
- 4.19 김인환, 이색미의 성찬-판화오인전을 보고(上)
- 4.20 김인환, 이색미의 성찬-판화오인전을 보고(下)
- 7.31 여석시화전 마련
- 8.15 조한길, 문화면과 인천문화계의 관계(上)
- 8.17 조한길, 문화면과 인천문화계의 관계(下)
- 8.20 손설향, 여석시화전을 보고
- 8.20 남궁즉, 여석시화전을 말한다

- 10.13 세종문화회관잔치 미협 회원전-안양서도 전시될 듯
- 10.31 경기도 문화예술상 수상 評
- 11.16 제2회 황추 개인전
- 12.19 우문국, 유정노 2인전
- 12.29 황추, 63년 도내문화 총결산-미술
- 12.29 미협 회원전
- 12.29 미협 최고의 한해로 점 찍혀

### 1964년

- 12.20 김옥순 유화전 성황중
- 12.25 인천의 전시회장은 다방

### 1965년

- 4. 2 향토 회원들의 발언-인하공고 출신 미술 서클
- 5. 1 세종문화회관잔치
- 5.30 최석재 개인전-자유타방
- 12. 2 종합미술전
- 12. 2 차분한 동양적.. 겨울 동양화전
- 12. 4 청우회전
- 12.24 올해 예술계 결산
- 12.30 전시장 스냅

### 1966년

- 3.23 전시장 스냅
- 3.31 삼월공모전 금은상 입상작(사진자료)



- 4. 5 신춘 수놓은 전시회
- 4.19 이철명 개인전
- 4.28 미협과 사협서 회원전
- 5. 4 도내문화단체의 조직과 활동
- 7. 1 재인홍대미술전
- 12.11 이철명, 이규선 안영일 2인전을 보고

**1967년**

- 8.26 도내교사 작품전
- 10. 7 국전의 모습이 구태의연
- 11.18 60년대 이후의 현대조각
- 11.28 3인 작품전-은성다방에서
- 12.31 현대미술 어디까지-해외화단의 근황

**1968년**

- 1. 1 새해전망-문화
- 5.27 현대조각의 새 주제
- 6. 3 행동미술-청소년작가연맹 입회원전
- 11. 8 장동섭, 경기예총의 나아갈 길

**1969년**

- 3.21 황병식 유화전
  - 4.11 색다른 미술전 인천에서-향토 문화계 주목
- 4.12 국내처음 환경미술 실험전
- 5. 9 김해성 시화전
- 6. 4 경기도미술전 개막
- 9.23 발산된 50년대 의식(사진자료)
- 11. 6 60년대 한국미술 결산

**1970년**

- 11.19 2인 동양화전-수원 커피하우스서
- 12. 1 제2회 東庭 서숙전 성황
- 12. 9 일요화가회 작품전 40전 출품
- 12.15 비중 높은 인천 교우동인전
  - 12.19 여류화가 김옥순씨의 2회 유화전-인천다방서

**1971년**

- 1.15 국내미술계 활기(신인작품공모, 미술창립 기념화도 열어)
- 1.25 황만영 동양화전-인천소월 다방
- 3.15 김유순 시화전-수원아카데미 다방, 횃수보다 질에 염두하길
- 5. 1 올해 향토화단의 수확-미협 경기지부서 청토회 초치전-인천시공보관
- 6.10 황병식 유화전-인천 소월다방
- 6.10 이석인 화시전-인천 은성다방
- 6.10 의정부 시내 국민학교 교사 8명 시화전, 천도상가 지하 다방
- 8. 5 윤학철 유화전-수원 아카데미 다실
- 10.20 이철명 화백 유화전-소월다방
- 11.19 강화군내 7인 동인회 작품전시회-강화 영다실
- 12.20 박영선 개인전-인천 은성다방
- 12.20 교사미술전-평택 읍내 고향다방
- 12.23 육우회 자선 작품전-한일다실

**1973년**

- 9.11 이재호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5층 화랑

**1974년**

- 1.10 왕영중, 원노빈 2인 시화전

**1975년**

- 1.23 일선교사 실기 작품전-성남 대원초등학교
- 9.11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황만영 (미협도지부 회원)
- 9.13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이영재 (미협도지부 회장)
- 9.15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박인숙 (제물포교 교사)
- 9.18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이철명 (미협도지부 부지부장)
- 9.19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이명복 (사진협회 도지부장)
- 9.23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김옥순 (인천 동산고 교사)
- 9.24 도내 예술인의 자작 해설-김중기 (수원 사진협회 총무)
- 12.17 인천 보름달회 자선 작품전-인축기독교사회관

**1977년**

- 4.16 이상덕 서양화 개인전-신정다실
- 5.16 선화실 주최 불우이웃 돕기 유화전-크로바 백화점 선화실
- 6.15 경기미술전람회 공모
- 6.18 경기미술전람회-인천시 제1공보관
- 12.10 청운화도 학원전-크로바 백화점 3층 전시실

**1978년**

- 7. 6 인천미술관협회 1회 미전
  - 7. 6 이영식 동양화 개인전-인천상공회의소

- 12.14 진재국 동양화전
- 12.20 이상덕 3회 동양화전
- 12.21 염조원 동양화 개인전

**1979년**

- 2.12 인천에 상설전시장 태고화랑 문 열어
- 2.12 향리 인천에 기념관을...
- 5. 9 제1회 예대 경기 동문전
- 5.24 경기 미협전-경인 공보관
- 6.14 박병준, 홍윤표 2인전-은성다방
- 6.18 부천 미협 창립전-부천상공회의소 전시실
- 6.29 인천문화원 주최 전국미술전시
- 7. 3 안양일요화 기획전-안양시 근로자 기획전
- 8.16 장우성 인터뷰
- 9. 6 이당 기념관 개관
- 10.11 가을 수놓을 풍성한 미전
- 10.18 인천서도 회원 전시회
- 10.25 이대회 서회전-인천 상지다방
- 11. 8 일수회 동양화 창립전(사진자료)
- 12. 9 동양화 작품전
- 12.19 이억영 동양화 초대전-인천 국제다방

**1980년**

- 1.28 윤정웅 작품전(불우소년돕기)-수원종로예식장
- 4.12 천영덕 유화전시회-수원 지지대고개
- 4.24 부천미술 특별전시회-부천상공회의소 전시실
- 5.29 경기청년 미술인 회원전(권용택외 18인)-수원 크로바백화점
- 7. 3 양홍남 화백 동양화 개인전-인천상공회의소 전시실

- 7.18 옥인동문화 주간 소장품전시회-성남시청 회의실
- 9.25 제16회 경기도전 개막-입상작 소개 (사진자료)
- 9.29 제16회 경기도전 입상작(사진자료)
- 9.29 제16회 경기도전 금상 조각부분-김신옥
- 10. 9 장영열 개인전-문예진흥원
- 10. 9 염조원 제16회 경기도 미전 입선
- 10. 9 인천 정우회관에서 동양화 5인전
- 10. 9 제16회 경기도전 결산
- 10.16 구상공모전 입상작품 전시회
- 11. 5 경기예술계 수원서 중견작가 초대전
- 11. 8 청소년회 육성기금 마련위해 김영준 화백 작품전-과주농협
- 11.15 진제국 동양화 개인전-인천 상공회의소
- 11.15 이규숙 작품 전시회-부천 상공회의소
- 11.21 24일부처 예총화랑서 김은집 동양화전
- 11.24 제4회 경기청년미술인회원 전시회-팔달빌딩 화랑
- 12. 4 부천 예원화랑 개관기념 서소언 화백 개인전
- 12. 4 80년 미술계 중견작가들의 의욕적 작품활동
- 12. 6 수원성곽 주제로 유화전시회 갖는 천영덕씨 새작품 구상 계획-안양
- 12.11 진제국 화백 특선(제3회 한국미술문화 대상전)
- 12.11 제1회 노동문화재 특선 수채화-이광철
- 12.15 동양화 서예 7인전-부천 예원화랑

**1981년**

- 1.15 현대조각의 문제
- 2.23 강선구, 안희숙 인천 작품 전시장서 결혼전
- 3.19 정경대씨 작품전(바자회겸 작품전)-부천 예원화랑
- 4.16 수원 지역에 첫 화랑식 다방 개관. 도내 미술협회 회원 작품 전시
- 5. 6 동양화 오석환 작가에 대한 기사
- 5.14 인천 출신 작가 5인 참여한 수채화 전시회 열림
- 5.14 진제국씨 특선-한국현대미술전
- 5.14 인천미술 30년 백인전-미협 인천지부
- 5.21 인천에 최초로 상설화랑 개관. 작품 전시 中
- 5.21 국전 입상작가 초청 격력
- 6.11 우문국 화백 인천서 도화전
- 8.20 사진창작단체 별모임 일본서 작품전
- 9.10 제3회 청람묵연 회원전-인천시 공보관 전시장
- 9.24 정정숙 1회 개인전-이당 기념관
- 10. 2 예총 부천지부 6회 종합작품전
- 10. 2 부천 상설미술관 개관
- 10. 8 부천 상설미술관 소식(사진자료)
- 10.15 김영일 화백 1회 동양화전-인천 이당 기념관
- 10.23 지산 서익 한국 호화전-부천 미술관
- 10.29 최병석 개인전-이당 기념관
- 11. 5 도원미술회(부천 향토미술가 모임) 회장에 명종말씨 추대
- 12.21 우당 이길범 첫 개인전-수원 백화점 4층 전시실

## 1982년

- 1.14 홍윤표의 100호 기획전 개최 예정
- 1.22 송탄 미술인협회 창립전시회-송탄시 신장2동 태양다방
- 1.23 동양화 조성락 인터뷰
- 1.28 원강 천영덕 도일전 성공리에 마쳐
2. 4 김정환 화백 개인전-수원백화점 4층 전시실
3. 8 제1회 인천 노동문화제 소식
- 3.10 제2회 경기 노동문화제 개막
- 3.11 안양시 소극장 사랑서 수채화 전시 (박영성, 홍사영, 홍윤표, 오용길, 이종무, 김선교, 이천명 등)
4. 8 제36회 목우회 수원전-수원 크로바백화점
- 4.16 인천시 미술전람회 개최예정
5. 6 제1회 현대미술의 조명, 인천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5. 6 몽마르뜨 화랑 김선자 대표 인터뷰
5. 8 평택 미협창립전-평택 문화원 전시실
- 5.22 수원 사진작가 모임 별모임 11회 전람회-수원백화점 전시실
- 5.28 한국화 초대전-인천 예지화랑
6. 1 인천의 유일한 동양화모임인 일수회 한국화초대전이 인천 예지화랑서 개최
6. 7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경애 작품전이 동덕미술관에서 개최
- 6.16 박병준 한국화전-부천 예원화랑
- 6.21 동양화 초대전-성남 문화원
- 6.22 제18회 경기도 미술전람회-수원 매산 국민학교
- 6.25 인천시 주최 제1회 미술전람회 입상자 발표
- 6.29 인천미전 금상수상자 최천수 인터뷰
- 6.30 미추홀 조각회-인천 몽마르뜨 화랑 \*인천교대 조소반 졸업생 모임
- 7.10 제2회 경인수채화가회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 8.18 미에로 회원전-인천 정우회관 전시실 \*인천지역 젊은미술인 모임
- 8.24 인천의 박병준 미니멀아트전이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개최
9. 2 제2회 중대 동문회전-수원쇼팽전시실
9. 9 경인예대동문회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 9.10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옥순 작품전-서울 덕수화랑
- 9.14 경기도미전 수상자 프로필(사진자료)
- 9.17 도추천 작가 권용택 소개
- 9.22 박영백 첫 개인전 소개
- 9.29 제7회 향미회 회원전 \*수원농고 미술부 동문모임
10. 9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최희수/동양화 오용길
- 10.12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이길범
- 10.13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오석환
- 10.14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이형재
- 10.15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이종무
- 10.16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강선구
- 10.20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장주봉
- 10.25 이상덕 개인전-부천 미술관
11. 1 홍윤표 개인전-인천 몽마르뜨화랑
11. 3 노희정 박영동 2인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11. 6 장주봉 작품전 리뷰
- 11.20 이철명 수채화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 11.26 제18회 경기도 미술전람회 수상 작품전-부천미술관
- 12.11 13인 그룹 성목회 창립전-수원쇼팽 전시실(이길범(회장), 조성락, 기노

철, 심세호, 김용근, 김정은, 김정환, 육동명, 이선열, 이승영, 이재홍, 최중대, 홍수선)

- 12.15 시민 속에 자리 잡는 부천예술-82년을 마무리하면서
- 12.15 제2회 송탄 미술인협회전-송탄 중앙라이온스 사무실

**1983년**

- 1.20 독립기념관 건립모급 미술전 성과부진
- 2. 1 삼성미술문화재단 입상자발표
- 3.19 성남 서화가협회 회원전 개최-성남 시청
- 3.25 인천지역 제물포 예술제 미술 분야 7개 부문 나누어 실시
- 4.29 이종무 작품전-인천 예지화랑
- 5. 2 강화문화원 제7회 향토서예전
- 5.16 미협 인천지부와 대만 이랑현 미협 교류전
- 5.20 제3회 예대동문회전-인천 예지화랑
- 5.21 의정부 교도소 재소자가 한국미술대전 입선
- 5.21 양평문화원 개원
- 5.23 인천여류작가회 첫 전시회-이당 기념관
- 5.26 월촌 김성용 화백 한국화 개인전-부천 문화호텔
- 6. 4 관악미술전람회-안양 문화원
- 6.25 경인수채가협회 신입회장 홍윤표
- 7. 7 김세호 이기왕 2인전-수원백화점 전시실
- 7. 8 시작회 창립전-수원지역 더 젊은 미술인 8인(경홍수, 김석환, 김성배, 김중, 남부희, 백종광, 이석기, 이윤숙)
- 7.14 이병준 화백 개인전-부천 미술관
- 8.18 미에로 회원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 8.25 정두영 개인전-공간 미술관
- 8.29 진열대서 낮잠자는 작품들-인천 시내 화랑 표구사 경영난으로 침체
- 9.16 제19회 경기미술대전 대상-서예 한갑수
- 9.26 제2회 인천미술대전 대상작 '도시환경디자인'
- 9.27 제2회 인천미전 최우수 작품(사진자료)
- 9.27 제2회 인천미전 최우수 작품전 수상자 관련 기사
- 9.29 제2회 인천미술대전 총결산
- 10.12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오용길, 서양화 최희수
- 10.13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이경훈
- 10.14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이길범
- 10.15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박영성, 동양화 주수일
- 10.17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이승영, 서양화 홍윤표
- 10.18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이지훈, 서양화 이종학
- 10.19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이재호
- 10.20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우문국
- 10.31 41회 인천 미협전-이당 기념관
- 11. 1 노희정 개인전(인천 향토 서양화가) -동덕미술관
- 11. 8 태권도인 박제현 서화작품전 열어 화제
- 11.12 홍윤표 작품전-인천 예지화랑
- 11.17 주수일 작품전
- 12.21 되돌아본 83년-미술계 결산

**1984년**

- 2. 2 작품의 산실-동양화가 이선열
- 2. 2 겨울 대성리 48인전-가평 북한강변
- 2.17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김교선
- 3. 8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김옥순
- 3.19 작품의 산실-조각가 김왕현
- 3.26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조성락
- 4.12 작품의 산실-동양화가 강선구
- 4.14 새봄 맞아 인천 미술계 활기-5월말  
까지 10여개 전시회 열려
- 4.16 작품의 산실-동양화가 장주봉
- 5.21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박영복
- 5.30 대학의 지역문화 수용계기 수원미  
협회원 초대전-아주대서
- 6. 1 경기청년미술작가 제10회 회원전-  
수원 크로바 전시장
- 6. 7 인천사생회 첫 번째 전시회
- 6.15 새발죽 평택미협 회원전-평택 문화  
원
- 6.25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최필규
- 6.27 시작회 회원전-수원 크로바 화랑
- 7. 3 향토작가초대전-인천 공보전시실
- 7. 4 제2회 한중미술작품교류전(미협 인  
천지부)
- 7.12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권용택
- 7.30 작품의 산실-서예가 강란주
- 8.13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기노철
- 8.23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최희수
- 8.27 제3회 인천미술대전 총결산-중앙미  
전에 손색없는 수준
- 9. 3 작품의 산실-동양화가 이승영
- 9.10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안영
- 9.14 작품의 산실-조각가 이진훈
- 10. 8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오영길
- 10.12 제5회 필맥회 회원전-수원 크로바

## 백화점

- 10.15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이완수
- 10.22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이관원
- 10.24 오영애 개인전-인천 공보관
- 10.25 김교선 개인전-수원 크로바 전시장
- 10.27 한국화가 이지훈 개인전-인천시 공  
보관
- 10.30 지방문화 진흥기금마련 서예미술  
공예품 전시회
- 11. 2 문예기금조성 한국화 초대전-평택  
문화원
- 11. 8 한국수채화협회 경인회전-인천 문  
화회관 전시장
- 11.15 제3회 성목회 회원전-수원 크로바  
전시장
- 11.19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이상덕
- 11.22 주수일-현대차원전에 출품
- 11.29 홍윤표 개인전-인천정우회관
- 12. 5 한국서화전-안성읍 곰다방
- 12.15 제43회 인천미협회원전-인천 문화  
회관
- 12.17 부천미술의 오늘전(미협부천지부)
- 12.18 제1회 인천조각전-인천문화회관 야  
외전시장
- 12.20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이연수
- 12.27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우창훈

**1985년**

- 1.10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김은집
- 1.14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송창
- 1.19 청목회 창립전-안양예술관
- 1.23 한길동인회전(인천,수원,부천,안양  
중견작가 모임)-부천 광장 미술관
- 1.26 미협 경기도지부 미술지 발행키로
- 2. 7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서소연

- 2.11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김성배
- 2.14 서소원 개인전-부천 광장쇼핑 전시장
- 3. 4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김학두
- 3. 5 제1회 도둑전(고교졸업한 아마추어 13인)-안성농협
- 3.12 제5회 노동문화전-수원 백화점 전시실
- 3.16 제1회 선미술상 수상작가 한국화 오용길씨등의 초대전
- 3.19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 프로필-동양화가 이삼영, 서양화가 최천수
- 3.20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 프로필-동양화가 조성락, 동양화가 홍사영, 서양화가 연해국, 서양화가 김교선
- 3.21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 프로필-동양화가 정순일, 서양화가 이계송
- 3.21 이상민 동양화 소품전-안양미술관
- 3.25 작품의 산실-한국화가 홍사영
- 3.29 강장수 서양화전-인천 예지화랑
- 4. 4 작품의 산실-서양화가 백일현
- 4.17 한국화가 기노철 제5회 전시회-인천 공보관 전시실
- 4.18 한국화가 황찬길 자선전
- 4.25 경기미협전 성화-성남시민회관
- 5. 8 인천대미술학과 교수작품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5.15 진재국 개인전-인천 상공회의소 지하다방
- 5.18 김학두 회갑미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전시실
- 5.18 장정웅 한국화전-부천 광장쇼핑센터
- 5.22 오용진의 중진작가 작품소장전
- 5.22 이윤이 개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5.23 김종섭 동양화전-수원 공간사랑
- 5.28 경기청년작가회 미술작품전-수원 크로바 전시장
- 5.28 도원미술전-부천 광장쇼핑
- 6. 3 작품의 산실-화가 이경근
- 6. 5 이종학 회갑전-진화랑
- 6. 8 치경희 한국화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6.11 선묵현 한국화 발표전-부천 광장쇼핑센터
- 6.12 제2회 도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6.18 인천 지평동인 창립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6.22 수채화협회 경인지회 회원전-부천 아트하우스 화랑
- 6.22 미술교사 작품전-부천 광장쇼핑센터
- 6.25 일구팔이일회 제3회 회원전-수원 크로바전시실
- 7. 4 송탄미술대전-송탄 시문화원
- 7. 8 제21회 경기미술대전 심사위원평
- 7.11 인천 수채화동인 2회 외원전-인천 공보관
- 7.13 이상훈 동양화전-이천읍 양정빌딩
- 7.17 김인환, 경기미술대전을 보고
- 7.17 민근기 작품전-남양주 구리문화원
- 7.18 예대 동문화(서라벌예대출신)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7.29 동인들-수원일구팔이일이
- 7.31 장안실전 졸업생 7인 작품전-hot work 실험전
- 8. 7 인천미술대전 9월 17일 개최
- 8.10 추인전(인천지역 추계예대 동문모임)-인천 공보관 전시실
- 8.20 동인들-인천사생회
- 8.24 제44회 인천미술협회전-인천 문화원
- 8.27 동인들-수원 미술동인 시작회
- 8.30 양의석 개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9. 2 동인들-한국 수채화협회 경인지회

- 9.10 인천 미술대전 입상작 발표
- 9.12 제4회 인천 미술대전 결산
- 9.14 노희정 개인전-인천 예지화랑
- 9.26 김영일 개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9.27 홍대 미대 동문전-인천 몽마르뜨 화랑
- 10. 1 이윤숙 조각전(일구팔이일이, 시작회 회원)-서울 청년미술관
- 10. 2 부천미협회원전-부천광장 쇼펍미술관
- 10.10 제5회 삼락동인전-인천 예지화랑
- 10.11 정순일 개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10.12 제4회 성목회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10.17 서양화가 황병식 개인전(미협인천시 지부장)-서울 동덕미술관
- 10.18 양홍남 개인전-부천 광장 쇼펍몰
- 10.22 자선미전-의정부 그랜드 호텔
- 10.23 미술 동호인 그룹 85전, 인천 예지화랑
- 10.24 제 3회 인천 사생회전-예지화랑
- 10.25 유대석 동양화전-동두천 삼미회관
- 10.26 제6회 필맥회원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10.31 김교선 장상숙 도내 첫 부부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전시실
- 11. 1 김기월 인천 화나로 화랑서 한국화전/서양화가 강장수 예지화랑서 3회개인전
- 11. 4 포시즌 창립전-안양미술관
- 11. 6 인천지역 한국화 그룹 일수회 그룹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11. 9 화성문화원초대작가전-오산단위농협 2층전시실
- 11.12 이형재 개인전
- 11.20 인천서 전시장 개관-석정화랑 대표 이상국 인터뷰
- 11.22 정해덕 개인전-안양미술관

- 11.25 한국수채화협회 경인회-석정화랑 개관기념전
- 11.26 김창배 개인전-인천 정우회관
- 11.28 제5회 시작회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12. 4 인천 예술인들 애매모호한 문화상 심사에 반발
- 12.11 1985년 인천미술 결산
- 12.14 수원일요화가회전(1983년 창립)

## 1986년

- 1.17 경기청년 미술작가회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1.30 김지현 개인전-안양미술관
- 2.12 동인들-청목회(1985년 1월 5일 안양에서 창립, 정해덕, 천기병, 주운황, 김수현, 이강식)
- 2.14 제23회 목우회 공모전 정희남씨 수상
- 2.19 동인들-작업동인(1984년 부천에서 창립, 김하룡, 고기범, 추연공, 고기범, 고주몽, 김하룡, 박광호, 추연공)
- 2.19 미협 인천지부장 인터뷰-김재은
- 2.28 제5회 경인일보초대작가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3. 1 인천출신 미술평론가-이경성 소개
- 3.15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노희정, 동양화 오용길
- 3.17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이상덕, 동양화 염조원
- 3.19 동두천 일요미술회-풍경화 전시회
- 3.19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최희수, 동양화 이길범
- 3.20 32인전-고양군 일산읍 백마 화사랑
- 3.20 경인일보 초대작가들 소개(오석환, 이종학, 정재홍, 장인식, 오용길, 이수덕, 홍승인)-향토미술 맥 잇는



- 창작활동 활발
- 3.31 초대작가전시회-용인문화원
  - 4. 1 부천에서 도내 첫 테라코타전-부천  
광장쇼펍센터
  - 4. 5 인천지역에 개인화랑 잇달아 문 열어
  - 4. 8 이기철 개인전-수원 크로바백화점
  - 4.18 경인 수채화 협회 수채화 작품전-  
인천시 공보관 전시실
  - 4.30 복사골 미술대전-부천 광장미술관/  
이원중 개인전-인천 아리아스 화랑
  - 5. 5 인천지역 젊은 한국화작가 모임 치경  
회 제2회 한국화전-인천 석정화랑
  - 5. 5 인천대 교수작품전-인천 공보관 전  
시실
  - 5. 8 제6회 예대 동문전-인천 공보관 전  
시실
  - 5.10 오석환 개인전-인천 아리아스 화랑
  - 5.14 인천 서예동인 그룹 양소현 회원전  
-인천 아리아스 화랑
  - 5.19 장정웅 개인전-부천 광장쇼펍센터
  - 5.20 인천 각종 전시회 잇달아
  - 5.20 정영수 초대전-여주 군민회관 전시실
  - 5.22 서익 호랑이 한국화전-신한은행 인  
천지점
  - 5.24 연해국 개인전-인천 석정화랑
  - 5.24 강장수 발표전 인천 예지화랑
  - 5.31 경기미술대전 개최
  - 6. 4 장주봉 개인전-인천 경인미술관
  - 6. 4 수원 크로바 백화점에서 개인전 갖  
는 박영복 인터뷰
  - 6. 6 선목회 한국화전-부천 광장쇼펍 미  
술관
  - 6.10 제3회 인천대 미술학과 동양화 동  
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6.11 인천화랑 개관기념 초대전-인천화랑
  - 6.18 제2회 지평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6.19 인천 예일화랑 개관
  - 6.23 미술계 소식-수원 미술계 불황
  - 6.24 이인호 화백 자선 공연-의정부 시  
민회관
  - 7. 3 한길회 초대전-인천 예일화랑 \*인  
천·수원·부천·안양·평택 지역  
화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그룹
  - 7.11 흥익미대 동문회전-인천 예일화랑
  - 7.15 인천·대구 청년작가 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 7.19 인터뷰, 수원 공간사랑에 소품전  
갖는 서양화가 정남영
  - 8.21 동양화가 장주봉·서양화가 최천  
수 2인전-인천 예일화랑
  - 8.22 경기미전 2차 운영위원회-초대작가  
추천규칙등 논의
  - 8.22 인천청년작가회 창립미전 개최-인  
천시 문화회관 전시실
  - 8.25 경기 미술대전 규칙개정 움직임-초  
대작가 낙하산식 선정 배제
  - 9. 5 인천시 미전 개최 차질
  - 9.11 제22회 경기미전 수상자 인터뷰-서  
양화 서상순, 조각 탁명욱
  - 9.11 제22회 경기미전 총평
  - 9.11 제22회 경기미전 영광의 작품들(사  
진자료)
  - 10. 2 한일창조미술교류회 주최 한일 교  
류전-인천 석정화랑
  - 10. 9 인천미전 초대작가 추천작가전-인  
천시 문화회관 전시실
  - 10. 9 남하 김석영 화백 8회 개인전-수원  
크로바 전시장
  - 10.10 제10회 일수회 회원전-인천 석정화  
랑 \*인천·경기지역 한국화 모임
  - 10.13 제5회 대한민국 미전 대상 수상자  
인터뷰(사진자료)

- 10.14 제5회 인천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10.16 인천 미술대전 부분별 최우수작(사진자료)
- 10.16 인천 미술대전 결산
- 10.17 인천미전 개막식-인천시 문화회관 전시실
- 10.24 작업동인 작품전-인천 예일화랑
- 10.28 김종섭 개인전-수원 크로바백화점
- 11.12 윤곡 황찬길 자선작품전-부천 상공회의소 대강당
- 11.13 안양 일요화가회 작품전-안양 미술관
- 11.13 부천미협 창립10주년 기념전-부천 광장미술관 \*소개
- 11.14 한중미술작품 교류 인천중진작가 참여
- 11.15 이대교 한국화개인전-성남 한림백화점 4층 문화홀
- 11.19 박영동 개인전-인천 예지화랑
- 11.25 성남시 미술교사회 조형 작가전-성남 한림백화점
- 11.25 유명작가 초대전-양평 농협군지부 전시실
- 12. 2 미술교사작품전-부천 광장미술관
- 12. 4 제3회 표현회 작품전-인천 예일화랑 \*인천 서양화 그룹
- 12. 4 수원 일요화가회 회원전-수원 선화랑
- 12.13 한국 수채화협회 경인회전-인천 예일화랑
- 12.19 86 문화계 결산-인천미술
- 12.19 목창선 화백 이웃돕기 자선전-인천 지구청년회의소 회관
- 12.22 수원 상업미술가 SID전-수원 크로바백화점
- 12.23 수원 미술교육자전-수원 선화랑
- 12.29 기전수채화작품전-수원 선화랑 \*도내 최초의 수채화전

## 1987년

- 1.15 제8회 화흥서우회전-수원 크로바백화점
- 2.26 제7회 시작회 작품전시회-수원 크로바백화점
- 2.26 강화군 미술교사 작품전-문화원
- 3.13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프로필-서양화 이종무
- 3.14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동양화 양홍남
- 3.16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이형재/동양화 이지훈
- 3.17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박인숙
- 3.18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신동원/서양화 남관원/서양화 권용택
- 3.19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서양화 최필규/한국화 기노철
- 3.20 경인일보 초대작가 프로필-한국화 김세호
- 4.24 인천 한서빌딩 안에 상설미술관 개설-개관전으로 황병식 초대전
- 5. 1 김형주 서양화 초대전-수원 선화랑
- 5. 4 문예진흥미술전-인천 문화회관
- 5.22 제3회 부천 선목회원전-부천 광장쇼핑 미술관
- 5.29 오늘의 인천 미술전-인천 문화회관 전시실
- 6. 5 서양화 12인 작품전-안양 본백화점 전시실
- 6.13 제5회 인천 여류작가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7. 8 제2회 인천 조각 12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7.14 기노철 선면 보은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8.19 한하나 창립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인천교대 서양화 동인
- 8.21 경기 인천 미술대전 잇달아
- 9. 3 제6회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전-인천 문화회관
- 9. 8 인천 경기미술대전 부문별 작품접수 현황
- 9.15 제23회 경기미술대전 입상작(사진자료)
- 9.15 인천홍대미대 동문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9.17 인천 미술대전 개막
- 9.30 제2회 성남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10.23 김진희 첫 작품전-경인 미술관
- 10.27 노희정 개인전-경인 미술관
- 10.28 서양화 5인전-인천 공보관 \*인천지역활동작가 모임
- 11.10 인천중·제물포고교 동문 미술전
- 11.20 안성군 미술교사회 전시회-안성 양홍분소 회의실
- 11.24 김창배 풍속화전-안양 벽산미술관
- 11.24 강란주-한국화 작품전-인천 담빈화랑
- 12. 1 제6회 성목회전-수원 Y 하우스
- 12. 2 동두천 미술회 회원전-동두천 생연3동사무소 회실
- 12. 4 성목회 작품전-수원 Y 하우스
- 12. 7 부천 카톨릭미술협회 창립전-부천 로얄백화점 미술관
- 12.14 파도새 동인전-인천 북카페 아트
- 12.16 87-시도미술대전수상작품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 12.17 미술학원장 초대전-인천 한서화랑
- 12.19 서양화가 권용택 아주대 달력제작

- 12.22 수성여중 화우회전-수원 크로바백화점

**1988년**

- 1. 5 올해 경기미술계 활기 떨 듯-단체전·공모전 잇달아 개최
- 1.19 겨울·대성리·65인전 개최-북한강 화랑포 강변서
- 1.20 지역문화 서울서 선보인다, 경인작가초대전-경인작가초대전
- 1.20 백창근 동양화전-인천 카톨릭회관
- 1.25 지역작가 작품 한자리에, 경인초대작가전 개막
- 2. 5 강대철 작품전-이천문화원 전시실
- 3. 5 청모임회 창립전-인천문화회관 전시실 \*인천출신 미술학도 동호인그룹
- 3. 7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조성락·홍사영·오용길
- 3. 8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강선구·장정웅·염조원
- 3.11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주수일·최천수
- 3.12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이종무·장주봉
- 3.14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연해국
- 3.15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이제호·박인숙·최희수
- 3.16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이윤숙·강대철
- 3.17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조성호
- 3.18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남부희

- 3.19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작가프로필-김순호·김광현
- 3.23 순수미술단체 예인회 창립 \*인천지역 지역미술인 모임
- 3.25 한국화가 오용길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4. 1 오용길 개인전 리뷰-경인일보 조희문 차장
4. 5 미술인 5인(김성로·김성배·김철규·이운숙·전원길) 수원문화원서 그룹전
- 4.12 경기미전 7개 부문 공모
- 4.15 제5회 복사골 미술대전 수상작 발표(사진자료)
- 4.15 홍용택-인천 한서화랑/강장수-서울 우정미술관/장영국-수원 Y 하우스
5. 2 삼락동인회 제8회 전시회-인천 공보관 전시실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국화, 서예작가들의 동호인
5. 9 홍죽 김철홍 프로필
5. 9 예인회 창립전-인천문화회관
5. 9 인천 지방노동문화제-배상곤 등 5명 특선
- 5.17 최길순화백 심장병 돕기 자선전 개최
6. 2 선목회 한국화전-부천 로얄백화점
6. 2 신기회 작품전-예당미술관
6. 3 경인수채화작가전-수원 문화원 전시관
6. 7 양의석 작품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6.10 삶의 터 전시회-부천 미술관/성백주 작품전-수원 Y 하우스 갤러리
- 6.17 삶의 터 전시회-부천 미술관
- 6.20 서라벌 중앙예대 인천 부천동문전-인천 한서화랑
- 6.22 현대미술상황 88-인천전-인천 지식정화랑
- 6.24 제2회 목인회전-인천 석정화랑/유형회 창립전시회-안양 벽산쇼핑 4층 문화홀 \*안양미협서양분과회 주축
- 6.29 표현회 작품전-인천 제1공보관 \*올바른 시각의 표현과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한국화·서양화 모임
7. 8 경기미전 대상 수상자 안병철 인터뷰(사진자료)
8. 4 인천미술동인 '지평' 서울전-서울 그림마당 민
- 8.12 권용택 개인전-서울 신세계백화점
- 8.19 권용택 개인전 리뷰
- 8.26 시작85 세 번째 작품전-수원 문화원 \*경기대 회화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모임
9. 8 인천 미전 수상작(사진자료)
- 9.15 부천 미협전-부천시민회관
- 9.23 제7회 인천 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문화회관 전시실
10. 5 박영복·이선열 초대작품전-수원 크로바백화점
10. 7 신체장애 화가 이행우 소개
10. 7 박영복·이선열 초대작품전-수원 크로바백화점
- 10.13 제12회 일수회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10.14 인천 금당화랑 개관 기념 노희정 초대전
- 10.21 추연공 서양화전-인천 나라 갤러리
- 10.24 주수일 작품전-롯데화랑
- 10.25 제7회 일구팔이일이회 미술작품전-수원문화원
11. 5 인천청년작가회 제4회 작품전-인천 문화회관
11. 5 오늘의 인천미술전-인천 나라갤러리
11. 5 경기조각회 창립전-수원문화원 전시실

- 11. 9 이성미작품전-서울 윤갤러리/표현회 작품전-인천 공보관 전시실/김청홍전-의정부 그랜드호텔
- 11.11 황병식 소품전-인천 한서화랑
- 11.15 안양일요화가회 창립 10주년 작품전/박득순 개인전-안양 벽산쇼핑센터
- 11.16 서양화가 김교선·장상숙 제2회 부부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11.18 부천시 미술교사회 주최 제6회 미술교사 작품전-부천 로얄백화점
- 11.21 경기조각회 창립전-수원문화원
- 11.23 경기조각회 창립전 리뷰
- 11.25 고기범 개인전-부천 로얄미술관
- 11.29 최천수 작품전-인천 공보관 전시실
- 12. 1 도원미술사생회전-부천 로얄미술관
- 12. 2 경기현대작가회 제2회작품전/인천중·재물포교동문 미술전-서울 백송화랑
- 12. 3 경기현대작가회 리뷰
- 12. 6 경기미협회원전-수원 선화랑
- 12. 7 경기미협회원전 리뷰
- 12. 8 경기예술상 수상자 3명 선정-미술김학두
- 12.14 왕현 조각전-경인 미술관
- 12.16 제4회 화우회 작품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수원여중 여교사 미술모임
- 12.23 수원 일요화가회 제6회 작품전-수원 크로바 백화점
- 12.24 1988년 경기미술결산
- 12.28 한길회 친선교류전-안양미술관 \*경기인천지역 중견미술인 친선교류모임
- 12.29 1988년 인천미술결산

**1989년**

- 1.13 제3회 토방회 작품전-인사동 관훈미술관 \*인천지역 교사로 활동하는 공주사대동문모임
- 1.20 안양청년미술협회 첫 전시, 365일전-안양미술관
- 2.10 안양일요화가회, 푸켓 스테지 9인전, 안양미술관
- 2.20 수원미협 주관으로 수원사생회 창립/수원대 미술대학 서양화가 1기생 작품전, 활짝열린창전, 수원문화원
- 3. 1 제8회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 3. 6 수원 크로바백화점 크로바화랑 존폐기회에
- 3.15 한국화 오늘과 내일전에 부천의 강선구 등이 참가-워커힐 미술관
- 3.17 수원화단에 새바람-민중미술 리얼리즘 활동 본격화
- 3.21 경기미술대전 요강확정
- 3.24 이상민 동양화전-안양미술관
- 4. 5 경인일보 초대작가전 소식
- 4. 6 인천지역미술인 모임 채목회 세 번째 작품전-이천문화원
- 4.11 경기향토회화작가작품초대전-수원 선화랑
- 4.14 리뷰, 최희수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 4.21 제6회 복사골 경인미술대전 결산 및 프로필(사진자료)
- 4.24 제2회 유형회 작품전-안양미술관 \*안양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서양화모임
- 5.18 인천 여류작가전-인천 나라화랑/인천 수채화동인소품전-인천 대한화랑(대한상호신용금고 전시장)

- 5.19 조성락 한국화전-평택 평택우체국 전시실
- 5.23 인천 미술계 소식-초여름 화랑가 전시회 활발
- 5.29 광고미술회전-수원 선화랑 \*수원농립고 미술인 모임
- 6.14 제25회 경기미술대전 수상작 및 총평(사진자료)
- 6.15 김규창 수채화 개인전 인터뷰
- 6.16 성목회 한국화전-로얄백화점 미술관
- 6.21 박영동 소품전-인천 대한화랑
- 6.27 리뷰, 홍용택 작품전-부천 로얄백화점
- 7.26 부채그림전-인천 한서화랑
- 8.23 인천미술대전 개최요강 확정
- 9.21 롯데미술관서 개인전 갖는 홍윤표 작가 소개-인천서 20여년 꾸준한 작품활동
- 9.26 향토미술인 작품한자리에-용인 문예회관 전시관 개관 기념전
- 9.28 향토미술계 가을작품전 다채-도내 5개지역서 미협회원초대전 열려
- 9.28 제4회 인천조각21인전-인천시 제1공보관
- 9.29 미협 경기도지부 회원전-수원, 안양, 부천, 성남
- 10. 4 수원 일요화가회, 꽃그림 회원전-수원 Y 하우스
- 10.12 인천 미술대전 초대·추천 작가전-인천 문화회관
- 10.20 부천에서 활동하는 최효원 첫 유화 개인전-서울 도올갤러리
- 10.23 이진록 수채화 첫개인전-평택 중앙새마을금고
- 10.23 인천미술대전 수상작 총평 및 지상전(사진자료)

- 11. 1 제2회 덩불 초상회 회원전-수원 크로바백화점 전시실
- 12. 5 높새회 한국화 창립전-인천 석정화랑 \*인천시내 동양화 작가모임
- 12. 8 성목회 제8회 회원전-수원 정화랑/김수현·최현식전-수원 선화랑
- 12.13 인천 향토작가회 창립전-인천 한서화랑
- 12.15 부천의 한국화가 장정웅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부천시민회관
- 12.27 1989년 인천미술계 결산

## 1990년

- 1.18 수원 미술가 5인의 다섯칸 전-수원 선화랑
- 3.17 황상근 작품전-이천 군민회관
- 3.21 수원 크로바 화랑 곧 문닫는다
- 3.31 경인일보 초대 작가전 개최
- 4. 2 경기지역 미술인들 소개
- 4.17 경인미술대상 수상자 인터뷰
- 4.20 신예작가설치전, 나비뿌리전, 수원 문화원
- 4.20 유형회 세 번째 전시회-안양미술관
- 5.22 경기미술창간
- 5.29 수원지역미술인모임 새벽, 정치·정치..정치...전-수원 선화랑
- 5.30 제26회 경기미술대전 총평
- 6. 4 인천 신세대 작가 9명 지평전-인천 나라화랑 \*1985년 결성된 지평회
- 6. 5 수원 젊은작가 모임, 시맥 창립전-수원 선화랑(경수미, 박민경, 박용국, 안택근, 유미옥, 유동일, 이득현, 장은주, 최세경, 최지희, 하선화 등 15인)
- 6.20 프리뷰, 인천 정기조각전-인천문

- 화회관
- 7. 4 프리뷰, 제1회 인천현대미술전-향도미술 현주소 한눈에
- 8. 2 수원활동미술인 8인 좌담(월간미술)
- 8.20 권용택 수원서울서 전시
- 9. 3 제9회 경인미술대전 입상작 시상전 및 총평
- 10.18 이석기 개인전-수원 선화랑
- 10.23 신송학 동양화 개인전-송탄시 문화회관
- 11. 3 수원미술동호인회 창립전-수원 정화랑 \*중견이상의 수원지역미술인 모임
- 11. 6 제2회 경기미술대전 추천·초대작가전 개최-수원 선화랑
- 11.16 부천 미술동인 삶의터 소개
- 12.12 강란주 개인전-인천 나라화랑
- 12.21 화흥화우회 12회 회원전-수원정화랑

**1991년**

- 4. 9 수원서양화가 15인전-갤러리 등잔-작가 스스로 가격을 정해 눈길
- 4.23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수원 선화랑 (주영광, 권용택, 김영기, 이주영)
- 4.30 움직이는 미술관 안양에 이어 인천, 수원서 전시 개최
- 5.10 인천 아마추어 화가 원용연-사라진 향도명소 화폭에
- 5.14 프리뷰, 인천여류작가전-인천나라화랑
- 5.18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조성호 롯데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
- 6.17 인천미술대전 입상작 전시

- 8.12 미술교류전-인천문화회관
- 8.20 그림갤러리 개관전
- 9.25 농아작가 이해연-인천 나라화랑
- 10. 9 신종택 개인전-인천월미도 문화의거리
- 10.12 인천 서양화가 초대전
- 10.29 경기미협 회원초대전
- 11. 4 프리뷰, 남부회 첫개인전 -수원 선화랑
- 11.11 경기지역 중견작가 초대전-도문화회관
- 12. 3 리뷰, 홍윤표 13번째 개인전-인천가가갤러리
- 12. 4 수원에 갤러리 '이음' 개관

**1992년**

- 1. 6 오늘의 작가-이영환
- 1. 9 92 대성리 바깥미술전
- 1.16 인천시민회관 전시관 초대전/한국화가 조성란 개인전/제6회 한하나전-안양문예회관 전시실 \*인천교대 미술교육과 서양화 동문
- 1.21 불교미술 한자리에-불교박물관 개관(여주)
- 1.27 인천에 첫 사설미술관 생긴다-송암문화재단이 운영
- 1.28 14인 동문, '92두상 조소전'-인천주안도서관 \*인천교대 조소동문회 주최
- 1.30 제15회 인천 청년작가전-인천 현대백화점 부평점 현대아트홀
- 2.15 현대판화-드로잉 전-수원 장안미술관 \*컴아트그룹과 경기현대작가회 회원
- 2.20 내고장 예술인-서양화가 朴致聲

3. 4 이주영씨 새희장에 선임-수원 미술협 정기총회
- 3.12 경기미술대전 요강확정
- 3.12 서양화가 박영복 개인전-수원 이음갤러리
4. 2 김교선·장상숙 이인전-수원 뉴코아 이벤트 홀
- 4.11 시택 92기획전, '인간으로부터'-수원 이음 갤러리
- 4.14 미협 의정부지부 주최 제1회 중견작가초대전-의정부 시전시장 개관기념
- 4.13 리뷰, 김교선·장상숙 작품전
- 4.16 김철규 수채화전-남갤러리/김주영 수채화전-수원 선화랑
- 4.16 김홍도의 도시 안산 문화가꾸기 한창
- 4.17 인천 여류작가회 정기 미술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 4.21 안성 청학대 예술관 개관 1주년 전, 봄-7인 신작모음전
- 4.29 내고장 미술인-서양화가 최효원
- 4.30 강승희·김찬일 2인 판화전-수원 남갤러리
5. 2 수원여중 김주영 교사 첫 개인전-수원 선화랑
5. 6 김상희 개인전-인천시민회관 전시실/이관수 한국화전인천 가가갤러리
- 5.14 인천작가 이황은 개인전-서울 예향갤러리/이정·장주봉 작품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 5.16 경기대 동문 현대미술12인전-수원 이음갤러리
- 5.20 강승희·김찬일 판화전-수원 남갤러리
- 5.22 내고장 예술인-서양화가 유봉현
- 5.23 수미협 제2회 정기전-수원 선화랑
- 5.25 정지석 서양화전-안산문화회전시장
- 5.27 인천미술대전 대상작 시상전
- 5.28 제2회 수원구상작가회전-수원 뉴코아 백화점
- 5.30 서양화가 강하진작품전-인천 해반갤러리
6. 4 경기미술대전 총평
- 6.17 평택미술인들을 위한 전시공간 마련-전시장 베아트리체 탄생
- 6.18 미술협 이천지부 창립-초대회장에 이영환
- 6.19 경기미술대전 입상작품전-경기도 문화예술회관전시장
- 6.19 안양의 미술동인 '우리들의 땅' 제3회 정기전-안양문화회관 전시실
- 6.19 인천의 중진화가 양의석 개인전-인천 시민회관전시실
- 6.26 이천 한국화가들을 위한 작품전인 채목을 위한 표현전-이천 군민회관
- 6.26 인천 문화회관 개관기념 추천 작가전-인천 문화회관 전시실
- 6.27 지역작가 미전-의정부시 상설전시장
7. 1 서양화가 최희정 첫 개인전-수원 선화랑·서울 인테코화랑
7. 3 인천미협내분 심각
- 7.10 수원에 갤러리 낮은 언덕 문열어 \* 미술의 대중화 모색
- 7.10 인천 지역출신 7인의 현대 한국화 작가들의 '인천 2천년전'-인천 가가갤러리
- 7.13 서양화가 박영복씨의 해외전
- 7.15 미술협 이천지부 인준기념, '92상황전'-인천 군민회관 전시실
- 7.16 인천 청년작가전-인천 가가갤러리
- 7.17 서양화가 박기수 개인전-부천 홍보



- 전시관
- 7.17 이민 개인전-수원 장안미술관
  - 7.23 컴아트그룹 교감예술제 지상토론
  - 7.24 인천사생회 초대전-인천 현대백화점/제8회 인천 조각회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 7.25 한국수채화작가회 북인천회 작품 교류전
  - 7.27 미술전문대행 '갤러리바다' 인천서 첫 개설
  - 8.13 현대한국화 인천전-인천 해반갤러리
  - 8.21 경기현대작가전-평택, 전시공간 베아뜨리체
  - 8.28 안양에 첫 순수 전시공간 '소해미술관' 개관
  - 8.31 인천의 여류 한국화작가 강란주 작품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 8.31 종군위안부전-인천 가가갤러리
  - 9. 2 한국 근대미학의 선구자 고유섭-9월의 문화인물
  - 9. 4 현대 회화의 단면전-인천 부평 동아시티 백화점 동아미술관
  - 9.14 9회 경인미술대전 최우수작 지상전
  - 9.16 제1회 수원예술제
  - 9.18 석도열 스님 개인전-서울 단성 갤러리
  - 9.21 수원미술인협의회 제2회 환경미술전-수원 선화랑
  - 9.23 수원에 서양화 전문화랑 '갤러리 수원' 개관
  - 9.23 시택회 제3회 회원전, 상황과 의식의 흐름-수원 장안미술관
  - 9.23 예토회 회원전-부천시 홍보전시관 \*부천시역 40대 후반 예술인
  - 9.23 미협 안양지부 주최 제1회 포도미술제-안양문화회관/서양화가 권용택 갤러리 이음 초대전
  - 9.25 프리뷰, 권용택 작품전
  - 10. 3 리뷰, 권용택 작품전 (민중 모습 꽃의 세계 투영)
  - 10. 5 일구팔이일이 창립 10주년 회원전-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전시장
  - 10.14 유형회 회원전-안양 소해미술관
  - 10.14 장안미술관서 16일까지 김성노 개인전
  - 10.15 향토 미술계 개인전 활발-권용택, 강선구, 박상천, 김영섭, 홍사영, 김중
  - 10.21 리뷰, 이선열 개인전-수원 백화점
  - 10.26 제6회 '삶의터 작가회'-부천시 홍보전시관
  - 10.29 수원 장안미술관 실험조각 이승택 초대전, 김중·김성노전 성황리에 마쳐
  - 11.11 홍사영 소품전-안양 소해미술관
  - 11.13 인천 증견서양화가 노희정 시민회관서 개인전
  - 11.18 안성군 미술교사전-안성 군민회관
  - 11.19 경기미협 회원전-도 문화회(오용길, 이일중, 이길범, 조성락, 홍사영, 강선구, 이선열, 김학두, 권용택, 김교선, 이상덕, 구자영, 김지봉, 홍승인, 장윤우, 이정렬, 이수덕, 이수자, 이완숙, 한갑수, 박홍규, 이남아, 이한산, 이숙연, 김벽학, 송순기, 윤춘수, 유봉현, 주운항, 김왕현, 기노철, 남궁원, 박기환, 이상직, 양은진, 김세규, 이강모, 정방진, 전남훈, 염조원) 청년초대작가전-도문화회관
  - 11.21 박득순 개인전-과천 뉴코아백화점
  - 11.26 리뷰, 서양화가 김영섭 스케치전

- 11.27 이금숙 · 인승애 · 이현정 3인전-수원, 갤러리 이음  
 11.27 인천 중견 수채화가 김규창 개인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12. 5 이종례(수원일요화가회 회원) 개인전-수원 선화랑  
 12.18 1992 경기미술 결산

### 1993년

1. 8 안양 일요화가회 올해로 창립 15주년  
 2.12 인천 동아 갤러리 구상미술 3인전  
 2.19 서양화가 김교선, 유럽여행 스케치전, 갤러리 수원  
 2.22 김지식 개인전-갤러리 수원  
 4. 9 아트아카데미회원전-수원 뉴코아백화점 \*수원에 거주하는 순수미술인 모임  
 4.22 인천지역서양화가들의 작품전인 해답전이 인천 가가갤러리에서 개최  
 6.11 한국의 자연, 그리고 시각전-인천 동아갤러리  
 6.29 제4회 인천 현대미술초대전-인천 문화회관 전시실  
 8.30 이천에 거주하는 조각가 강대철 개인전  
 9. 8 리뷰, 민중미술가 김영기 수원서 첫개인전  
 12.11 정복남 · 김동원 · 김상희 서양화전-인천 한서아트홀
- 1.26 향토 예술인-차진환  
 2. 8 수원에 상업화랑 갤러리 '울' 개관  
 2.25 향토예술인-박영일  
 2.25 여성미술인 '목련 동인전'-안양 소해미술관 \*안양여고 동문 미술인  
 2.28 부천에 사설화랑, 연 갤러리 개관  
 2.28 향토예술인-화가 이재복  
 3. 2 수원에 상업화랑, '성원갤러리' 개관  
 3. 3 십일란, '외줄위에서의 삶'전, 수원 선화랑  
 3.11 최병국 한국화전-인천 시민회관  
 3.11 도내 미술계 사설전시장 잇달아 탄생(수원의 갤러리 울, 성원갤러리, 갤러리그림시, 부천의 연갤러리)  
 3.26 도불화가 이강화 귀국전-인천 동아갤러리  
 4. 6 서양화가 9인 초대전-수원 갤러리울  
 4.14 촉망받는 3인 초대전(김부건, 신묘순, 김영길)-인천동아갤러리  
 4.16 장애인 미술작가 정기 전시회-인천 한서아트홀  
 4.21 리뷰, 서양화가 9인 초대전-갤러리울  
 4.23 공작새 대가 이동섭 개인전-전곡읍 민회관  
 4.25 수원 슈룹 작품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수원 우리상회  
 4.29 설치미술전, 부드러운 물(김성배, 이윤숙 기획)-경기도 문화예술인회관  
 5. 6 인천 미술여류작가 정기전-인천시민회관 전시실  
 5.14 경기미술대전-총괄, 이대로 좋은가  
 5.19 부천 불미회전-홍보전시관/여류작가 김정희 작품전-인천시민회관  
 5.27 인천 현대유화동우회전-시민회관 전시실

### 1994년

- 1.22 인천교대, '한하나회' 작품전-서울백악예원

- 6.10 청각장애화가 박상덕전-평택 배아트리체
- 6.18 광명화가모임, 제4회 청색회전-광명시민회관/안산지역 미술인 모임 단원미술작가회의 제2회 회원전, 안산올림픽기념관
- 6.29 고기범 개인전-부천 홍보관, 서울나갤러리
- 7. 6 인천 서울대 미술과 동문, '수렵과 발산'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 7. 8 인천미술대전 참가작품전-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 7.21 부천 삶의터 작가회, '경인철도-우각현에서 노들까지'-부천시 홍보관
- 7.22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 종합문화회관
- 7.28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들'-평택 배아트리체
- 8.10 '물이보이는 풍경전'-수원 갤러리 울
- 8.26 고운 작품전-인천 시민회관 전시실
- 9. 2 부천사생회 제9회 회원전-부천시 홍보관 \*부천지역미술인 모임
- 9. 6 주목받는 화가탐방-박대병
- 9. 6 주목받는 화가탐방-이종구(인천화단 선도)
- 9. 9 이형재 작품전-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
- 9.15 대유문화재단 광주에 국내최대종합미술단지 조성예정
- 9.23 서양화가 김운영 개인전-인천종합문화회관
- 9.26 미협안양지부 포도미술제-안양 문화회관전시실
- 9.29 현대회화 8인전-갤러리 그림시(김선교, 박신혜, 심홍재, 정옥화, 황은화, 권성택 등)
- 9.29 미협 이천지부 회원전-이천 한빛전시관
- 9.30 서양화가 안성용 작품전-인천 동아갤러리/서양화가 김상희 개인전-인천 한서화랑(사진자료)
- 10. 6 이종래 · 엄옥남 2인전-수원 선화랑(사진자료)
- 10. 6 7인 화가 캔버스 색칠하기 준비(최문호, 강성원, 권용택, 안예환 등)
- 10.13 수원지역 설치 행위미술인모임인 '컴아트'그룹의 한 · 중 · 일 전시-북경수도사범대학 미술관
- 10.14 인천조각회 10주년 기념전, '환경'-인천 종합문화회관 광장
- 10.20 주목받는 화가 탐방-강선구
- 10.21 수원지역 여성미술인 회의 제14회 정기전, '자기...움직임'-경기도문화예술인회관
- 10.22 경기지역 중견한국화들의 모임인 성목회 제12회 회원전-평택문화회관
- 10.27 인천지역한국화가 그룹인 일수회전-인천 한서아트홀/노희정 개인전, '소래풍경'-인천 종합문화회관
- 10.27 주목받는 화가 탐방-정진영
- 11. 4 경기구상작가회 제4회 회원전-수원 갤러리울/안산 올림픽기념관
- 11. 5 부천서 삶의 터 작가회전-부천 연갤러리
- 11.10 조성우 개인전-의정부 진로백화점 이벤트홀
- 11.10 주목받는 화가탐방-권용택
- 11.11 이천지역 한국화들의 모임인 채목회 제8회 정기전-이천 한빛전시관
- 11.17 경기와 인천미술교사들의 모임인 '흔하나회'-서울 백악예원

- 11.17 주목받는 화가탐방-노희정(인천에서 활동)
- 11.18 안양 유형회 제7회 회원전-군포시 산본도서관
- 11.24 예토회 제4회 전시회-부천 홍보관  
\*부천지역 중견미술인 모임
- 11.24 이선열전-수원 뉴코아백화점
- 11.24 주목받는 화가탐방-성하영
- 12. 1 수미회 제5회 회원전-수원 선화랑  
\*수원지역미술교사모임/안양일요 화가전-안양문예회관
- 12. 1 잇단 전시회 여는 부천의 '삶의 터 작가회'와 안양의 '유형회'
- 12. 1 주목받는 화가탐방-김경인(인하대 교수)
- 12. 2 안양의 여성미술인 모임 예향회 회원전-안양 평촌뉴코아백화점
- 12. 2 컴아트그룹회장 황민수 작품전-수원 장안미술관
- 12. 8 서양화가 천기원 개인전-안양문예회관
- 12. 9 한복회 창립작품전-의정부 진로백화점 \*경기북부 40대 서양화가 모임
- 12.15 인천미술인협의회 창립, 황해의 아침-인천시민회관 전시실
- 12.16 인천미술인협회 창립전/미협경기도지부 제48회 회원전-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12.29 지역미술활성화 주역-미술협회 수원지부장 남부희
- 12.29 경기미술결산-전시장 한산 저변화대 미흡
- 12.29 인천미술결산-향도화단 부흥운동 맞을려

## 1995년

- 1. 1 미술의 해 향토미술진단-경기/인천
- 1. 6 인천미술계 올해 사업계획
- 1.12 미술가 5인의 새해 설계
- 2.16 40대 초반 화가들 잇단 단체장 취임(수원미술인 협회-권용택, 미술협수원지부장-남부희, 미술협 부천지부장-강선구)
- 2.23 인천 청년작가회 경찰서 기증운동 화제
- 3. 9 전국자애인미술인 초청 전시회-안양 문예회관
- 3.18 95 서울 국제판화제에 인천 해반깎러리 참가
- 3.30 안성 짧은 미술인 모임 '사이·꼴' 제4회 정기전-안성 국민학교 문화회관
- 4.13 나혜석 추모예술제 개막
- 4.27 부천 미술계 대중화 운동
- 5. 4 화가 박영복 수원에 '진솔화랑' 개관
- 5.11 김보중 작품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5.15 제14회 인천미술대전 총평
- 5.18 인천미술대전 한국화대상-정현정 인터뷰
- 6. 8 이소영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7. 8 수원지역 전시장 개관 잇달아-수원에 진솔화랑, 울갤러리, 경기서적 4층에 복합문화공간
- 7.13 이봉순 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7.17 단원미술작가회전-안산 올림픽기념관
- 7.20 이봉순전-수원의 갤러리 그림시/부천지역미술인들의 혁동인 제38회 회원전-부천 용두산미술전시관
- 7.27 대한민국청년미술제-인천종합문예회관

- 9.28 제31회 경기미술대전 입상자명단
- 10. 5 미술협회 이천지부 제4회 회원전-이천 한빛 전시관
- 10.18 권진식 개인전-수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인천교대 교수작품전-인천 종합문예회 관/수원수채가협회 제3회 회원전-수원 갤러리 올
- 10.18 안양미협 포도미술제 개막, 감성과 이성의 표출전
- 10.25 최문호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11. 1 평택의 이진록 개인전-서울 동원화랑/권성택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안병적 개인전-갤러리 그림시
- 11. 5 인천 젊은 미술인 모임, 수렵과 발산전-인천종합문예회관
- 11.15 민중판화가 유연복, 스스로 그렇게-수인목판화전
- 11.22 슈룹 첫 기획전, '나는 어디에 있는가'-화성군 슈룹조형연구소
- 12. 6 일구팔이일이회 정기전-경기도 문화예술회관
- 12.13 인천 수채화 원로 이철명 회갑전-인천종합문화회관/윤여결 목판화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12.20 수원지역 젊은 미술인 11인전, '터-돌을 · 별'전-수원 진술갤러리

**1996년**

- 1. 3 미술협 부천시지부 20년 궤적 회고책자 발간
- 1.10 경기 · 인천미술계 새해 설계
- 1.31 주수일 독일서 초대전
- 1.31 안병덕 스케치전-수원 진술화랑/슈룹 아트넷 열림전-슈룹 아트넷
- 2. 7 서울 판화미술제 향도서 열린다

- 2.14 슈룹 아트넷 소개(사진자료)
- 2.14 서양화가 이강자 개인전-도문화예술회관
- 3.20 부천 약사 이춘화
- 3.27 김영섭 · 김철규-수원 갤러리 올
- 4. 3 김영섭 · 김철규 2인전 리뷰/들꽃 화가 김수현 개인전-갤러리 그림시
- 4. 3 서양화가 나혜석 탄생 100주년 기념 수원서 전국여성미술제 열린다
- 4.10 '96 서울 판화미술제 인천 특별전-인천 종합문예회관
- 4.10 이흥덕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4.17 슈룹조형예술연구소 기획의 한국 현대미술의 조망전-부산 다다갤러리/수원 도문화회관(사진자료)
- 4.24 부천미술제-부천시민회관/미협 안양지부 회원전-안양문예회관/경기 구상작가회, '봄의 풍경전'-수원의 진술갤러리
- 5. 1 지상갤러리-광명의 한국화가 권정찬/수미협외 정기전, '숨고르기'-경기도 문화예술회관
- 5.22 미협 안산지부 창립전-안산 올림픽기념관
- 5.29 수원환경운동센터 주관 전국환경미술제-경기도 문화회관
- 5.29 장애인 미술인 그림전,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안양 문예회관
- 6.12 광명청색회 제6회 정기전-광명시민회관 \*광명지역미술인모임
- 6.19 미협이천지부, '작은그림전'-이천시 시민회관
- 6.19 프리뷰, 안양지역 미술인 모임 '우리들의 땅' 7회 작품전-안양문예회관
- 7. 3 집안싸움 인천미협 점입가경
- 7. 3 바다풍경전, 김원기-이윤숙전-수원

- 갤러리그림시
- 7.10 인천미술인협회 정기전-인천종합 문화회관/서양화가 김중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8.28 지역화단-가을 기지개(부천 숲의 터 10주년 전/이오연 개인전) (사진자료)
9. 4 한국화가 정인자 개인전-부천 홍보 전시관
9. 4 부천 미술계 우물안 탈출-한일 미술교류전
- 9.11 노희정, '그림·도자기'전-인천 한서아트홀
- 9.11 강화도에 '전원미술관' 개관
- 9.18 전국환경미술제 무엇을 남겼나
10. 2 미협이천지부 회원전-이천 한빛전시관/수원조각회 창립전-도문화회관 소전시실/김영섭 초대전-수원 갤러리 올
10. 9 황상근 초대전-의정부 갤러리 석우/광명미협회원전-광명시민회관
- 10.23 신묘숙 개인전-부천홍보전시관
- 10.30 김찬일전-수원 갤러리 그림시/천기원전-뉴코아백화점 평촌점/임인석전-수원 갤러리 올(사진자료)
- 10.30 천재 여류화가 나혜석 탄생 100주년 기념 현대여성미술제 개막
11. 6 프리뷰, 정경애 개인전-갤러리 그림시
11. 6 부천작가 강선구 스페인서 개인전
11. 6 미술계 갤러리 건립바람(부천 가나 이어 양주에 예림 개관)
- 11.13 인천지역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한국화 젊은 작가회'의 제2회 움직이는 미술관전
- 11.13 세계 구축화가 정기 열람전-수원

- 올갤러리
- 11.20 프리뷰, 황병식 미술전-인천 문예회관
- 11.27 경기구상작가회 제5회 회원전-도문화예술회관
12. 4 원로작가 6인 한자리화-갤러리 석우/고 김영건 화백 유작전-인천시립박물관
- 12.11 화우회, 교사유화전 \*수원 연무중 교사 모임
- 12.11 김상유, '민화소개'전-인천 해반갤러리
- 12.18 인천 다인아트 갤러리 문열어
- 12.18 성목회 회원전-수원 갤러리 올
- 12.25 리뷰, 김학원 개인전-평택 배아트리체(사진자료)
- 12.25 수원일요화가회 제14회 회원전-동수원 뉴코아백화점(사진자료)
- 12.25 평택에 이색갤러리 아뜨리움 소개

## 1997년

1. 8 수원시립미술관 건립-미협수원지부 청사진 확정 본격 추진
- 1.15 김기룡 작품전-인천 동아갤러리
- 1.22 나의 작업실-우당 이길범
- 1.29 나의 작업실-권용택
- 2.12 나의 작업실-조각가 신묘숙
- 2.19 나의 작업실-서양화가 최현식
- 2.26 나의 작업실-동양화가 이근식
3. 5 프리뷰, 서양화가 김유철-인천 다담 갤러리
- 3.12 나의 작업실-조각가 이운숙
- 3.12 프리뷰, 서양화가 이진록 3번째 개인전-평택 아뜨리움
- 3.19 나의 작업실-서양화가 신언일

- 4. 2 나의 작업실-서양화가 박영복
- 4.23 나의 작업실-장애인화가 박대식
- 4.23 프리뷰, 이석기 개인전/정현정 개인전-인천 동아갤러리
- 4.30 나의 작업실-한국화가 장정웅
- 5.15 나의 작업실-서양화가 심춘숙
- 5.22 수원출신화가 김종 내번재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5.22 수원생활속의 미술회 창립전시, 삶의 향기-도 문화예술회관
- 6.11 다안아트 갤러리 기획, 현대미술8인 시각전-인천 다인아트 갤러리
- 6.19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화 개인전-서울 갤러리 상
- 7. 1 프리뷰(지역미술틀벗기), 부천 · 인천 한국화전-인천문화예술회관전시실
- 7.15 최길순 초대전-의정부 우석갤러리
- 8.25 소환 이삼영선생 작품전-부평 동아갤러리
- 9.11 재인 흥대 출신 미술인 한자리
- 9.23 인천 여류작가전(인천여류서양화작가회 / 인천여류조각회 / 인천여류한국화작가회)-인천 종합미술회관
- 10. 7 프리뷰(침묵...그리고 거침없는 모성), 조각가 이윤숙 여섯 번째 개인전
- 10.21 맹인돋기 박정희 여서 그림전-인천 시청 중앙홀 상설전시관
- 10.21 박신혜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11.10 조각가 김길남 초대전-인천 다인아트갤러리
- 11.11 안산의 단원 미술작가 여덟 번째 정기회
- 11.13 수원시립미술관 기금마련전-수원

- 모네갤러리
- 11.20 슈룹 기획의 회화 · 조각 · 도예 · 설치 ‘모듬’전-수원 갤러리 아트넷
- 11.20 50세 이상 미술인 모임 수미회전-동수원 뉴코아백화전
- 11.24 이종구 · 치창구 작품전-인천 해반갤러리
- 12. 8 인천미협작가 초대전-인천 해반갤러리
- 12.15 수원수채화협회, 한국수채화동향전-도 문화예술회관
- 12.23 프리뷰, 동양화가 이선우-수원 아트넷 갤러리(사진자료)

**1998년**

- 1. 6 화공의 맥 잇는 동양화가 조월환
- 2.23 김연진 · 차우홍-수원 갤러리 그림시
- 2.26 정용일 서양화전-화폭에 담은 무속-인천 다인아트갤러리
- 3. 4 수원 갤러리 그림시 개관 4주년 기념전-구상회화
- 3. 5 박상기 화백 서양화전-인천 신세계갤러리
- 4. 1 도지성 서양화전-인천 다인아트 갤러리
- 4.13 인천지역 젊은미술인 모임의 ‘뉴이미지 뉴에이지’전-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4.15 프리뷰, 김수현 세 번째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4.22 프리뷰, 이강화 서양화전-인천 세명 갤러리
- 5. 4 서양화가 김보중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5.29 일구팔이 일이회 소품전-수원 갤러리 아트넷
6. 1 인천 다인아트 갤러리 4인 전시 레이스-이복행, 임종민, 임소영, 임미림
- 6.12 수원 미술소그룹, '옵니버스'정기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7. 2 프리뷰, 여류화가 안명혜 개인전-인천 해반갤러리
- 7.13 정선 수채화가 6인전-신세계 인천점
- 7.13 98 인천현대미술초대전-인천종합문예회관 대전시실
- 7.27 98 광명미술제-광명시민회관 전시실
- 7.30 프리뷰, 서양화가 문성이 개인전-평택 아트홀 베아트리지
- 8.21 '봄·여름·가을·겨울'의 12번째 전시-인천 다인아트갤러리
9. 7 프리뷰, 여류화가 주홍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인천 한국화 젊은세대전-인천 종합문예회관 소전시실
- 9.25 한국화그룹 성묵회전-도문화회관
- 10.12 제8회 트락전-의정부 우석갤러리 \*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회 회원전
- 10.12 프리뷰, 박진화개인전-갤러리 그림시(사진자료)
- 10.19 프리뷰, 이선열 개인전(사진자료)
11. 2 프리뷰, 서양화가 황은희 개인전-수원 갤러리 아트넷
- 11.12 프리뷰, 권용택-생의 근원 물 주제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사진자료)
- 11.16 인천미술 자존심 '해랍' 10번째 전시회-인천종합문예회관 대전시실
- 11.16 프리뷰, 수원 수채화협 회원전-동

- 수원 뉴코아 백화점
12. 7 프리뷰(삶의 일상 꾸밈없는 아름다움)-수원 갤러리 아트넷
12. 7 프리뷰(사회부조리·인간고통 군상들)-수원 갤러리 그림시
- 12.28 프리뷰, 인천 사생화회 회원전-인천 문예회관

## 1999년

1. 8 갤러리 서종의 오늘의 작가전
- 1.13 프리뷰, 김수현 개인전-수원 김주일 이비인후과
- 1.16 문화포커스, 서양화가 김영섭 (교도관 근무의 이색 경력 화가)
- 1.20 수원 영통에 갤러리 사임당 개관
- 1.28 수원 갤러리그림시 젊은 작가전 소개
- 2.20 문화포커스, 젊은작가 이범준(생리학 석사출신 전업작가 변신 7년째)
- 2.22 한국화가 서경애 첫 개인전-부천 LG 백화점 가나화랑
- 2.25 프리뷰, 이윤기 첫 번째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3. 8 화홍 수채화회 4회 개인전-도 문예회관
- 3.11 갤러리 그림시 재출범 기획전, '미풍-인물화 6인전'
- 3.17 색깔사랑 전시회 \*수원대 사회교육원 서양화과 수료생 모임
- 3.18 중견 작가 9인 '3·3·3'전-부평구청 2층 전시실
- 3.22 최용규의 '액자속의 낙원전'-인천신세계백화점 \*이발소 그림전
- 3.27 IAF 인천 미술박람회 개최-유봉희 관장 인터뷰



- 3.31 수원성북교회 손영섭 목사 실향 아  
품담은 그림전시회
- 4. 7 인천여성서양화회 ‘수렵과 발산’ 전  
-인천 종합문예회관
- 4.14 프리뷰, 홍윤표전-인천 신세계갤러  
리(사진)
- 4.15 어진내 예술회 첫 번째 전시회-인  
천 종합문예회관
- 4.17 제17회 성북회전-수원 도 문화예술  
회관
- 4.24 미협 시지부 33번째 회원전-도문화  
예술회관
- 5. 1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입상작 전시  
회-도문화예술회관
- 5.12 미협용인시지부 11년 결산-신갈 경  
기도박물관
- 5.13 제4회 옴니버스 99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5.13 프리뷰, 김대원 모네펠러리 서 ‘수  
원화성’전
- 6. 3 프리뷰, 제3회 경기미술 새로운 도  
약전(민예총 수원지부주최, 수미협  
주관)-도문화예술회관
- 6. 9 최정숙 관장 개인전-인천 해반갤러리
- 6.19 부천 ‘빛살회’ 두 번째 회원전-부천  
가나아트 LG갤러리
- 6.19 문화포커스, 지점준 창안 동양화가  
이영환(이채로운 경력소유)
- 6.24 김재열, ‘소래포구이야기’-인천 신  
세계갤러리
- 6.24 인천포스트전-인천종합문예회관/  
신세대 한국화가 6인의 모임인  
‘회인’전-수원갤러리 아트넷 \*수  
원대 93학번
- 6.26 문화포커스, 인천포스트전 기획단
- 7. 1 부천여성미술회, 여성주관 기념전-  
부천 아트센터
- 7. 5 한국화동호인 연무회전-인천 창신  
화랑
- 7.21 안태근 첫 개인전-한서아트홀
- 7.22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99 삶과 생  
명전’-인천 신세계백화점
- 7.26 ‘99단봉예술제’ 화성군 서신면 문  
화예술촌 쟁이골
- 7.26 프리뷰, 석장리 미술관의 ‘조각나  
라 99초대전’-연천군 백학면 석장  
리미술관
- 7.30 향도 첫 미술박람회 ‘IAF(Inchon  
Art Fair)’
- 7.31 이강식 4번째 개인전-화성군 쟁이골
- 8. 2 프리뷰, 첨단설치미술전, 마네킹의  
혀, 신세계인천점 갤러리
- 8. 9 프리뷰, 김홍희 첫개인전-인천 한서  
아트홀
- 8.11 김재중 · 이정현 2인전-평택 베 · 아홀
- 8.14 프리뷰, 서양화가 김종 7회 개인전-  
수원 갤러리 아트넷
- 8.16 프리뷰, 서양화가 한중희 첫개인전  
-인천 한서 아트홀
- 8.19 안산시 단원미술제
- 8.26 수원조각회 전시회-도문예회관
- 9. 2 ‘99안산 누드 크로키전’-안산 올림  
픽 기념관/인천대 교수 · 동문미술  
전-인천 종합문예회관
- 9. 4 석장리미술관 박시동 인터뷰
- 9. 8 ‘99 수원 화성아트쇼, ‘풍경-작가미  
술제’-도문예회관
- 9.15 지역한계 드러낸 수원화성아트쇼
- 9.22 미협 부천지부전시회-부천 아트센  
터
- 9.27 프리뷰, 김수현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10. 4 청과 황병식선생 개인전-서울갤러리  
 10. 7 미협 용인지부 현대작가 초대전  
 10. 7 경기미술가회 첫 전시/프리뷰, 김일도 개인전-평택 베·아홀  
 10.18 일구팔이일이회 정기전-뉴코아동수원/경기구상작가회 8회 정기전-도문화예술회관/유형회 12번째 작품전-안양문예회관  
 10.19 북수원에 미술전시관 탄생  
 10.21 이순자 두 번째 개인전-인천 신세계백화점  
 10.22 미협 동두천 지부 창립전-동두천 시민회관  
 10.23 'IAF 99' 새천년 인천 붓 가늠 미술 박람회 열린다  
 10.30 미술인 모임 슈룸, 인간의 자연-대단히 감사합니다'전-군포시민회관 전시실  
 11. 8 인천미술인 협의회 정기전-인천 종합문예회관  
 11. 9 서양화가 이석기 작품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11.22 여성미술인 모임 '이즘탈피' 8번째 전시회-인천 명갤러리  
 11.24 프리뷰, 돌조각 개척자 전되진 고희 개인전-인천 경인여대 교내  
 11.25 황민수 다섯 번째 개인전, '몽상적 묵시록'전-수원 갤러리 아트넷  
 11.27 인천문인화협회전-인천 소봉공원  
 11.30 인천 중등 미술교사 정기전-인천 수봉고원 전시실  
 12. 1 인천사생회 제24회 정기전-인천종합문예회관  
 12. 2 서양화가 신언일 네 번째 개인전-인천 다인아트 갤러리  
 12. 6 의왕에 갤러리 '라뮈르', 용인에 '등

지미술관' 개관

- 12.18 경기미술계 한해결산  
 12.18 부천 카톨릭 미술인회의 제11회 전시회-부천시 문예전시관  
 12.21 인천 동구예술인연합회 창립전-인천 송림동 노인복지회관  
 12.28 양승수 개인전, '성과 권력'을 주제로-인천 다인아트 갤러리

## 2000년

1. 4 인천미술, 가능성과 제안전 II-입체, 인천 해반갤러리/미술인이 전하는 신년 메 시지-2000 세화전-인천 신세계 갤러리  
 1.18 인천 예총, 2000년 경축 미술초대전-인천 종합문예회관  
 1.25 방두영 세 번째 개인전-의정부 갤러리 예술기행  
 1.27 인천관화전-인천 신세계백화점  
 2. 8 프리뷰, 제3회 '젊은 작가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2. 8 수원의 갤러리 쿠이(AUI) 개관 기념전  
 3. 1 프리뷰, 노희정 15번째 개인전-인천 종합문예회관  
 3.13 '빛·드로잉'의 첫 번째 전시, '속도의 마술'-안양 평촌 전시관  
 3.13 프리뷰, 서양화가 김상기 두 번째 개인전-인천 한서화랑  
 3.15 '안산작가 10인 초대전'-수원 갤러리그림시  
 3.20 프리뷰, 김용란 작품전-도문예회관  
 3.27 천년의 영광-양코르와트 스케치전-인천 신세계 벨러리  
 3.29 프리뷰, 박황재형전, 'I-S/나-들'-인

- 천 푸전카페 광야/박미경 개인전, '삶-선인장/벽'-인천 명보갤러리
- 3.29 김야천전-부천 아트센터
- 4.10 수원 소재로한 작품 한자리(미협 수원지부)/류연복, '생명전'-안성 아트센터 마노/이홍덕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4.10 제7회 '뉴에이지 뉴 이미지'-인천 종합문예회관 대전시실
- 4.12 프리뷰, 김기중 생채 연꽃그림전-흥과 돌가루의 윤희·화폭 가득 연꽃 만개
- 4.17 김소희 개인전-인천 신세계백화점
- 4.24 서양화가 김교선 초대전-수원 갤러리 쿠이
- 4.26 고양 목암박물관 '2000 세계 꽃박람회 맞춰' 특별기획전/한국화가 김승호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4.26 제6회 예형회 대작전-안양 문예회관/프리뷰\_이숙호 두 번째 개인전-인천 갤러리 진
5. 3 프리뷰, 들꽃작가 김수현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5.13 부천 불자미술대전-부천시 문예전시관
- 5.22 유화동우회 색깔사랑 다섯 번째 전시회-도문예회관 소전시실
- 5.24 이춘영 개인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서양화가 김백선 개인전-수원시미술전시관
- 5.29 프리뷰, '터-용인 16인전' \*용인지역 작가들 참여
6. 5 프리뷰, 권해영 개인전(수채화서 피어난 정겨운 시골풍경)-수원 갤러리쿠이
- 6.12 인천 한국화 젊은 세대전-인천 종합문예회관
- 6.19 작가소개-'한국을 이끄는 100명 두상조각'의 김래환
- 6.26 프리뷰, 조성란 개인전 '고금이'-평택문화예술회관/서울 덕원갤러리
- 6.26 국내 첫 돌조각 박물관 문연다. 용인에 '세종돌박물관'
- 6.28 제4회 새물수채화동인전-평촌전시관
- 7.10 부천여성미술인 주최, 부천여성미술인전-부천 LG가나아트갤러리
- 7.19 프리뷰, 전장원 개인전-부천시청내아트센터
8. 7 리뷰, 서성식 개인전-가평 갤러리 청/프리뷰, 김정현전-고양시 작업실/서울 공평아트센터
- 8.21 프리뷰, 류승우전-수원 갤러리 그림시/노희정전-강화군 청송예랑
- 8.21 '열려있는 땅, 인천'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8.28 인천여류한국화회가 개최하는 인천한국화회전-인천 진갤러리
- 8.30 프리뷰, 경인일보 창간 40주년 초대전, 허만갑
9. 1 프리뷰, 김영란 수채화전-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9.19 수미협 기획, '환겨울 생각하는 그림전', 수원미술전시관
- 9.20 부천 '빛살회' 제3회 전시, 부천 가나 아트LG갤러리
- 9.27 프리뷰, 강하진 개인전(비구상 작업통해 자연 리듬 표현)-인천 신세계갤러리
10. 4 리뷰, 신형옥 개이전(그리움으로 재결합된 풍경)-수원 갤러리 그림시

10. 9 2000 올해의 작가전-부천 시청내 아트센터
- 10.11 성남 분당 구상작가회, '국악과 미술의 만남'전-분당문화정보센터
- 10.18 '삶의 터'전-부천 LG 가나아트갤러리
- 10.23 서호수채화전-수원미술전시관
- 10.23 프리뷰, 성목회-수원미술전시관/심강 최기운 개인전-수원 갤러리그림시/조용상 첫개인전-수원미술전시관 제2전시실
11. 1 프리뷰, 유영·김종상 서양화 2인전-양평 인더갤러리
11. 6 프리뷰, 수원사생회 회원전-수원미술전시관
11. 8 프리뷰, 강선구전(한지에 핀 백의정신)-부천 LG가나갤러리
- 11.13 화성문화원 주최 '36인 초대작가전'-화성군청 \*화성을 비롯한 도내 거주 미술인 참여
- 11.13 프리뷰, 인천여성서양회의 18번째 회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11.15 서양화가 한미진 도판전-수원 갤러리 그림시
- 11.20 수원지역 초등학교 주축 '초록작가회' 창립전
- 11.20 리뷰, 안산미술협회 주관, '생활속의 미술'전(안산 별망성초대전)-안산 대림아파트 모델하우스
- 11.22 재인 홍대미대 동문전-인천 명보갤러리/갤러리 진
- 11.27 프리뷰, 조각가 우무길 첫개인전-도문예회관
- 11.29 수원수채화협회 제8회 전시회-수원미술전시관
12. 4 눈길끄는 인천 추상화 전시회-유옥분전-갤러리 진/박동진 전-인천 신

세계갤러리

12. 4 소모임 소개 '수원 색깔사랑'
12. 6 프리뷰, 이준수전-파주시민회관/하진용-안산당원미술전시관
- 12.18 이해균 개인전, '빛과 시간속에서'-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전시장
- 12.18 의정부의 일터 정육점을 갤러리고 꾸민 '고목'화가 박국신
- 12.20 수원 미술한마음전-수원미술전시관
- 12.25 경원대 회화과 출신 '다원회전'-하남시 신장동 갤러리 L·J·S

## 2001년

1. 4 농촌에 등지른 예술인 2인-이윤숙씨와 옥새장인 민홍규
1. 8 고양 외동21 그룹전-외동 작업실
- 1.17 권영희전-인천 진갤러리
- 1.26 켈린더전-인천 신세계갤러리
- 1.31 프리뷰, 탁신문 개인전-수원미술전시관
2. 5 프리뷰, 화우회전-수원미술전시관
- 2.21 프리뷰, 구원선 개인전-서울 단성갤러리 \*부천·인천 여성미술인회원
3. 2 청년작가 야외조각 공모전 소식
3. 5 프리뷰, 조신희 그림전, 부천 가나화랑
3. 8 남양주 갤러리 '리즈' 개관전
- 3.12 '꽃이있는 마음'전-양평 인더갤러리/경기문화재단의 사이버갤러리, 아트스페이스 경기, '환경과 생명'전
4. 2 한국청년 구상작가회 인천지회의 청년구상작가 창립전-인천문예회관
4. 9 미협수원지부, 오늘의 수원전-경기

- 도문예회관
- 4.12 나혜석여성미술대전 대상 최애주
  - 4.19 나혜석작 추정 그림 2점 발견
  - 4.25 북한강 오월미술제 소식
  - 4.28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 4.30 프리뷰, 오소백 가족그림전-수원미술전시관
  - 5. 3 부천불미화전-부천문예회관
  - 5.14 리뷰, 박영동 개인전-인천 갤러리진
  - 5.17 한국여류화가회 회원전/광명미술제/안산미협회회원전
  - 6.11 수원 중견작가들의 개성 한눈에 - 다름과 닮음전
  - 6. 2 사임당 수채화화-수원미술전시관/여울회(다중희 인형)-서울 경인미술관
  - 6.25 나혜석 모음과 3인의 여인전-용인한국미술관
  - 7. 2 프리뷰, 강미덕 개인전, '마음속의 풍경'-양평 인더갤러리
  - 7. 2 화홍문 나혜석 작품? "가우똥"
  - 7. 9 프리뷰, 김명하 초대전-갤러리 리즈
  - 7. 9 세계아동미술교류전-가평 허수아비미술회관
  - 7. 9 목인회전-서울 진흥갤러리 \*인천교대 한국화 전공동문
  - 7.23 경기문화재단 개관 기념전, '청장년작가 초대전'-경기문화재단
  - 7.30 김복진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남양주 모란미술관
  - 7.30 서양화가 원도희 개인전-인천 신세계 갤러리
  - 7.31 박영동 유화전-부천시청 아트센터
  - 8.20 프리뷰, '경기초대작가전'-경기문화재단 2층 미술관/프리뷰, 인천구상
  - 작가 초대전-인천 문예회관
  - 8.20 인천수채화협회회원전-인천 문예회관
  - 8.27 안미숙개인전-서울 조형갤러리 \*인천·부천을 무대로 활동
  - 9. 3 프리뷰, 전용직 개인전 소개
  - 9. 3 인천출신 거장 소개-김은호, 유희강, 박세림
  - 9.10 프리뷰, 한국화가 이선열 아홉 번째 개인전-경기도 문예회관
  - 9.10 광주 영은미술관 입주작가전
  - 9.15 경인일보 후원 특별기획전-의정부 예술의 전당
  - 9.17 '21세기를 열어가는 현대작가전'-남양주 갤러리리즈
  - 9.17 제4회 빛살화전-부천 가나아트LG 갤러리
  - 9.24 수채화 7인 초대전-인천 여성문화회관
  - 9.25 갤러리 그림시 기획 제6회 수원화성아트쇼-경기도 문예회관
  - 10. 8 민예총 경기지회 주관 '경기미술 새로운 도약전'-경기문화재단
  - 10. 8 조형서각협회 전동차전시
  - 10.10 제18회 경인미술대전 수상자 선정
  - 10.12 구남회 작품전-남양주 아트센터 \*남양주·구리시 미술교사모임
  - 10.15 프리뷰, 슈룹공동기획, '내가서있는 자리'-화성 남문아트센터
  - 10.15 프리뷰, '16인전'-용인한국미술관
  - 10.15 장애인 한국화가 손영락씨에 대한 기사
  - 10.15 수원 서호수채화전-수원미술전시관/갈매화우회 한국화전-수원미술전시관 \*강남대학교 한국화 전공

- 10.19 의정부 미술동호회 '신형상연구회' 활동 활발
- 10.22 분당구상작가회 작품전-분당 삼성 플라자 갤러리
- 10.25 홍재미술대전 수상자 선정
- 10.29 화성 창문아트센터 소개 기사
11. 1 배동환-이석주전, 남양주 갤러리리즈/ 부천의 임평례 첫개인전-부천 LG가나갤러리
11. 5 리뷰, '자극적인 일상-틈'전-수원미술전시관
11. 8 이영미술관 소개
11. 8 프리뷰, 인천시 미술초대 추천작가전-인천문예회관
- 11.12 프리뷰, 추경개인전-인더갤러리/이은재전-인천 신세계갤러리
- 11.15 리뷰, 수미회전-수원미술전시관
- 11.15 주부모임 '화소회'전-의정부 예술의전당
- 11.22 프리뷰, 경기수채화협회전-도문예회관
- 11.22 인천미협전-인천문예회관
- 11.26 채목회 회원전-경기도 문예회관 대전시실
- 11.26 암투병 화가 박혜라 네 번째 개인전
12. 4 경기도여성작품전-경기도 문예회관
12. 7 의정부 미협, 미군부대 담장에 벽화그리기 작업
- 12.11 인권예술제-수원미술전시관/군포도장중학교 평생교육원 유화반의 '산본가는길'-군포시민회관
- 12.13 프리뷰, 서양화가 남부희 개인전-서울 인사갤러리
- 12.13 화목회 창립전-수원미술전시관 \*한국화를 사랑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주축된 모임
- 12.20 프리뷰, 명재향, 내일을 위한 침묵전-인천 명보갤러리
- 12.27 프리뷰, 신종택전-인천 해반갤러리
- 12.28 '구상회화 70인전'-수원미술전시관/최용선 개인전-남양주 갤러리리즈

**별첨자료 3**

지역화단소식-수원: 경기도 미

**『미술세계』 경기도 미술관련 기사 색인(1987~2003)**

- 1) 본지 기자나 리포터는 명기하지 않음. 단 외부 기고자는 끝에 괄호 처리하여 표시.
- 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명륜 캠퍼스)에 87년도부터 소장되어있음(87년도 4, 5, 6월호는 검색하면 등록으로 나오지만 서가에 없음. 89년 12월호 결호, 2002년도 전체 결호)
- 3) 재단 자료실에는 1999년도부터 있으며, 2001년도 7월호 결호
- 4) 1988년도 3월호는 본래 권호가 없고, 1988년 4월호와 5월호는 합본임.

**1987년도**

- < 1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기전(畿甸) 수채화작품전/제4회 수원일요 화가회전
- < 2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수성화우회전/수원지역미술교육지전/시작회전/PLAST 사진전
- < 3월호 > 작고작가의 생애와 예술·서양화가 나혜석 “나는 나의 것일 뿐입니다”
- < 8월호 > 야외조각장(3) 토탈미술관/전원속에 자리 잡은 조각공원(유성웅)  
지역화단소식-수원: 도시로부터전/작은이들 큰 그림전
- < 9월호 > 아트뉴스-원로서양화가 이경훈씨 타계-일생을 교사로 후진양성에 주력해온 경기화단의 거목
- <10월호> 특집: 80년대 한국미술(서양화) - 80년대 한국미술의 총체적 검증(김중근)

술대전/이길범 한국화전/홍사영 도화전/유네스코 한·일 학생 교류전

- <11월호> 지역화단소식-수원: 이선열 한국화전/화성문화원 초대전/오오공필전
- <12월호> 지역화단소식-수원: 안양미협전/198212전/교육자전/경기대회회화과 작품전  
지역화단소식 - 성남: 성남미협전

**1988년도**

- < 1월호 > 미술세계 지방리포터 좌담 - 87 지방화단 점검 및 중앙과의 격차해소  
지역화단소식 - 수원: 한길회전/성목회전/수원고 동문전  
경인전시 - 경인(京仁)지역 미술문화에 대한 기대  
경인작가 초대전(경기현대작가회, 경기형상회, 인천청년작회, 삶의 터전)을 열며

- < 2월호 > 아트뉴스-'86 시·도 미술 대전  
수상작품전  
지역화단소식-수원: 수원미협전  
/수성여중화우회전/수원일요화  
가회전/터오르기전
- < 4·5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귀우전/  
경인일보 초대작가전/새로운  
전환전  
지역화단소식-부천:복사골미술  
대전/부천시민회관 전시실개관  
/복사골미술대전 초대작가전전  
시스케치 - 수원, 새로운 전환전
- < 7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성백주 작  
품전/경인 수채화 작품전/유  
형회전
- < 8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경기미술대전
- < 10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시작 85전/  
수원초대작가전
- < 11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성목회 회  
원전/박영복, 이선열 초대전/  
서울, 경인지역 회화학과 연합  
교류전
- < 12월호 > 캠퍼스 순례-도약을 꿈꾸는 젊  
은 예인의 광장/수원대학교  
지역화단소식-수원: 198212전/  
수원지역 미술학우회전/김교선,  
정상숙 부부전/경기 조각회 창  
립전

### 1989년도

- < 1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경기현대작  
가회전/경기미협전
- < 2월호 > 지역화단소식-한길회전/문석배  
전/수원, 안양 미협지부 임원  
개선/김학무씨 나혜석미술상

수상

- < 4월호 > 미술세계단신-경인미술대전 개최
- < 6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경인일보  
초대작가전/경기향토회 초대  
전/미술동인 「새벽」 창립전
- < 9월호 > 지역작가-구체적 상황과 인식에  
로의 접근/권용택(최춘일)
- < 11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경기미협회  
전 초대전/꽃그림 5인전/수원  
미술제 개막/이진록 개인전

### 1990년도

- < 1월호 > 지역화단소식-수원: 정화랑 개  
관 초대전/성목회전/김수현·  
최현식 전/홍승인 도예전
- < 2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경기현  
대작가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작가 5인의 설치미술전 「다섯  
칸 전」  
현장을 찾아서1-열린 미술, 그  
것은 자연이며 자유입니다: '90  
겨울 대성리 75인전
- < 3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지역미  
술학우회 전 「인간의 모습」
- < 4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경기대  
학교 캠퍼스에 걸린 조국통일  
염원도 관련 기사  
특집 - 90년대 지방주의 양식  
의 가능성과 위상
- < 5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제9회  
경인일보 초대작가전/수원 화  
가 박영복의 세 번째 작품전
- < 6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90년 2  
월의 「다섯칸 전」에서 중심  
이 된 화가들의 설치미술 작품



전 「나·비·뿌·리」전 / 수원대학 서양화가 재학생들의 「활짝열린창」전 / 안양지역에 연고를 둔 서양화가 모임 유행회의 제3회 유행회 전 / 제7회 경인미술대전

< 7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새벽의 「정치·정치·정치.....전」 / 컴 아트 그룹의 「교감예술제」 / 평택 종합예술제 초대작가전/안양미술교원전/성남 활동 화가 김원술의 세 번째 개인전/제26회 경기미술대전

< 8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지역미술로서의 수원 미술: 수원미술계의 중심을 이루는 단체 활동 및 지역미술 활동에 중심을 둔 작가들, 지역작가와의 대화

< 9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을 립피공원 앞 설치작품 선정 기획취재-그룹의 생성과 소멸, 그 궤적  
전시리뷰-오늘의 지역작가전

<11월호> 특집-지역 미술의 특수성 발현을 위하여 : 지역미술의 한계성과 문제, 그리고 전망/충청지역 미술의 현황과 전망/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함께 하는 경기 지역미술/지역미술, 그 변증법적 논리, 대구지역미술의 청년 미술과 그 여건/90년대를 맞이하는 강원지방미술의 흐름/지역청년작가전의 지속적인 운동을 바라며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 활동 화가 이석기의 첫 개인전/지

역 활동에 중점을 둔 강남대 미술과 재학생들의 제 2회 「9. 2」전/제 1회 수원 미술제 출판 작가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화흥 문화제 초대전/안양 지역 진보적 미술단체 우리들의 땅 전시회/경기현대작가회전/용인 출신 및 용인 미술인들의 제 2회 용인미술인 작가전

<12월호> 기획특집 2-지역미술의 특수성 발현을 위한 모색/좌담

### 1991년도

< 1월호 > 이달의 특집-미술문화의 사각지대-지역미술의 현황: 강원지역 미술의 검증/지역자치시대의 기대  
기획특집-1990년의 미술을 보는 시각의 단면들-객원기자 방담 현장을 찾아서-부천청년미술제의 방향 좌담

< 2월호 > 이달의 특집-지역미술의 검증: 지역미술과 문화적 대응(윤진섭) 아트뉴스-'91 겨울 대성리전 세미나 개최: 바깥미술의 올바른 자리매김 모색

< 3월호 > 이달의 특집-미술의 지역성 회복을 위한 방향모색: 미협 시·도 공모전에 대한 미술인 신뢰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은주)  
현장을 찾아서-보는 자연에서 느끼는 자연으로: 제 11회 겨울 대성리 전 토론

< 4월호 > 이달의 특집-소외의 끝-지역의

- 청년작가들: 새로운 발돋움-경기지역미술의 어제와 오늘
- < 5월호 > 이달의 특집-지역미술의 양식: 그 독자성과 특수성(박은주)  
미술양식에 있어서 지역성 발현을 위한 모색 작품담구: 경기지역 이득현(최광천)/ 경기지역 장효진(이철원)
- < 6월호 > 이달의 특집-지방문화특성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유진룡)  
아트뉴스-자연과 생명, 제 2회 교감예술제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동인 새벽 해체 및 수원미술인 협의회 창립전/제6회 부천미술대전
- < 7월호 > 현장을 찾아서-수원미술의 독자성과 교감예술제의 지역성 좌담
- < 8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미협 의정부 지부 창립전/두레누리의 부채를 주제로 한 「단오선 솔바람」 전/이천미술인회 창립전/컴 아트 그룹의 91 교감예술제 시사회/풍경·정물·인물 등을 소재로 한 수원 구상작가회 소품전/서양화가 박영복 개인전
- <10월호>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미술인협의회 주최 수미협 회화 1, 2분과와 지역작가가 참여한 환경미술전
- <11월호> 지역미술의 현재-부천미술제/광명미협 다섯번째 전시/수원 지역 신진작가들의 시맥 '91 전/안양 지역 미술교사인 김원희, 문명숙 개인전 '모두 하나로'

- <12월호> 지역미술의 현재-그룹 198212 전/경기조각회 제4회 전/장안미술과 기획 「지금, 동의에 감」 전/안양 지역 활동 풍경화 화가인 천기원의 두 번째 작품전/야투 창립회원이자 자연 미술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원길의 개인전/수원 화가남부회의 첫 개인전  
전시스케치-「지금, 東의 豫感」 전. 수원과 동경의 젊은 작가를 선정하여 기획된 전시

## 1992년도

- < 1월호 > 현장을 찾아서-부천미술 '삶의 터 작가회'의 역할과 모색 좌담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사생회전/삶의 터 작가회의 부천미술의 제안과 모색 전/경기 현대작가회의 「이심전심」 전, 서양화가 최광천의 갤러리 개관 및 기념기획전 「수원, 오늘」 전
- < 2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경기미술계 진단 및 전망/평택 활동 한국화가 조성락 서울전/컴 아트 그룹과 경기 현대작가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22명 작가들의 「동경교감전」
- < 3월호 > 아트뉴스-수원 장안 미술관 기획 경기도내 그룹전 중 실험성과 동양적 감성에 중점을 둔 작가의 작품전인 「교감전」  
이달의 특집2-90년대 신세대 그룹의 향방/전환기의 신세대 미술운동(이재인)/신세대 그룹 푸

른 하늘-자기 성찰의 현실적 교감/신세대 그룹 **MUSEUM**-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 개발/신세대 그룹 **SUB CLUB**-새로운 예술 형식의 탐구/신세대 그룹 커피 **COKE**-非구속성과 확장된 예술개념 추구/신세대 그룹 황금사과-꽃피는 사과나무와 「황금사과」의 모색  
현장을 찾아서7-겨울강변에 노출된 삶의 원초적 흔적/92 겨울 대성리전

- < 4월호 > 현장을 찾아서-경기지역 현대미술과 그룹들의 향방 좌담
- < 5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박영복 개인전/김교선, 장상숙 부부 서양화전
- < 6월호 > 이달의 특집-92 다층의식의 공존-지역미술의 상황전/지역미술과 지역주의(원동석)/수원: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門을 향하여(김교선)
- < 7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시택 기획전 「인간으로부터」/부천미술제/김철규 수채화전/김주영 수채화전/수원 사생회전/안양 미협전/수미협 정기전
- < 8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지역사회의 현실 문제에 초점을 둔 우리들의 땅 세 번째 정기전/안양 미술 교육 종사자들의 미술연합전/이천 미협지부 인준 기념 지역미술의 상황전
- < 9월호 > 현장을 찾아서-수원 국제 교감 예술제/남양주군 대성리 소재 모란 미술관 주최 92 모란 국

제조각 심포지엄(고여송)

- <10월호> 현장을 찾아서-인천청년작가회 좌담: 지역미술과 인천청년작가회의 위치
- <11월호>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에 총 창립기념 제1회 수원예술제의 일환으로 한국미협수원지부 회원전 열림/수미협 주최 제2회 환경미술전/시택회 세 번째 정기전/수원 여성미술단체 198212의 10주년 기념전

### 1993년도

- < 1월호 > 현장을 찾아서-제주 미술제: 문화의 지역성과 미술
- < 5월호 > 현장을 찾아서-93 청년미술제: 미술문화의 중앙집중현상에 대한 반성과 지역화단의 역할 세미나  
지역미술의 문제와 전망(윤진섭)/지역미술에 대한 자각과 전망(박영택)
- < 6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미술인협회의 「수원, 어제와 오늘」 전
- < 7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제 3회 구상작가회 전
- < 8월호 > 문화인·예술인-미술자료 정리를 위한 노력과 삶: 미술연감사 대표 이재운씨와의 대담
- <10월호> 이달의 특집-지역미술의 검증: 문민시대에 맞는 미술문화의 새로운 정립과 지역인의 자리 모색/경기미술의 설 자리와 길(최병기)/지역 리포터 좌담:

지역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활로 모색

현장을 찾아서1-비무장지대 예  
술문화운동 작업전 총결산(김  
제영)

<11월호> 현장을 찾아서-수원 83 교감예  
술제: 수원에서 도쿄까지 「東  
의 夢」 교감전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  
화가 김영기 개인전/수원미술  
인협의회 활동 20대 작가들의  
붓물뜨기 전/지역미술계의 40  
세 작가들 기획 93 불혹의 표  
정 전/안양 그룹 우리들의 땅  
네 번째 전시회

<12월호> 송년특집-야외현장작업: 야외현  
장작업의 현황과 지역미술의  
국제화 추세 좌담/전시 리뷰·  
프리뷰-성남 화가 이연수 첫 개  
인전/안양 지역작가 류충렬, 수  
원 지역작가 최춘일 2인전

### 1994년도

< 1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경기북부: 주  
목되는 지역작가 명단/경기북  
부작가회의 순회전 「오늘의 제  
안전」

< 2월호 > 기획특집 2-94지역미술시장(수  
원): 94 수원지역미술시장 진단

< 5월호 > 표지작가-이인실: 시골과 自然  
風情의 무한한 表現愛

< 6월호 > 미술화제4-94 남한산성 자연미  
술제/지역미술의 현재(방두영)-경기: 동두천 여중, 여상고  
출신 작가와 전 현직 교사로

구성된 동문전 '이담전' 개최

< 7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방두영)-경기  
북부: 동두천 출신 20대 작가  
들의 입체 설치 조각 "공간 나  
누기"전/의정부 국민학교 교  
사 모임 제 2회 드림전/동두  
천 YMCA미술전시장 설치 기  
념 경기북부 "9인의 작가전"  
현장을 찾아서1-컴아트 그룹전:  
국제미술제 개최, 환경으로서의  
수원(박래경)

< 8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경기북부: 구  
리미협전/오늘의 제안전, 컴  
아트 그룹전에서 활동한 작가  
박창식의 두 번째 개인전/수  
원: 수원미술인협의회 주관 제  
4회 환경전/한국미협수원지부  
주관 제 3회 수원예술제

< 9월호 > 리뷰&프리뷰-안산 출신 지역  
화가 하진용 개인전

<12월호> 이달의 특집1-94' 지역 미술 운  
동을 말한다. 좌담

### 1995년도

< 1월호 > 미술계단신-경기북부 40대 서양  
화 그룹 한북전 의정부에서 전  
시회

지역미술의 현재(방두영)-경기  
북부: 경기북부 현대작가회의  
환경 프로젝트전·생명-그 새로  
움을 위하여 퍼포먼스·제6회  
오늘의 제안전/뜨락전의 환경  
예술제/지역 작가 조성우 3회  
개인전/경기북부 40대 서양화  
가 그룹 한북전 창립전/고양시

고미회 전/제4회 구리미협전/  
전곡 15명 여성 작가의 '일상과  
작업'전/연천 및 전곡 작가 구  
성 '대추나무 년' 전/나경자 윤  
금숙 2인전/제3회 의정부 미협  
대전

- < 2월호 > 미술화제-다양하고 폭넓은 기획  
전시: 총 4부 중 1부는 수원의  
컴 아트 그룹 주제 3인의 행위  
와 설치미술 전시  
미술계단신-경기도 광주군 소재  
전통문화연구의 집 요철요 입춘  
특별기획전/경기 가평군 남이  
섬에서 서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새벽회 전시회
- < 3월호 > 미술계논단-미술의 지방화시대  
열려야 한다(김남수)/미술화제  
-용평 눈조각 축제/미술계단신  
-경기도 광주군 소재 전통문화  
연구의 집 요철요 입춘특별기  
획전/장안미술관에서 열린 95  
수원 퍼포먼스 쇼
- < 4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95 수원  
퍼포먼스 쇼/95 미술의 해를  
알리는 수원지역 범화합/행사  
최초의 여류작가 나혜석을 조  
망하는 전시 기획
- < 5월호 > 지역미술검증-경기북부: 열악한  
환경극복의 기수들/수원: 수원  
화단의 어제와 오늘(최영준)/  
미술계단신-제 1회 나혜석 예술  
제/나혜석 예술제에 대한 독자  
투고
- < 6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이오연):  
나혜석 예술제/평택 덕동예술  
제/환경미술전

미술계단신-경기대 회화과 10  
주년 기념 동문전/안양끌어안  
기, 청년미술회전

- < 8월호 > 미술계논단-지방자치시대의 지  
역미술(김남수)
- < 9월호 > 미술계동향-과천시 중앙공원 조  
형물 설치
- <10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경기북부: 95  
미술의 해 향토작가 초대전으  
로 열리는 '정호양 초대전'

### 1996년도

- < 1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전환기  
수원미술의 반성과 전망, 나혜  
석전/해방 50주년 기념전/환  
경미술전/수원조각전
- < 3월호 > 아프리에 오픈-은닉된 예술의  
등지-김성호(김계영)  
현장을 찾아서2-다시 대성리에  
서
- < 4월호 > 현장을 찾아서-자연, 카페, 그리  
고 예술: 경기도 지역의 전시관  
과 카페들  
96 미술세계평론상-가작 당선  
작: 한국 현대미술의 지역적 특  
성에 관하여(임재광)
- < 6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평택(방두영):  
첫발 내디딘 평택국제아트페스  
티벌
- < 7월호 > 아프리에 오픈-단힌 형상으로부터  
의 자유-박영하(김계영)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전국환경미  
술제
- <11월호 >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수원조

작가회 창립전/수원 미술계 원로 김학두전

- <12월호> 현장을 찾아서-바깥, 그 무한의 모순: 96바깥미술 양재전  
작가탐방-황병식, 자연을 향한 관조와 포용  
지역미술의 현재-수원: 컴아트 그룹의 국제교감예술제 추진/미협 수원지부 나혜석 미술제/수원조각창립전/지역 30대 작가들의 전시인 수원 현대미술의 오늘 전

### 1997년도

- < 1월호> 현장을 찾아서-해체공간의 게릴라들: 96 수원국제교감예술제  
< 7월호> 현장을 찾아서-죽산국제예술제 기술문명과 자연의 신비, 그 충돌과 조화(방은진)  
< 8월호> EXHIBITION REVIEWS - 수원 조각가회전(임재광)  
<10월호> Art News & Choice-나혜석 미술대전 10월 수원 개최/남한산성 소재 갤러리 요철요에서 지역적 면모와 세계적 안목을 갖춘 작가 발굴을 위한 산성리전 개최  
<12월호> 이 사람-강선학: 지역미술현장의 공론화를 시도한 평론집 「반향과 욕망의 거처」 발간  
작가연구-이경근 : 코드가 불분명한 유격대장(이경모)  
Art News&Choice-경기도 화성군 소재 문화수련센터 쟁이골에서 단봉예술제 개최/제1

회 양주국제미술제

### 1998년도

- < 4월호> EXHIBITION REVIEWS-생활의 채집 및 수습 김태현전: 서울 근교 도시 공간과 일상을 중심으로  
미술계 동향-98 수원화성 아트쇼  
< 5월호> 미술계 동향-평택 국제아트캠프 설치 및 조각 심포지움  
< 6월호> 리포터&리포트-‘열린’ 미술제, ‘닫힌’ 관심  
미술계 동향-평택이 쏘아올린 문화의 씨앗 ‘아트캠프’  
< 7월호> 전시회 이면보기-전향섭의 보이지 않는 나무전의 앞면과 뒷면  
미술계 동향-제4회 죽산국제예술제  
< 8월호> 지역미술-수원: 컴아트와 쟁이골: 98 수원국제교감제와 98 단봉예술제,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움  
< 9월호> 테마파크형식의 조각공원-창희빌리지  
<10월호> 한국미술 명작감상-나혜석의 자화상(홍지연)  
전통을 찾아서-전통한지의 맥을 잇고 있는 진정한 장인을 찾아서(김민곤)  
지역미술-경기미술 새로운 도약전/제 7회 경기구상작가전/98 공간통합 행위예술제/수원조각가회전  
<11월호> 작가연구-생활에서 건져내는 리

얼리즘, 소통의 민주화를 꿈꾸는 리얼리스트 권용택(이섭)  
지역미술-수원: 시민에게 바짝 다가선 환경미술제, 98 수원 환경미술제

- <12월호> 1998년 한 해를 마감하며-수원 지역미술결산: 98 아트페어/수원 환경미술제-거리미술전/성목회전/경기구상작가회전/수원조각가회전/198212전/수원미협회원전

### 1999년도

- < 1월호> 젊은 작가-류승우-'인간'을 찾아 가는 먼 길(오혜주)  
그룹탐방-인천조각가협회  
리뷰-컴 아트 그룹, 시뮬레이션 등에서 활동한 작가 박용국 개인전
- < 2월호> 미술현장-99바깥미술 대성리전  
특별기획-지역미술대탐사: 경기 미술
- < 3월호> 작가연구-'얼음은 녹는다'에 대한 감상-박근용(김영호)  
미술계 동향-평택미협 주최 98 소사벌미술대전
- < 4월호> 지역미술-수원: 김미경 개인전/微風-인물화 6인전
- < 5월호> 지역미술-현경원 판화전/지경수 조각전  
리뷰-김희곤전  
미술계 동향-제 3회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 < 6월호> 동향-경기도 평택시 소재 베아트홀의 기획전인 수원-새로운 천년의 비전 전

- < 7월호> 동향-양평바탕골예술관 개관행사/경기도 양평 소재 갤러리전원 양평 작가들을 중심으로 개관 기념 '전원 속의 작가전' 개최

- <10월호> 특별기고-주류와 비주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유병학)  
프리뷰-길가의 축제, 38번 국도변이 달라진다: 제1회 로드사이드 심포지엄-안성 99

- <11월호> 편집부에서-무분별한 지역미술 행사 개최 유감  
미술문화현장-제1회 로드사이드 심포지엄-안성 99: 로드사이드, 조각, 그리고 환경에 관한 세 가지 진실  
화제의 전시-99하남국제환경박람회-환경미술제-퍼포먼스 속으로 들어온 환경(김병수)

- <12월호> 미술문화현장-1999한국현대미술-중심의 이동전: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 그 사이의 정체성을 찾아서  
제14회 마감뉴스 야외설치전-'빨': '빨'속에 핀 환경미술.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초점-공간의 해방, 미술의 역습: 경기도 이천시 사음 2리 '2000 공장미술제' / 1 벗어나다./ 2 폐공장에서 허락된 '미술교육의 판스홀'  
동향-99 경기공공미술제/경인 미술대전 수상작 발표와 수상전

## 2000년도

- < 1월호 > 리뷰-광명화우회전  
지역미술-인천: 신언일전/이소영전/김영린전
- < 4월호 > 뉴스-일산미술인회
- < 6월호 > 동향-제8회 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
- < 7월호 > 지역미술-수원: 김선미전
- < 8월호 > 지역-수원: 김선미 첫 번째 개인전  
동향-자연·성·인간 설치미술전: 2000수원국제연극제 행사  
중 자연·성·인간 설치미술전
- < 9월호 > SPECIAL FEATURE - 현장미술과 소그룹운동 연표  
미술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리포트-8. 15 묘지와 공동묘지 프로젝트와의 '잘못된 만남'
- <10월호> SPECIAL FEATURE-너희가 미술잡지를 아느냐

## 2001년도

- < 2월호 > EXHIBITION ISSUE-해와 달, 나무와 장욱선(김주원)  
전시 가이드-바깥미술 정기전 '땅의 힘! 바람의 힘-자생적 삶에 숨어든 庶氣와 神命'
- < 3월호 > 미술문화현장-2001바깥미술 정기전 '땅의 힘! 바람의 힘-자생적 삶에 숨어든 庶氣와 神命'  
전시리뷰-빼딱이의 晝亂中日記: 공간의 파괴와 생성-분당을 중심으로 한 소시민적 단상들
- < 4월호 > 연재 1-너희가 갤러리를 아느냐  
4 : 독당근과 독사의 슬픈 전설

- (김종호) Ⅱ 전시프리뷰 전시 가이드-물(水)전 : 팔당 상수원-양평 예술인들의 참여와 환경의식 고취의 장
- < 5월호 > 전시리뷰-수원 화가 강상중전  
전시 가이드-북한강 오월미술제. 북한강 주변일대(양평, 가평, 남양주군)
- < 6월호 > 젊은 작가-경기 지역의 젊은 화가 김명신  
작가를 찾아서-양평 화가 정경자 정경자 미술관을 찾아서/자연에 뿌리내린 그림(박영택)  
전시리뷰 & 프리뷰-북한강 오월미술제. 북한강 주변일대(양평, 가평, 남양주군)/제6회 안산미술협회전/제26회 안양미술협회 작품전
- < 8월호 > 작업실 탐방-김충식: 경기 광주 방도리의 四季에 천착하는 작가 아름다운 만남-가수 최희준과 안양 활동 화가 홍사영
- < 9월호 > 작업실 탐방-박동인·김동희: 양평의 부부 화가
- <10월호> 오늘의 현장작가전-전곡 구석기 설치미술제: 고고학과 예술의 만남, 접속-전곡리안  
제3회 민통선예술제  
리뷰-자화상에 관한 표현전: 경기도 안양, 금촌, 과천 젊은 작가들의 감꽃창작연구회 정기전 /한국 미술협회 안양지부의 제10회 포도미술제
- <11월호> 리뷰-강화미술협회 제 21회 정기전 / 2001 고양 현대미술제
- <12월호> 전시 하이라이트- '행위 · 영



상 · 설치 프로젝트city  
suwon 2001, 자극적 일상-틈'  
미술계 동향 - 고양시 그룹 '아  
트 그룹 자유로' 창립전

### 2002년도

- < 2월호 > 현장-바깥미술 대성리전
- < 3월호 > 지역-성남/분당: 제 4회 분당미술제
- < 4월호 > 지역-뉴 에이지 뉴 이미지전: 인천의 젊은 작가들이 만든 전시로 올해 9회
- < 7월호 > 리뷰-경기도 여성 화가들로 이루어진 경기여류화가협회 창립전 동향-안양 제래시장에 개관한 스톤엔위터갤러리

### 2003년도

- < 1월호 > Art Trend - 2002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 개막
- < 2월호 > Special Feature - 한국의 미술단체들, 지금 여기 / 2. 한국의 단체들: 구상전, 목우회, 신미술회, 한국구상조각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여류화가협회, 한국수채화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명사의 꿈을 찾아 7-미술평론가 이구열: 걸어다니는 근대미술자료관(조정육)  
미술 동서남북-지역에 가면 지역미술을 배워라: 각 지역별 미술관, 갤러리, 미술관련 대학교,

- 미술협회 등 단체 정리
- < 3월호 > Special Feature-한국의 미술단체들, 지금 여기 2  
한국미술단체의 실상과 허상/국내 사단법인 미술단체 현황/좌담회 3/한국의 미술단체들 2  
탐방-한국미술기록보존소: 미술사는 흐르고, 기록은 남는다
  - < 4월호 > Artist Now-김기일, 견고한 균열의 회화적 작법: 도자기 제작기법에서 힌트를 얻는 이천 출신 작가
  - < 5월호 > 독점취재, 중광스님 미공개 작업실 최초 공개: 경기도 포천 광릉수목원 근교의 팔야촌
  - < 6월호 > ART TREND-이양미술관 수원 지역 대학졸업생 작품전  
2003 의왕미술의 오늘 전
  - < 7월호 > 붓길-양수리의 소나무 & 서양화가 서용선
  - < 8월호 > Regional News-안산 미술계의 밝은 내일: 안산 청년작가회 전
  - < 9월호 > 붓길-여주 고달사지 & 한국화가 이인  
ART TREND-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청년미술제
  - <10월호 > 이달의 주목전시-황제성 전, 동양적 사색의 여유와 물리학적 논리의 조우
  - <11월호 > Regional News-수원: 어우름전 -경기대학교 한국화과 동문전/제6회 수원 화성 아트쇼-기획초대전  
안양: 안양포도미술제  
ART TREND-안성조각회 창립전 /제12회 평택국제아트페스티벌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 - 04

경기도 근·현대 소집단 미술활동의 흐름 연구

---

발행일 2005년 12월 31일

발행인 송태호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1-7200 fax: 031-236-0283

[www.ggcf.or.kr](http://www.ggcf.or.kr)

인쇄 디자인하우스

---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